

의암 주논개 탄신 42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개의 생애와 충절



장수문화원

논개의 생애와 충절

장수문화원



논개 생가(복원)



주촌(궐촌)마을전경



주촌(궐촌) 옆동산에 있는 논개조부 주옹일묘



주촌마을과 입구에 복원한 논개정여



義巖祠入口忠義門



義巖祠(영정각) 1955년 함태영부통영친필사액

발 간 사



장수문화원장
김진영

지난 11월 15일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에서 개최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이라는 제하(題下)의 학술(學術) 세미나는 논개 탄신(誕辰) 422주년(周年)을 맞이하여 문혀져 있거나 잊혀져가는 의암 주논개의 사적(事蹟)을 재조명(再照明)해 보고 하나 하나 정립함으로서 님의 생애와 충절 정신을 올바르게 널리 인식(認識)시켜 보자는 충정과 장수인(長水人)들의 자존심(自尊心)을 일깨워서 이 땅에 사는 보람을 갖자는데 의의(意義)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님이 가신지 400여년이 흘렀지만 생애와 사적에 대한 문헌적(文獻的) 기록(記錄)이나 채록(採錄)된 구전 설화(口傳說話)가 이설(異說)이 많고 취약하여 그동안 님의 사적 정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헌의 기록들마저 야사(野史)에 지나지 않아 배경(背景)을 무시(無視)한 채 나타난 현상(現象)만을 채록했기 때문에 님의 신분(身分)을 기녀(妓女)로 알려지게 되어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출생지와 생장지 장수에 그동안 전승(傳承)되어 오고 있는 설화들은 ‘고로상전이백년(古老相傳二百年)’이라는 구전 방식으로 배경과 정황(情況)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문헌적 기록들보다는 생생한 역사적(歷史的) 자료(資料)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기사기(晉州義妓祠記)>를 지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性品)이 허량(虛諒)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라고 기녀(妓女)의 품행을 절하(切下)하면서도 님이 기녀가 되었음을 가장(假裝)한 훌륭한 양가(良家) 출신의 여성임을 은유(隱喻)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학술 세미나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發表)하고 토론(討論)한 내용을 좀더 연구하고 다듬어서 한권의 논문집으로 발간(發刊)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필(執筆)과 편집(編輯) 등 여러 면에서 수고해주신 오병무(吳炳武) 교수님과 분야별로 연구 집필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뜨거운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이 책자가 의암 사적 정립에 한걸음 다가 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암 논개님의 사적을 정립해가는 작업은 물론 내 고장 문화 유산(文化遺産)을 조사 연구하고 계승(繼承) 발전시키는 일을 우리의 소명(召命)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1997년 1월 일

축 간 사



장수군수
김 상 두

금년은 주논개(朱論介) 탄신(誕辰) 423주년(周年)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해에는 이 고장 출신 명사(名士) 이규태(李圭泰) 선생을 모시고 우리 장수군을 빛내신 선열(先烈)들의 업적(業績)과 3절(三節)의 역사성(歷史性)에 관한 강연회(講演會)를 가진데 이어 전북향토문화연구회(全北鄉土文化研究會) 이강오(李康五) 회장(會長)님을 비롯하여 고두영(高斗永)·오병무(吳炳武)·최병운(崔炳云)·박기정(朴基政)·임채용(林采龍) 등 13명의 학계(學界) 인사들과 향토사학자(鄉土史學者)들이 이 곳 장수에서 '주논개(朱論介)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이라는 주제로 학술(學術)세미나를 개최(開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結果) 주논개의 생애와 충절 정신에 관하여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文化) 유산(遺産)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해에 개최한 학

술 세미나의 결과를 한권의 책자로 발간하게 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과 그동안의 노고(勞苦)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傳)합니다. 두루 아시고 계시는 일이지는 하지만 논개(論介)에 관하여는 이설(異說)이 많아 각양각색(各樣各色)이어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 제대로 정립(定立)되지 못한 채 전승(傳承)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왜곡(歪曲)된 부분도 많았던 것입니다. 지난 해 개최했던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논개의 생애와 충절 정신에 관한 한 그동안 왜곡되었던 부분과 오해(誤解)가 상당히 풀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학술 세미나의 결과를 한권의 논문집(論文集)으로 출간(出刊)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논개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더욱 뜻 깊고 보람있는 자료(資料)가 되리라 확신(確信)합니다.

금년 하반기(下半年)에는 주논개에 관한 각종 문헌을 집대성(集大成)하여 <<논개실기(論介實記)>>라는 이름으로 의암 사적(義巖事蹟)의 결집서(結集書)를 간행(刊行)코자 합니다. 우리 장수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민족(韓民族)에게 주논개에 관한 올바른 역사를 인식(認識)케 하고, 자라나는 후손(後孫)들에게 논개에 관한 역사 사실을 바르게 전해주고자 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애국 충절 정신(愛國忠節精神)을 기리는 정신적(精神的) 지주(支柱)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논문집을 발간(發刊)되기까지 심혈(心血)을 기울여 주신 오병무(吳炳武) 교수를 비롯하여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학계 인사 여러분과 군민(郡民) 여러분께 재삼(再三) 감사(感謝)를 드리며 본 논문집 발간을 진심(眞心)으로 축하(祝賀)합니다.

1997년 1월 일

축 간 사



장수군의회 의장
정 희 택

30년만에 부활(復活)된 우리 나라 지방 자치(地方自治)는 지난 5년동안 괄목(刮目)할만한 성과(成果)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歷史)동안 중앙 집권 방식(中央執權方式)으로 일관(一貫)되어 왔던 우리 나라가 성숙(成熟)한 민주 사회(民主社會)를 향한 대장정(大長征)이 시작되었고, 우리 장수군(長水郡)도 우리 스스로 해결(解決)하면서 21세기(世紀)의 꿈과 희망(希望)이 있는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지평(地平)을 힘차게 열어 나왔습니다.

주민 자치 시대(住民自治時代)를 맞이해서 지역 발전(地域發展)과 주민 복지 증진(住民福祉增進)에만 힘써 오고 매달려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地域文化)를 창달(暢達)시켜서 삶의 질(質)을 한 단계(段階) 높이기 위해 우리 고장의 자랑이요 얼인 3절(三節)의 정신(精神)을 비롯해서 선조(先祖)들의 전통(傳統)을 계승(繼承)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논개(論介)님의 거룩하신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이 올바른 평가(評價)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 늦은 감(感)이 있지만 지난 해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을 주축(主軸)으로 '논개(論介)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이라는 주제(主題)로 논개사(論介史) 정립(定立)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開催)하였습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국난(國難)의 시기(時期)에 열아홉 꽃다운 그 소중(所重)한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시고 나라를 구하신 논개님의 고귀(高貴)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깊숙히 뿌리 내려온 유교 사상(儒敎思想)에 의해 남존여비(男尊女卑) 풍조(風潮)와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폐단(弊端)으로 지역에 따라 이설(異說)이 난무(亂舞)하고 평가마저도 달라야 하였던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논개님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규명(糾明)과 가치 정립(價値定立)은 지방화 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課題)입니다.

이번에 장수문화원에서 발간(發刊)하는 논개사 정립 세미나 결과는 논개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가치 정립의 기초 자료(基礎資料)로 활용되고, 또한 우리 나라의 위대(偉大)한 여인상(女人像)으로 자리 매김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라는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고귀하고 애절(哀絶)한 논개님의 마음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국민 정신의 바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念願)하면서 축간사(祝刊辭)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1997년 1월 일

• 차 례 •

발간사 김진영(장수문화원장) 7

축간사 김상두(장수군수) 9

축간사 정희택(장수군의회의장) 11

논개(論介) 출생(出生)에 대한 소고(溯考) 15

논개(論介)의 가계(家系)에 대하여 53

문헌(文獻)에 나타난 논개(論介) 119

시문(詩文)에 나타난 논개(論介)의 충절 정신(忠節精神)..... 173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 문학적 이해 225

논개(論介) 출생(出生)에 대한 소고(溯考)

장수문학회장, 시인
고 두 영

1. 주논개(朱論介) 순국(殉國)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유사(有史) 이래 주변 국가(周邊國家)에 의하여 크고 작은 931번의 침략(侵掠)을 받아 왔으며, 그 때마다 국가 멸망(滅亡)의 위기(危機)를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대륙의 한족(漢族)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었지만 몽고족(蒙古族)과 일본족(日本族) 그리고 러시아족도 몇 번씩이나 거들었다.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 삼키려는 무서운 적들에 의하여 꼼짝없이 포위(包圍)를 당한 채 살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당장 총(銃)과 칼을 들이대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들의 앞잡이 북한(北韓)을 이용하여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부단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자유 우방(自由友邦)이라는 일본도 겉으로는 미소(微笑)를 띤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명백하게 한반도(韓半島) 통일(統一)에 장애(障礙)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남북한(南北韓)에 양 다리를 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여 우리가 그들의 경쟁 상대(競爭相對)로 솟아 오를까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過去)와 현실(現實)에서 유독히 우리들에게 큰 타격을 준 중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조선조(朝鮮朝) 선조(宣祖) 25년(1592) 4월 일본의 수령(首領)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소서행장(小西行長)·가등청정(加藤清正)·흑전장정(黒田長政) 등을 시켜 15만 대군(大軍)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하여 전 국토를 초토(焦土)로 짓밟았다. 이에 선조 임금은 견디다 못해 평안도 의주(義州)로 피난(避難)하기에 이르렀다. 뒤에 중국 명(明) 나라의 원병(援兵)과 권율(權慄) 등의 반격(反擊)으로 왜적은 일단 후퇴하였다가 선조 30년(1596) 재침(再侵, 丁酉再亂)하여 전후(前後) 7년간을 끌다가 선조 31년 물러간 미증유(未曾有)의 수난(受難)의 전화(戰禍)를 당하였다.

이러한 국난(國難)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위치(位置)가 대륙(大陸)과 해양(海洋), 해양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입장에 있다는데서 지리적 위치(地理的位置)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더러 있으나 그보다는 자기(自己)만의 이익(利益) 내지는 명분(名分) 찾기에서 비롯된 당파(黨派) 싸움에 의한 국론(國論)의 분열(分裂) 등으로 외침(外侵)에 대항(對抗)할만한 국력(國力)이 약화(弱化)하였던 것이 더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우리들의 민(民)·군(軍)·관(官)이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 많은 희생 가운데서 후세(後世)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意味)를 남겨준 죽음이 해전(海戰)의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제2차 진주성(晉州城) 싸움에서 왜장(倭將)을 꺾어내고 죽어간 논개(論介)의 죽음이라 하겠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논개의 죽음을 기리는 이유는 성벽(城壁)을 대치하여 왜적(倭賊)과 열흘간의 싸움 끝에 성이 무너지고 6만 여명의 성민(城民)이 학살(虐殺) 당하거나 자결(自決)한 처참한 상황에서 갓 스물의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초개(草芥)처럼 여기고 기꺼이 몸을 강물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겨레의 원수(怨讐)이자 가장 사나운 왜장을 죽이여 그들의 살벌한 짐승같은 기세(氣勢)를 꺾어버리어 호남지방(湖南地方)으로 진격(進擊)하고자 하였던 전략(戰略)을 후퇴(後退)케 하였다는 사실과 그 거룩한 순국으로 민·군·관의 호국 정신(護國精神)에 큰 자극제(刺戟劑)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겠다.

2. 각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난 논개의 출생(出生)

사람은 누구이든간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출생(出生)이 있게 되는 것이다. 먼저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최초의 기록(記錄)은 조선 후기(後期)에 이르러서였다. 논개의 순

국(殉國) 현지(現地)인 지금의 경남(慶南) 진주(晋州)에서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에 무군사(撫軍司)의 관원(官員)이 파견(派遣)되어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를 작성하고, 그 가족들에게 면역(免役)을 시키고 미태(米太)를 지급하였다.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이 무군사 관원이 되어 세자(世子)를 따라 삼남(三南)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해인 선조 27년(1594) 갑오(甲午)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로 파견되었는데 이 때 진주성에 들러 논개의 순국 사실을 채록(採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채록된 내용에는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라는 말로 시작 출생지(出生地)와 생년월일(生年月日)에 관한 기록이 전혀 언급(言及)되지 않은 채 논개가 단독(單獨)으로 왜장을 유인(誘引)하여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한 사실만 기록하였을 뿐이다.

그 뒤 1651년 논개가 순국한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 재상간심관(災傷看審官)인 오두인(吳斗寅)이 쓴 <의암기(義巖記)> (《양곡집(陽谷集)》)를 위시하여 명암(明庵) 정식(鄭忭, 1664-1719)의 <의암비기(義巖碑記)>, 서계(西溪) 박태무(朴泰茂, 1677-1756)의 <의암전(義巖傳)>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순국의 사실과 역사적인 인식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거사(擧事) 이전의 출생과 생애

(生涯)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진주에 머물러 있었으며 성의 함락(陷落)과 동시에 나라의 원수(怨讐)이자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단독 결심(單獨決心)과 단독 결행(單獨決行)으로 이전의 삶이 전혀 노출(露出)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논개의 출생과 생애에 관하여 언급되지 못한 채 미궁(迷宮)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초로 논개의 출생지에 대하여 '장수(長水)'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순조(純祖) 8년(1800) 간행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妓論介 長水人 公(崔慶會)所昞也., 隨入晉州 及城陷 盛其塗澤誘賊將 二人對舞南江危巖上 兩手抱二賊墮江而死., 後人鐫其巖立碑 和順.(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인데 최경회가 좋아하였다.<공을> 따라 진주로 갔다. 성이 함락되자 곱게 단장을 하고 왜장을 유인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함께 춤을 추다가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떨어져 순국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 비를 세웠다.)

위의 내용은 논개가 순국한 뒤 207년만에 그녀의 출생지가 '장수(長水)'라고 희미하게나마 밝혀지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얼마나 오래되고 답답한 소생(甦生)인가. 죽어도 죽지 않은 파랑새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이어서 헌종(憲宗) 5년(1839) 간행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권 1(卷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論介長水官妓 晉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
論介大宴于轟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 抱而同投樓下而死 因立
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논개는 장수의 관기
였는데 진주병사 최경회가 사랑하였다. 임진년 (진주)성이 함
락된 뒤 왜장들이 베푸는 축석루 큰 잔치에 논개가 참석 왜장
이 크게 취한 틈을 타 왜장을 끌어안고 축석루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곳에 비석을 세우고 관에서는 매년
제사를 올렸으며 장수 본 고향에는 정려가 세워졌다.)

앞의 《호남삼강록》에는 논개가 '장수의 관기(官妓)'로 기록되어
있고 진주병사(晉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고향 장수에 그녀의 정
려(旌閭)가 있다고 하였다.

논개가 순국한 뒤 279년이 지난 고종(高宗) 9년(1872) 간행한
《호남읍지(湖南邑誌)》 가운데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 절의편
(節義篇) 의기논개조(義妓論介條)에는

義妓論介一任縣內面楓川人 忠毅崔公慶會本縣時所昞也., 崔
公以晉州兵使 當壬辰之亂時論介隨去.(의기 논개는 본현의 임현
내면 풍천 사람으로 충의공 최경회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

라갔다.)

위의 기록에서 보면 논개는 기녀(妓女)가 아닌 의기(義妓)로 거사(擧事)를 위하여 기생(妓生)으로 가장(假裝)하였음이 암암리(暗暗裡)에 들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注目)되는 점은 그동안 '장수 사람'이라 기록되었던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 출생지가 처음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목숨을 바친 거사를 하고도 뿌리없는 사람으로만 생각들을 하였는데 오랜만에 출생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논개는 거사지인 진주(晉州)에서 200여년동안 객귀(客鬼)가 되어 헤매다가 겨우 고향을 찾아 죽었어도 죽지 않은 영혼(靈魂)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말(韓末)의 가혹한 일제(日帝)의 재침(再侵)으로 식민지(植民地)가 되면서 그들의 우리 민족(韓民族) 말살(抹殺) 정책(政策)으로 말미암아 논개의 고훈(孤魂)은 다시 땅 속 깊숙히 묻혀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우리 한민족은 해방(解放)이 되었지만 논개의 고훈은 땅 속 깊이 묻혀있어야만 하였는데 다행히도 1970년에 이르러 당시 전북일보사(全北日報社)에서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이라는 특별 기획에 의해 백남혁(白南赫)이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德裕山)의 응봉(雄蜂)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四方) 팔방(八方)이 우중충한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년전

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憂國)의 단심(丹心) 목숨과 바꾸고 그 충(忠)과 절(節)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낳은 곳이다.

고고(呱呱)한 산새들만의 고향인 양 인적(人跡)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씹터는 수백년의 풍상(風霜)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形迹)조차 찾을 수 없게 되고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의 짙은 교실(教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

논개는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갑술년(甲戌年)에 일찍 서당(書堂)을 차리고 교학(敎學)을 펴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갑술년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戌)'은 '개' 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의 작명은 '개똥, 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長壽)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論介)'란 무남독녀(無男獨女)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意識的)인 작명이었을 것이다.(이하 생략)

여기서 논개의 출생지가 오늘날의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주촌 마을'로 들어나게 되었으며, 논개는 조선조(朝鮮朝) 선조(宣祖) 때 일찍 이 곳에서 서당(書堂)을 차렸던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기이한 사주(四柱)에서 미래에 닦쳐올 위대한 운명에 대하여 예견(豫見)하였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한 성명(姓名)도 밝혀지고 논개 -개를 '놓았다.'에서 연유(緣由)된 작명(作名)의 동기(動機)까지 밝혀 놓았다. 논개의 생가(生家) 터는 모든 사람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 주촌초등학교)의 교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생가터·출생 마을·부모·생년월일·이름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전해지고 있는 자료가 기록인가 구전(口傳)인가는 밝히지 않았다. 아무튼 현재 장수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개 사적 정립 자료(論介事蹟定立)을 위한 자료(資料)의 기초가 들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토 역사(鄉土歷史)의 기록인 군지(郡誌)가 장수(長水)에도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모필(毛筆)로 역기(歷記)한 단권(單卷)의 책이 그 효시(嚆矢)가 되어 이 귀중한 고전(古典)을 되살리고 계승키 위해 장수향교(長水鄉校)에서 1975년 간행한 《벽계승람(碧溪勝覽)》 7(七) 절의편(節義篇)을 보면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 자람에 따라 관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 현감(縣監) 최경회(崔慶會)의 시종(侍從)을 들다가 최경회가 진주(晋州)로 부임(赴任)할 때 데리고 가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게 되었다.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축석루상(矗石樓上)에 올라 자축연(自祝宴)을 열고 명기(名妓)를 구하였는데 당시 조국(祖國)의 패전(敗戰)을 통분(痛憤)하고 있던 논개는 연약(軟弱)한 여자의 몸으로 단연(斷然) 보복(報復)을 결의하고 자진(自進) 연석(宴席)에 참석하여 갖은 수단(手段)으로 애염(愛艷)을 다 하며 적장(賊將)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의 손을 잡고 장시간(長時間) 의암(義巖)에서 용무(溶舞)하는 척 하다가 섬섬옥수(纖纖玉手)로 적장의 허리를 껴안은 채 남강(南江)에 투신(投身) 순사(殉死)하였다. 끝으로 한말(韓末)의 문장가(文章家)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한시(漢詩)와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의 시(詩) '논개(論介)'를 소개하여 의낭(義娘)의 충절(忠節)을 재음미(再吟味)해 보고자 한다.

고 하였다. 이 《벽계승람》의 논개에 관한 내용에는 논개의 출생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缺如)되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 뒤 장수군(長水郡)에서 1982년 간행한 《삼절(三節)의 고장》의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조를 보면,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

동양에서 태어난 인류 최대의 성인(聖人) 공부자(孔夫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가르쳐 신체(身體)를 죽여서라도 인의(仁義)를 이룩함이 사람이 취해야 할 도리(道理)라 하였으며, 그의 도학(道學)을 가장 충실하게 후세(後世)에 전달하여 아성(亞聖)의 칭호(稱號)로 존경받는 맹자(孟子)도 '사생이취의(捨生而取義)'를 주장하였으니 생명을 버리더라도 의리(義理)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세상에 우러러 보는 선비나 학식(學識)이 높은 학자(學者)나 평범한 백성들까지도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없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겠으나 알면서도 실행(實行)하기 어려운 것이 행실(行實)이라 할 것이다. 충(忠)·효(孝)·열(烈) 이 세 가지를 인간의 삼원(三元)이라 하였으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행(操行)을 갖추었다면 삼덕(三德)을 갖추었다고 일렀다. 이와 같은 수양(修養)이 되었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慾心)이나 일신상(一身上)의 편안함을 꾀하는 범인(凡人)의 처사(處事)에 비교하면 그 얼마나 의연(毅然)하며 또한 얼마나 고상(高尚)함인가.

의암(義巖) 주논개 부인(朱論介夫人)은 삼덕을 갖추었고, 삼

강을 실천하였으며, 살신성인하였고, 사생이취의하여 천금(千金)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버리고서 국난(國難)을 구하고 국치(國恥)를 설욕(雪辱)하였으며, 왜구(倭寇)의 칼날 아래 죽은 무수한 백성들과 그의 부군(夫君)인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장군(將軍)의 무고(無故)한 죽음에 대한 원한마저 풀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孝道)를 다하고 자라서 국가(國家)에 충성(忠誠)을 다하였으며 부군과 같이 순절(殉節)한 여인. 우리들의 역사(歷史)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일화(逸話)를 딴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1592년 선조(宣祖) 25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남에 백성들은 조정(朝廷)의 무력(無力)함과 국가의 녹(祿)을 먹는 관리(官吏)와 군대에 대한 원망(怨望)에 가득차 있었으며, 누구도 국난을 구하는 전쟁터에 달려가 왜적과 싸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의암 주논개 부인이 순절한 후 전국에서 의병(義兵)을 초모(招募)하는 격문(檄文)에 연약한 아녀자(兒女子)도 대의(大義)를 판별(判別)하고 적의 장수(將帥)를 피어 그 허리를 안고 남강(南江)에 순절하여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고 지아비의 원수를 갚았다. 피끓는 장부(丈夫)가 국난을 당하여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면 장차 무엇으로서 적을 무찌를 것인가 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니 국민의 애국심(愛國心)을 분기(奮起)시킬 수 있었으며, 곳곳에서 칼과 창을 들고 왜적 소탕(掃蕩)의 성전(聖戰)

에 참여하는 기적(奇蹟)을 낳게 하였으므로 주논개 부인의 죽음은 실로 임진왜란 종결(終結)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의암 주논개 부인은 애국 애족(愛國愛族)하는 민족의 갈 길을 가르치고 영구불멸(永久不滅)의 영혼(靈魂)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이 되었던 것이니 참다운 한국 여성(韓國女性)의 상징(象徵)이라 할 것이다.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나 부인의 성(姓)은 주씨(朱氏)이며, 관향(貫鄉)은新安(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後裔)로 고려(高麗) 예부상서(禮部尙書) 인장(印長), 이조(李朝)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丞旨) 공(絳)으로 세계(世系)를 거쳐 7대조(七代祖) 금교찰방(金郊察訪) 휘(諱)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官職)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赫)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1574년 선조(宣祖) 7년 9월 3일 밤 논개가 출생함에 달문의

아우 달무(達武)가 서당에 달려와 이 사실을 전하였다. 달문은 몇 번인가 손가락을 헤아려 보더니 '괴이(怪異)한 사주(四柱)로구나.' 하고 고개를 가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주달문은 일찌기 안의현 서하면(西下面) 봉절리 밀양 박씨 집 규수(閨秀)에게 장가들어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 오던 가운데 남아(男兒)를 얻으니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불행하게도 나이 15세에 괴질(怪疾)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 주씨 가문(朱氏家門)의 대(代)를 이어 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를 얻어 부부는 무척 기뻐하였으나 여아(女兒)를 분만(分娩)한 부인의 실망은 대단했을 것이다.

주달문은 부인을 위로(慰勞)하며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나 4갑술(四甲戌)의 특이(特異)한 사주를 타고나서 장차 큰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名聲)이 높을 것이니 우리들 나이 늙어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4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 이름 지어 주고 자라면서 아동 교육(兒童教育)의 여가(餘暇)를 타서 한문(漢文)과 예도(禮道)를 가르치기를 게을

리 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智慧)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놀라게 하였다.(이하 생략)

위의 내용에 이어 계속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숙부 주달무의 농간(弄奸)으로 논개는 민며느리 사건으로 수모를 겪는다.
- 논개는 남편 최경회를 따라 진주로 가다가 왜적에 붙잡혔으나 황진(黃進) 장군이 기적적으로 구출된다.
-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한다.
- 석학(碩學) 문장(文章)들이 논개의 순절을 흠모(欽慕)하는 시작(詩作)을 남겼다.

등으로 이어 가면서 가계에서 출생·출생지·성장(成長) 과정·기구한 운명(運命)에 얽힌 사연(事緣)·최경회 현감과의 인연(因緣) 등을 자세하게 엮어 그동안 단편적(單片的)으로만 거론되던 논개의 일대기(一代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1970년도 전북매일신문사(全北每日新聞社)에서 발간한 《명문(名門)의 고향(故鄉)》과 맥(脈)을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3년 전북애향운동본부(全北愛鄉運動本部)에서 간행한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의 내용 가운데 논개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주논개(朱論介)

- 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

최진성(崔辰聖) 집필(執筆)

진주(晋州) 남강(南江) 의암(義巖) 위에서 왜장(倭將) 게야 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고 산화(散華)되어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부끄러움을 씻고 민족혼(民族魂)을 불러 일으킨 겨레의 영혼(靈魂)이 있었으니 그의 성(姓)은 주씨(朱氏)요 이름은 논개(論介)이다.

그의 선대(先代)는 중국(中國) 송(宋) 나라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손(後孫)이 된다. 고려 시대(高麗時代)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인 인장(印長)이 가문(家門)을 빛냈으며,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을 지낸 승천(勝遷)과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丞旨)를 역임한 공(絿)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여 7대조가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게 된다.

6대조 응표(應杓)는 통덕랑(通德郎)을 증직(贈職)받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사를 하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

조부(祖父)의 휘(諱)는 혁(赫)이니 처음으로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書堂)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어 후진(後進) 교육에 힘썼다. 부친(父親) 달문(達文) 역시 가정 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문(學問)과 덕(德)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 유지(生計維持)를 하였다.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어머니 또한 부덕(婦德)을 갖춘 어진 부인이었다.

달문 부부에게는 일찌기 아들 대룡(大龍)이 있었는데 대룡은 단란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랐으나 불행하게도 15세란 어린 나이로 병을 앓다가 그만 요절하고 말았다. 달문 부부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또한 후사(後嗣)가 끊김이 더욱 선영(先塋)에 대한 죄가 됨을 근심한 나머지 서로 상의(相議)하여 우리 나라 8대 명산(名山)의 하나인 장안산(長安山)으로 들어가 공(功)을 정성껏 올렸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그들 부부의 정성에 감명되었는지 그 보람이 있어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를 얻게 되었다. 그 후 10개월만에 소원(所願)했던 아들이 아닌 딸을 분만(分娩)하게 되었으니 이 때가 1574년 9월 3일 밤이었다.

달문이 서당에서 이 소식을 아우인 달무에게 듣고 우선 사주(四柱)를 짚어 봤다. 몇 번인가 손가락을 꼽아 괘사(卦辭)를 풀어 보면서 '괴이(怪異)한 사주(四柱)로구나.' 하고 혼자말로 되씹으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을 분만한 부인 박씨는 몹시 실망하고 있었다. 달문은 실망하고 있는 부인을 위로(慰勞)하면서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났으니 4갑술(四甲戌)의 특이(特異)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 장차 큰 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名聲)이 높을 것이니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한스러울 뿐이요.'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었다.

달문은 생년월일이 4갑술이라 4갑술의 '술(戌)' 자를 십이간지(十二干支)로 '戌은 개띠' 곧 '개'를 '놓다.' (놓다는 낳다의 방언)를 거꾸로 붙여 '놓은 개' - '논개'라 하고 이두문식(吏讀文式)으로 '論介'라 표현 이름하였다.

위의 내용은 《삼절의 고장》 논개에 관한 기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이 지역에서 논개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각종 문헌과 기록이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90년 장수군지편찬위원회(長水郡誌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 《장수군지(長水郡誌)》의 논개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의 성씨(姓氏)는 주씨(朱氏)이며, 관향(貫鄉)은新安(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동양 성리학(東洋性理學)의 시조(始祖)라 이르는 주부자(朱夫子)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後裔)로 고려(高麗) 때 예부상서(禮部尙書)의 벼슬에 올랐던 인장(印長), 이조(李朝)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承旨) 공(絲)으로 세계(世系)를 이어 7대조(七代祖)인

금교찰방(金郊察訪 恭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官職)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들어와 정착하였는데 이 마을이新安 주씨(新安朱氏)의 집성촌(集姓村)이 되었다. 논개의 조부(祖父)인 혁(赫)이 전라도 장수현 임내면 주촌(朱村) 마을에 들어와 학당(學堂)을 차리고 아동(兒童)들을 훈육(訓育)하는 훈장(訓長)이 되었다.

아버지 달문(達文)은 부친의 대를 이어 훈장으로 가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장성하여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의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문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남아(男兒)를 출산하여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뻐하였다.

1574년(宣祖 7년 甲戌) 9월 3일 박씨 부인은 산기(産氣)를 느껴 분만 준비를 하였으며 밤 술시(戌時)에 여아(女兒)를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아동을 가르치던 주달문에게 여아의 출생을 전달한 사람은 주달문의 아우 주달무(朱達武)였다.

주달문은 몇 손가락을 꼽아 보고서 '매우 기이(奇異)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하면서 내실(內室)로 들어갔다. 산모

(産母)는 여아를 출산하고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남편 주달문은 실의(失意)에 빠져 있는 부인을 위로하여 '비록 여아를 분만하였으나 아이의 사주(四柱)가 아주 기이하오.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나 4갑술(四甲戌)의 특이(特異)한 사주를 타고 났소. 장차 큰 일을 성취할 것이며 높은 명성(名聲)을 얻을 것이나 우리 부부 나이 늙어 대성(大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 한스러울 뿐이요.' 라고 위로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4갑술의 뜻을 새겨 '개해' '개달' '개날' '개시' 라면 '개를 낳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상도 방언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 라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 라는 이름을 지었다. 자라면서 아동 교육의 여가를 틈타 한문과 예도를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非凡)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기쁘게 하며 놀라게 하였다.(이하 생략)

위의 내용 역시 논개의 기록에 관한한 앞에서 살펴 본 《명문의 고향》·《삼절의 고장》·《전북인물지》(상권) 등과 함께 그녀의 출생지·생년월일·부모·작명의 경위 등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끝으로 1996년 부산(釜山)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鄕土文化研究所)에서 간행한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 의미(歷史的意味)》의 논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

음과 같다.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達文)으로 주촌의 서당(書堂) 훈장(訓長)이었다. 논개의 모친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서 그의 선조는 팔도병사(八道兵使)로 황석산성(黃石山城) 싸움에 공적을 남긴 박명박 장군이다.

용일에게는 달문(達文)과 달무(達武)의 두 형제가 있었다. 달문은 아버지의 높은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을 배워 문장과 덕행(德行)이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용일의 학식과 덕망은 산등성이를 넘어 대곡리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결국은 경상도 금당리에서 대곡리로 초빙(招聘)되어 이사(移徙)까지 하게 되었다.

달문에게는 일찍 '대룡'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에 괴질로 요절하고 사십중년까지 부인에게 태기가 없었다. 부부는 아들을 잃은 실의를 딛고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덕유산(德裕山) 영각사로 들어가 삼년동안 치성(致誠)을 드려 낳은 아이가 무남독녀(無男獨女) 논개이다.

논개의 탄생일은 1574년 9월 3일 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주(四柱)로 따지면 사갑술(四甲戌)이 된다. 곧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이다.

‘술(戌)’은 지지(地支)로서는 제11위에 해당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그래서 달문은 딸을 낳았기에 사주(四柱)를 보고서 내심으로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모를 바라보며 ‘당신이 개를 낳았군요.’라고 하였다. 부인이 놀라 ‘개를 낳았다구요?’ 하자 달문이는 사주를 따져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부부는 이 기이한 사주를 놓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4갑술생(四甲戌生)이 있으니 영조(英祖)가 아닌가. 달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을 비유(比喩)한 것이다. 그래서 작명(作名)하기를 ‘논개(論介)’라고 했다.

위의 내용 역시 앞에서 살펴 본 저술의 기록들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논개 조부의 이름이 ‘용일(溶一)’로 되어 있어 이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 9편의 향토지(鄕土誌)에서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을 살펴 보았다. 논개의 진주(晋州) 축석루(矗石樓)에서 순국한 뒤 207년이 지나 《호남절의록》이 발행되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논개의 출생지·생년월일·성장 과정·작명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논개가 순국한 현지 진주에서는 전혀 그녀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채 논개라는 기녀(妓女)가 왜군(倭軍)의 승전연(勝戰宴)에 들어가 제일 사나운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남강(南江)에 투신(投身) 순절(殉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순국 1년만에 류몽인(柳夢寅)이

자신의 저서 《어우야담(於于野談)》에 기록했고, 58년이 지난 뒤 오두인(吳斗寅)이 〈의암기(義巖記)〉(《陽谷集》)에 기록하였으며, 101년이 지나 정식(鄭奭)이 〈의암사적비기(義巖事蹟碑記)〉를 지어 논개의 순국 사실을 기록하였고, 119년이 지나 박태무(朴泰武)가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의기전(義妓傳)〉을 지었다. 그 뒤 143년이 지나 정약용(丁若鏞)이 〈의기사기(義妓祠記)〉에서 논개의 순국 사실만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논개의 거룩한 순국을 기록하여 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기록은 한결같이 그녀의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800년 그녀가 순국한지 207년이 지나 그녀의 출생지 호남(湖南)에서 발행한 《호남절의록》과 1839년 그녀는 순국한지 246년이 되어 같은 호남에서 발행한 《호남삼강록》, 그리고 1872년 그녀가 순국한지 279년이 지나 발간된 《장수읍지》에서 그녀가 '장수(長水)'에서 출생하였으며,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내용과 진주성 싸움에 최경회를 따라가 왜장을 끌어안고 순절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일제(日帝)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植民地政策)에 억눌리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거론되지 못한 채 묻혀야만 하였다. 해방이 되면서 사실의 기록과 그동안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던 그녀의 출생과 생애를 구체적으로 발굴 정립(定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명문의 고향》·《삼절의 고장》·《전북인물지》·《장수군지》 등에서 논개의 출생 마을이 지금의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이라는 사실과 그녀의 출생 년월일시가 1574년 9월 3일 밤 술

(戌)시이며, 4갑술(四甲戌)이라는 기이한 사주(四柱)를 타고 태어났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편 그녀의 기이한 사주 때문에 '논개(論介)'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던 것이다. 그녀가 순국한지 200여년까지 순국의 사적 따로, 출생과 생애의 사실 따로이던 것이 그녀의 거룩한 죽음을 추앙(推仰)하던 장수(長水)와 진주(晋州)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그녀의 가계(家系)와 출생과 생애와 순국 사실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접목되고, 그녀가 순국한지 400여년이 지나서야 그녀에 관한 사적(事蹟)이 확실하게 정립(定立)되기에 이른 것이다.

3. 금석문(金石文)에 새겨진 논개의 출생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논개의 사적에 관계된 금석문(金石文)은 8기로 들어나 있다. 경상도 진주 축석루(矗石樓) 주변에 3기가 있고, 나머지 5기는 그녀의 생향지(生鄉地)인 전북 장수군 장계면과 장수면에 세워져 있다. 금석문이 세워진 연대(年代)의 순서(順序)에 따라 어떠한 성격(性格)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맨 처음으로 세워진 금석문은 진주 축석루 아래 그녀가 거사(舉事)한 남강(南江) 가의 바위에 새겨진 '義巖'이란 한문(漢文) 전서체(篆書體)의 글씨이다. 이 금석문은 1625년 그녀의 순국 32년 뒤에 진주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정대용(鄭大隆)이 글씨를 쓴 것을 세웠다고 하며, 논개의 순국 사실을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하게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신빙성(信憑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논개가 거사 순국한지 129년(1722)이 되던 해 진주 남강가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에 새겨진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류어우(柳於于) 몽인(夢寅) 야담(野談)에서 말하기를 논개는 진주 관기(官妓)였다. 그 때는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에 김천일(金千鎰) 등 창의(倡義) 장수(將帥)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일본군(日本軍)과 항쟁(抗爭)하였다. 성이 무너지고 군사가 흩어지니 백성이 다 죽었다.

논개는 치장(治粧) 성복(盛服)을 하고 측석루 아래 큰 바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되는 강심(江深)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왜군의 무리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한 왜인(倭人)이 바로 들어갔다. 논개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왜장이 달려어 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앞으로 걸어나아가 왜장을 끌어안고 몸을 날려 강심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관기의 몸으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자를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어찌 논개 하나에 그치랴. 다 그 이름을 잊었으니 저 관기들을 음란(淫亂)한 창녀(娼女)라고 하여 정렬(貞烈)이라 칭송(稱頌)함이 옳지 않다고 하나 죽음에 가기를 옛집에 돌아가듯 하였으니 썩지 아니하였고 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성스럽게 되어 가

는 중의 하나이다. 참기 어려우나 나라를 등지지 않고 적을 따르지 않는 것도 타의 아닌 충(忠)이니 그 기특함과 슬픔이다.

이 글은 당시 실록(實錄)에서 발취(拔萃)하였으니 오늘의 비석(碑石)에 새긴 말 가운데 중첩(重疊)됨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대로 새겨서 이어간다.

그 바위 홀로 섰고	獨峭其巖
그 여자 우뚝 섰네	特立其女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女非斯巖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焉得死所
바위가 이 여자 아니었으면	巖非斯女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소냐	焉帶義聲
한결같이 흐르는 강과 외로운 바위	一江孤巖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萬古芳名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95년(九十五年) 임인(壬寅) 4월(四月) 일(日) 입(立)

위의 비석이 세워진 것은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95년(九十五年) 임인(壬寅) 4월(四月) 일(日) 입(立)' 이라는 맨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드시 조선 경종(景宗) 2년 서기 1722년이다. '숭정(崇禎)'은 중국 명(明) 나라의 연호(年號)이다. 위 금석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논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뒤 논개가 순국한지 253년이 지나 1846년 장수현감(長水縣監) 정주석(鄭胄錫)이 장수에다 '축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를 세웠다. 그 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概)를 굽히지도 않는 것을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하여 죽음 보기를 초개(草芥)와 같이 하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한가. 산에 영(靈)스러운 풀이 있고 물에는 맛 좋은 샘이 있으니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해서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 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한다.

그런데 위 수명비는 일제 때 왜경(倭警)이 파괴(破壞)하고자 하여 순한 수난(受難)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곳 주민들에 의해 땅 속에 묻혔다가 해방 후 발굴하여 다시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

비문을 통해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成長地)가 지금의 전북 장수(長水)였음이 공식화(公式化)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석이 논개의 성장 고을에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최경희(崔慶會)와의 관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이 아쉽다.

그 뒤 논개가 순국한지 361년이 지나 1954년 의기창열회(義妓暢烈會)에서 진주 촉석루 서편(西便)에 있는 의기사(義妓祠) 정원(庭園)에 논개에 관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인 것이 동시에 둘일 수 없는 것이면서 민족의 가슴팍에 살아 있는 논개의 이름은 백(百)도 천(千)도 만(萬)도 넘는다. 마지막 시각(時刻)까지 원수(怨讐)와 더불어 노래하며 춤추었고 그를 껴안고 죽어간 입술이 앵도보담 붉고 서리맺힌 눈썹은 반달보다 고왔던 것은 한갓 기생(妓生)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가슴에 영원토록 남을 처녀의 자태(姿態)였으며 만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받을 위대한 여왕(女王)으로서이다. 민족 역사(歷史)의 산과 들에 높고 낮은 권세(權勢)의 왕(王)들 무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相關)이 없으면서 한 줄기 푸른물과 한 덩이 하얀 바위가 삼백예순 해를 지날수록 민족의 가슴 깊이 한결 푸르고 고운 까닭이라. 그녀를 사랑하고 숭모(崇慕)하는 뜻이라.

썩은 벼슬아치들이 외람(猥濫)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민족을 고달피고 나라를 망친 허물과 포독(暴毒)한 오랑캐의 무리가 어진 민족을 노략하므로 식어진 어미의 젖꼭지에 매달려 애기들을 울린 저주(詛呪)를 넘어 죽어서 오히려 사는 이치(理

致)와 하나를 바쳐 모두를 얻는 도리(道理)를 증명(證明)한 그녀를 보면 그만이다. 피란 매양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며 무고(無故)히 흘러진 그 옛날 민족의 피는 어즈버 진주성터의 풀거름이 되고 말아도 불로한 처녀 논개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겨 남 가람의 천추로 푸르러 구비치며 흐름을 보라.

애오라지 민족의 처녀에게 드리운 민족의 사랑만을 강물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기에 아아 어느날 조국의 다사로운 금잔디 밭으로 물웃 벗어 들고 거닐어 오실 당신을 위하여 돌하나 세운다.

(중략)

의낭(義娘)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주촌리이니 성(姓)은 주씨(朱氏)이다.

장수군 장수면 큰 길가에 있는 논개 비각(碑閣)은 장수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세운 비석을 미일전쟁(美日戰爭) 때에 일본 경찰이 땅에 묻었던 것인데 을유년(乙酉年) 팔월(八月) 해방 뒤에 장수군민의 힘으로 파서 모신 것이다.

임진왜란 당년 오월초(五月初) 초사흘날 서울을 빼앗기고 유월(六月) 열 사흘날에는 평양(平壤)이 떨어졌으니 진주통판 김시민 등의 사수(死守) 분전(奮戰) 아래 진주성만이 홀연한 호남의 뚝이 되었다. 다음 해 선조 26년 계사(癸巳) 6월에 6만 왜병(倭兵)이 아연 진주성을 세겘으로 둘러싸니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등 삼장사(三壯士)를 비롯한 결사의거(決死義擧)의 장병(將兵) 육천(六千)이 밤낮 여드레동

안 꼬박 혈투(血鬪)했으나 6월 29일 드디어 진주성은 무너지다. 순국자의 피에 물들어 흐르는 남강은 불그레하고 한 마리의 개와 닭 소와 말이 성할이 없이 학살(虐殺)당한 성민(城民)의 죽음으로 고랑과 샘들이 모조리 메꾸어졌다. 날이 새며 적들에 만흥(滿興)은 더욱 도도하여 축석루 위에 버려진 잔치가 한창 난만(爛漫)할 뿐이다.

이 때 다락 밑 강 언덕에 외딴 넓적 바위 위에 서는 한 사람의 꽃다운 여인 홀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만취(滿醉)한 적장(敵將) 모곡촌(毛谷村) 일설(一說) 석종노(石宗老)가 달려 내려가더니 여인과 더불어 얼싸안고 환장처럼 즐기는 것이었다. 마침내 여인은 적장을 껴안고 떨어지고 만다. 그에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 뾰듯이 반지를 끼고 있었으나 이 분이 곧 의기논개이다.

이 비를 세운 뜻은 안해인 계사년 논개 의낭 순국하신 육갑(六甲)을 기념하여 비롯된 것이다.

단기 4287년 갑오 10월 29일

의기창열회 삼가 세움

글 지은이 설창수

글씨 쓴 이 오재봉

일 주장 김진숙 · 임한산 · 박봉래

돌일 한 이 박지문

위 비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진주에서 처음으로 논개가 장수

군 계내면 대곡 주촌 태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개의 순국 사실을 만 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받을 위대한 여왕(女王)으로 추앙 찬양한 점이다.

1960년 논개의 출생과 성장지인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의암 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가 세워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本鄉)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결구(結構)하고 산수의 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니 사방(四方) 인사(人士) 부급종사(負笈從師)하여 소거(小居) 수년에 일촌(一村)을 가성(可成)하니 세인(世人)이 주선생(朱先生)의 촌이라 칭하여 주촌(朱村)이라 하다.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9월에 일녀(一女)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愛知)하여 사주(四柱)를 기록하니 4갑술(四甲戌)이라. 즉석에서 '産(논)' '狗(개)'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라 명명하였다. 논개 13세 병술(丙戌) 춘(春)에 부친을 결별(訣別)하고, 18세 신묘(辛卯) 춘(春)에 본현감(本縣監) 최경회(崔慶會)의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진주(晉州)에 부임(赴任) 수행(隨行)하였다.

계사(癸巳) 6월 왜적의 침입으로 진주성이 함락되어 제장(諸將)이 전몰(戰歿)하니 성중(城中)이 어육(魚肉)이라. 7월 7일

촉석루와 남강상(南江上)에 왜적의 전승연(戰勝宴)의 난자 강개분의(慷慨奮義)하여 자천위기(自薦危機)하고 왜장 입화종무(立花宗茂)의 취사광(醉辭狂)함을 기회로 장재라. 예비된 10지(十指)의 지환(指環)과 만장의 열기로 남강심류(南江深流)에 견포수락(肩布遂落)하여 만고불구(萬古不拘)의 대의(大義)를 수립(樹立)함을 항가에 구가 영전하는 구감(龜鑑)으로 자(玆)에 입석(立石) 기념하였다.

단기 4293년 12월일

장수교육감 김상근 근립
 장천인 이재순 근기
 성주인 이상렬 근서

논개가 출생한 마을 입구에 세워진 본 사적불망비(事蹟不忘碑)에는 논개의 출생지·출생 마을 주촌(朱村)의 유래(由來)·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최경회(崔慶會) 현감과의 관계로 진주성(晋州城) 싸움에 가담한 동기(動機)와 성(城)이 함락(陷落)되고 그 처절했던 상황(狀況)·기생(妓生)으로 가장(假裝)하여 적의 승전연(勝戰宴)에 들어가 왜장을 껴안고 순국(殉國)한 사실 등이 소상(昭詳)하게 정립(定立)되어 있다.

그 뒤 1982년 논개의 생가(生家) 빈터에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가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곳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논개의 출생지이다. 논개의 성(姓)은 주씨(朱氏)이고, 호는 의암(義巖)이며, 의암이라는 호는 그녀가 순국(殉國)한 후 나라에서 내린 것이다. 그녀가 일찌기 장수현감(長水縣監) 최경회(崔慶會)를 모시는 몸이었다. 최경회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우도(全羅右道)의 의병장(義兵將)으로 큰 공을 세워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사(慶尙右道兵馬使)가 되어 진주성으로 전임(轉任)하였다. 이 때에 논개도 그를 따라 진주로 이주(移住)하였다.

그 해 6월에 왜군이 큰 세력을 휘몰아 진주성을 공격해 오자 격전(激戰) 끝에 최경회는 전사(戰死)하고 성마저 함락되는 비극(悲劇)이 일어났다. 진주성에 입성(入城)한 왜군은 7월 7석(七夕)날 남강 가 축석루에서 승전 축하연(祝賀宴)을 열었다. 이 때 논개는 나라에 충절을 다하고 최경회의 원수(怨讐)를 갚기를 맹세(盟誓)하고 왜군 연회(宴會)에 들어가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강가 바위로 유인(誘引)하여 그를 끌어안고 푸른 강물에 투신(投身)하여 순국(殉國)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는 그녀의 의거(義舉) 장소(場所)인 강가 바위 위에 비석(碑石)과 사당(祠堂)을 세워 그녀의 충절(忠節)을 기리게 되었다.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충절을 다한 논개의 순국 정신(殉國精神)은 만고(萬古)에 빛날 것이다.

1982년 10월 일

지은이 장수군수 박청준
쓴이 일송 한태석

그녀의 생가(生家)가 허허로운 쭉대 밭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생가터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

1987년에 이르러서는 그녀의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하고 '주논개 생가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다. 그 비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 주촌(朱村) 마을은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부친 주달문(朱達文)과 모친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 태어난 곳으로 이백여평(二百餘坪)의 생가터에는 우물과 유허비(遺墟碑)가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주논개랑생가지사적불망비(朱論介娘生家地事蹟不忘碑)'가 있었다.

군민(郡民)의 숙원(宿願)인 생가(生家) 복원(復元)은 4백여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다가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특별하신 배려로 1986년에 착공하여 1986년에 완공되었다. 원 생가터는 대곡 저수지(大谷貯水池) 시설로 수몰(水沒)됨으로 같은 마을 둘레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興望)에 따라 남쪽으로 삼백여미터 떨어진 곳에 부지(敷地) 8천3백40평을 마련 복원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의암 주논개의 충절이 선양(宣揚)되고 후세에 그 거룩한 얼이 전승(傳承)되어 길이 숭모(崇慕)하게 되었다.

1987년 8월 일

장수군수 하광선(河廣善) 찬(撰)

광주(廣州) 이규진(李圭鎭) 서(書)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백여년동안 허허로운 쑥대밭으로 방치(放置)되어 있던 생가터가 저수지(貯水池) 시설로 수몰(水沒)되면서 그 터가 영원히 소멸(消滅)될 위기에 이르자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풀기 위하여 마을 가까이에 새터를 잡아 생가 복원을 하고 생가사적비(生家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논개의 생가가 현실적으로 복원 정립되었던 것이다.

1996년 6월 주촌 마을 입구에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間)'가 복원되었다. 이 정여(旌閭)의 기(記)에는 옛 기록에 정려가 주촌 마을 입구에 서 있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무너져 없어지게 되어 그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할 수 없었기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4. 끝맺음

지금까지 필자는 신빙성이 가장 있다고 보이는 9편의 향토지의 기록과 8기의 금석문의 기록을 통하여 논개의 출생에 대해 소고(溯考)해 보았다.

논개가 진주성 함락 후 나라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순국한 사실을 기록한 주요 문헌(文獻)으로는 진주 지방에서 거사(擧事) 후 1년이 지나 어우(於于) 류몽인(柳夢寅)이 쓴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이어 58년 뒤에 이루어진 오두인(吳斗寅)의 저서 《양곡집(陽谷集)》 가운데 〈의암기(義巖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101년 뒤 명암(明庵) 정식(鄭忭)에 의해 〈의암비기(義巖碑記)〉가, 그리고 119년 뒤 박태무(朴泰茂)에 의해 〈의기전(義妓傳)〉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43년이 지나 다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에 의해 〈의기사기(義妓祠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록들에서는 한결같이 논개의 거룩한 순국 사실(殉國事實)만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의 가계(家系)·출생지·생년월일·작명(作名) 등에 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인(後人)들이 논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과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 발행되자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가 지금의 전북 장수군 출신이라는 사실과 최경희와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그 뒤 1970년대에 이르러 간행된 《명문(名門)의 고향(故鄉)》·《벽계승람(碧溪勝覽)》·《삼절(三節)의 고장》·《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장수군지(長水郡誌)》 등의 향토지에 의해 논개의 가계와 성씨(姓氏)·부모·출생지인 주촌(朱村)·4갑술(四甲戌)의 생년월일시·4갑술의 사주(四柱)에 따른 작명(作名)·민며느리 사건과 최경희와의 만남·진주성 싸움에 가담·진주성의 함락 후 순국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진주 지방에서는 그동안 논개에 관하여 순국 사실 위주로 기록된 내용에만 치중해왔으나 1996년 부산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논개사적연구(論介事蹟研究)'를 시작 상당한 연구 성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소에서 그동안 논개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묶어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 의미(歷史的意味)》라는 한권의 논문집(論文集)을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집의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명문의 고향》이나 《벽계승람》·《삼절의 고장》·《전북인물지》·《장수군지》 등에서 볼 수 있는 논개에 관한 내용과 거의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본 8기의 금석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상호 보완적(相互補完的)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 본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고증(考證) 문헌과 금석문을 망라하여 밝혀진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논개는 주부자(朱夫子) 회암(晦菴) 희(熹)의 후예(後裔)로 아버지는 주달문(朱達文)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朴氏)이며, 출생지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이고, 생년월일시는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의 4갑술(四甲戌)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논개의 사적에 관한 연구 과제는 논개가 열악한 여자의 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거룩한 순국을 자행(自行)하였다는 사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정사(正史)로 수록(收錄)할 것과 충(忠)·효(孝)·열(烈)의 높으신 논개의 얼을 길이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라 할 것이다.

논개(論介)의 가계(家系)에 대하여

順天大學校 教授, 哲學博士
오 병 무

1. 서언(緒言)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差別)이 있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태어난 뒤 그 사회(社會)의 제도(制度)에 따라 신분(身分)을 구별하기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신분이 미천(微賤)하든 존귀(尊貴)하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있다. 우리 나라 역사적(歷史的)인 인물(人物) 가운데에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불분명(不分明)한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논개(論介)이다. 논개는 역사적으로 실존(實存)했던 인물로 우리 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業績)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 주신 부모(父

母)와 출생지와 성장지 곧 그녀의 생애(生涯)에 관한 기록들이 불분명하여 후세인(後世人)들에게 많은 논란(論難)거리를 제공(提供)케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논개의 생애(生涯)에 대한 기록(記錄)으로는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서(著書)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歷史的) 한 사건(事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헌 설화(文獻說話)에 지나지 않는다.¹⁾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 논개의 생애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提起)된다고 하겠다. 즉 《어우야담》의 기록에는 논개의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출생과 이름, 출생지(出生地)와 성장지(成長地), 신분(身分)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주장(主張)한 바 이설(異說)들이 많이 있게 되었으며, 이 이설들 때문에 야기(惹起)되었던 또다른 이설들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논개의 생애(生涯)에 관하여 일관(一貫)되게 기록(記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본고는 논개의 생애에 관한 새로운 사실(事實)을 찾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言及)한 점을 감안(勘案)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개의 생애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검토

1)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 당시 여러 지방의 민간(民間)에 흩어져 구전(口傳)되던 것을 채록(採錄)하여 만든 것이다. 이 《어우야담》권일(卷一) 인륜편(人倫篇) 효열(孝烈) 조(條)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야담(野談)과 설화(說話) 형식(形式)으로 기술(記述)하였다.

(檢討)해 보고, 논개의 가계를 정립(定立)하는데 일관되고 타당성(妥當性) 있는 자료(資料)를 거기서 찾아 보려는 것이 본고를 쓰는 목적(目的)이다.

2. 논개의 가계(家系)

(1) 논개의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논개의 성씨(姓氏)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문헌적(文獻的) 기록(記錄)에서는 언급(言及)된 곳이 없고 단지 구전(口傳)으로만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때부터 논개의 성씨에 대한 논의(論議)가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러 이설(異說)이 있게 되었다. 즉 구전(口傳)에 의하면 논개의 성씨가 '주씨(朱氏)'라는 설, '주씨(周氏)'라는 설, '노씨(盧氏)'라는 설, '송씨(宋氏)'라는 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논개의 성씨에 대하여 논의(論議)되거나 문헌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15 해방 이후로 보인다. 논개가 순국(殉國)한지 361년이 지난 1954년 논개가 순국했던 현지 경남(慶南) 진주(晋州)에 그동안 조직되어 있던 '의기창열회(義妓暢烈會)'에서 축석루(矗石樓) 서편(西便)에 있는 의기사(義妓祠) 정원(庭園)에 논개에 관한 비석(碑石)을 세웠는데 그 비문(碑文)에

(앞 부분 생략) 의낭(義娘)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 성(姓)은 주씨(朱氏)이다.(이하 생략)

라 하여 논개의 성씨가 '주(朱)' 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위 비석의 내용이 논개의 성씨가 '주(朱)' 라 밝힌 최초(最初)의 금석문(金石文)으로 추측(推測)된다. 위 비석의 내용은 논개가 순국한 진주 지역 사람들에게 의해 논개의 성씨를 '주(朱)' 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이 비석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장수 지역에서 구전으로만 논개의 성씨는 '주(朱)' 라 알려져 있었다.

앞의 비석이 세워지던 같은 해 1954년 3월 장수에 '의암사건립추진발기회(義巖祠建立推進發起會)' 가 조직(組織)되면서 논개의 성씨를 '주(朱)' 로 표기(表記)하여 공식적(公式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 같은 장수 사람들에게 의해 1954년 10월 19일 '의암사' 신축 공사(新築工事)가 시작되면서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長水義巖事蹟保存期成會)' 가 발족(發足)되었는데 이 때도 '주논개(朱論介)' 라 하여 논개의 성씨를 '주(朱)' 로 표기한 듯하다.

1960년 12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의암주논개낭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 가 세워졌는데 이 비명(碑名)과 비문(碑文)에서 논개의 성씨를 '주(朱)' 라 하고, 본관(本貫)을 '신안(新安)' 이라 표기(表記)하고 있다. 이 비문의 내용 가운데 논개의 성씨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이하 생략)

위의 내용 가운데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이라는 대목은 ‘의암의 부친(父親) 이름은 달문(達文)이고, 그의 본관(本貫)은 신안(新安)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곧 ‘논개의 성씨는 주씨(朱氏)이고, 본관은 신안(新安)이다.’라는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성씨가 ‘신안주씨(新安朱氏)’라는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역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를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969년 9월 30일부터 1973년 9월 30일까지 한국일보(韓國日報)에 연재(連載)되었던 정한숙(鄭漢淑)의 장편 소설(長篇小說)²⁾ 《논개(論介)》를 보면,

(앞 부분 생략) 논개도 진주(晉州) 바닥 태생(胎生)이 아니라 야사(野史)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녀의 성은 주(朱)씨 혹은 주(周)라고 전한다. 어느 주가이건 그녀의 성이 주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³⁾

2) 한국일보(韓國日報)에 연재(連載)되었던 정한숙(鄭漢淑)의 《논개(論介)》는 1993년 서울 청아출판사에서 단행본(單行本)으로 출간(出刊)하였다.

3)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청아출판사, 1993, 서울), p. 10. 내용 참조.

는 내용이 있다. 정한숙은 야사(野史)에 근거하여 논개의 성이 '주(朱)' 혹은 '주(周)' 라고 하면서도 한자(漢字)로 '朱' 자인지 아니면 '周' 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글로 '주' 라 씌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근거하였다는 '야사(野史)'가 구체적(具體的)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아무튼 이 정한숙의 소설을 통하여 논개의 성씨가 분명 '주' 가였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개 성이 '주' 씨라는 설과는 달리 '노(盧)' 씨라는 이설(異說)이 있게 되었다.⁴⁾ 논개의 성이 '노(盧)' 씨라는 설은 논개의 이름이 본래 '노운개(盧雲介)' 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래 '노운개(盧雲介)' 라는 이름이 뒷날 잘못하여 '논개(論介)'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노운개' 라는 이름이 옳다면 그녀의 성씨는 곧 '노(盧)'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노운개' 라는 이름은 옛 문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논개' 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그녀의 출생에 관한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그녀의 출생 년월일시가 4갑술(四甲戌)이라는 점에서 '戌(술)'이 12지 가운데 11번째에 해당하는 '개(犬)'를 나타내는데 전설(傳說)에 의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출생 년월일시인 4갑술

4)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鄉土文化研究所),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 11. 내용 참조.

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개를 낳은 것'이 되어 '낳은 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낳은 개'가 뒷날 이 지역 방언(方言)으로 '놓은 개'가 되었고, 이를 다시 한자(漢字) 표기로 '盧雲介(노운개)'가 되었으며, 뒷날 이 '노운개'가 잘못 전해져 '논개'가 되었다가 다시 이 '논개'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論介(논개)'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만일 이와 같은 추측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녀의 성씨가 '노(盧)'라는 것은 아전인수식(我田引水式) 설명이자 견강부회(牽強附會)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녀의 성이 '송씨(宋氏)'라는 이설(異說)이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주씨(朱氏)'의 잘못 인쇄(印刷)라 보았다.⁵⁾ 이같은 논개의 성이 '송씨(宋氏)'라는 설도 근거가 전혀 없다. 장수 지역이나 진주 지역에 전해 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그녀의 성이 '송씨'라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옛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뒤 1970년 전북매일신문(全北每日新聞)에 게재(掲載)되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鄉)' 가운데 논개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글⁶⁾이 있다.

논개는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갑술년(甲戌年)에 일찍 서당(書堂)을 차리고 교학(敎學)을 펴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5) 강대민(姜大敏), <논개(論介)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慶星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 1996, 부산) p. 11.

6)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은 전북일보(全北日報)에서 1970년 특별 기획으로 게재(掲載)한 것인데 당시 이 글은 백남혁(白南赫)이 집필(執筆)하였다.

위의 글에서도 논개는 아버지 주달문(朱達文)과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의미하는 바, '논개의 성은 주씨(朱氏)이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논개의 성이 주씨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된다. 1975년 장수향교(長水鄉校)에서 간행한 《벽계승람(碧溪勝覽)》 7(七) 절의편(節義篇)에서도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부인(夫人)' 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도 논개의 성이 '주씨' 라는 것을 암시(暗示)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 내용 역시 어떤 근거에서 논개의 성을 '주씨' 라 하였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장수군(長水郡)에서 1982년 간행한 《삼절(三節)의 고장》 가운데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라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앞부분 생략) 부인의 성(姓)은 주씨(朱氏)이며, 관향(貫鄉)은新安(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後裔)로(이하 생략)

위의 내용 가운데 '부인' 이란 의암 논개를 가리킨데 논개의 성은 곧 '주씨' 이고, 본관(本貫)은 '신안(新安)'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개의 선조(先祖)는 중국(中國) 남송대(南宋代) 성리철학자(性理哲學者) 주문공(朱文公) 희(熹)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이 쓰여진 다음해인 1983년 전북애향운동본부(全北愛鄉運動本部)에서 간행한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 가운데 '주논개(朱論介)'⁷⁾ 라는 부분을 보면,

진주(晉州) 남강(南江) 의암(義巖) 위에서 왜장(倭將) 게야 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고 산화(散華)되어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부끄러움을 씻고 민족혼(民族魂)을 불러 일으킨 겨레의 영혼(靈魂)이 있었으니 그의 성(姓)은 주씨(朱氏)요 이름은 논개(論介)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위의 두 내용 가운데 성씨에 관한 기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즉 논개의 성이 '주씨(朱氏)' 이고 본관은 '신안(新安)' 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들 역시 이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기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상에서 살펴 본 바, 물론 근거는 희박(稀薄)하지만 논개의 성씨에 관한 '신안 주씨(新安朱氏)' 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뒤에 건립되는 비석마다 비문에 새기기를 논개의 성을 '주씨(朱氏)' 로, 본관을 '신안(新安)' 으로 새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982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와 1987년에 세워

7) 최진성(崔辰聖), 〈주논개(朱論介) -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全北愛鄉運動本部, 1983, 全州)

진 ‘주논개생가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가 그러하며, 1996년에 건립된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間)’가 그렇다. 최근에 간행된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과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에도 논개의 성(姓)은 ‘주씨(朱氏)’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⁸⁾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증(檢證)되어야 할 숙제(宿題)라 하겠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의암주논개낭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를 보면,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이하 생략)

라 하여 여기서 ‘의암(義巖)’이 논개의 호(號)라는 직접적(直接的)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개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호칭(呼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의암’을 논개의 이름 대신 사용하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1954년 3월 장수에 ‘의암사건립추진발기회(義巖祠建立推進發起會)’가 조직(組織)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뒤 장수 사람들에 의해 1954년 10월 19일 ‘의암사’ 신축 공사(新築工事)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長水義巖事蹟保存期

8)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편(編),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서울), p. 222. ‘논개(論介)’ 조(條) 참조., 유흥열(柳洪烈) 감수(監修), 《신개정증보판(新改訂增補版)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教育圖書, 1988, 서울), p. 356. ‘논개(論介)’ 조(條) 참조.

成會)가 발족(發足)되었는데 이 때부터는 아에 '논개'라는 이름 대신 '의암'을 그녀를 상징(象徵)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논개가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순국했던 진주 남강가 바위(巖石)를 '의암(義巖)'이라 불렀다는데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의암'이라는 호칭이 마치 조정(朝廷)에서 논개에게 내린 호(號)처럼 이해한 것이다. 그리하여 1982년 세워진 '의암주 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에는 아에 "논개의 성(姓)은 주씨(朱氏)이고, 호(號)는 의암(義巖)이며, 의암이라는 호는 그녀가 순국한 후 나라에서 내린 것이다."고 기술(記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조 어느 조정에서도 논개에게 '의암'이라는 호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1990년 장수군 지편찬위원회(長水郡誌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 《장수군지(長水郡誌)》에서는 "논개의 성씨는 주씨이며, 관향(貫鄉)은新安(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라고 하여 그녀가 순국한 뒤 예문관에서 '의암'이라는 호를 내려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2) 논개의 가계(家系)

앞에서 이미 고찰한 바 논개의 성씨가 '신안 주씨(新安朱氏)'라 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異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계(家系)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논개의 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기록으로는 장수군(長水郡)에서 1982년 간행한 《삼절(三節)의 고장》이라 생각된다. 《삼절(三節)의 고장》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忠節)의 여신(女神)의 암(義巖) 주논개(朱論介)'라는 제목 아래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이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논개의 가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부분 생략)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後裔)로 고려(高麗) 예부상서(禮部尙書) 인장(印長), 이조(李朝)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丞旨) 공(縉)으로 세계(世系)를 거쳐 7대조(七代祖) 금교찰방(金郊察訪) 휘(諱)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官職)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赫)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논개의 가계는 중국 남송대(南宋代) 유학자(儒學者)로 우리 나라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된 주자(朱子, 名 熹, 號 晦庵)를 그 시조(始祖)로 하고, 고려(高麗) 때 예부상서(禮

部尙書)를 역임한 '인장(印長)'을 증시조(中始祖)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표(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의 가계도(家系圖)

중국(中國) 고려(高麗) 조선(朝鮮)
선계(先系) 주희(朱熹) - 인장(印長) - 승천(勝遷) - 공(絳) -

7대조(七代祖) 6대조(六代祖)
무현(武賢) - 응표(應杓) -

조부(祖父) 부(父)
혁(赫) - 달문(達文) - 〈논개(論介)〉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의 논개의 가계에 관한 부분을⁹⁾ 보면,

(앞 부분 생략) 그의 선대(先代)는 중국(中國) 송(宋) 나라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손(後孫)이 된다. 고려 시대(高麗時代)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인 인장(印長)이 가문(家門)을 빛냈으며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의정부

9) 최진성(崔辰聖), 〈주논개(朱論介)〉(-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 참조.

(議政府) 우찬성(右贊成)을 지낸 승천(勝遷)과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丞旨)를 위임한 공(縉)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여 7대조가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게 된다.

6대조 응표(應杓)는 통덕랑(通德郎)을 증직(贈職)받고 벼슬 길에 오르지 못하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사를 하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

조부(祖父)의 휘(諱)는 혁(赫)이니 처음으로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書堂)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어 후진(後進) 교육에 힘썼다. 부친(父親) 달문(達文) 역시 가정 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문(學問)과 덕(德)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 유지(生計維持)를 하였다.(이하 생략)

라 하여 앞에서 살펴 본 바 《삼절(三節)의 고장》의 그것과 거의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논개의 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이 지역에 전해 오고 있는 이야기를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985년 장수번영회(長水繁榮會)에서 그동안 장수 지역에 흩어져 전해 오는 논개에 관한 기록과 이야기들을 조사하여 간행한 《의암주논개 사적 조사 보고서(義巖朱論介事蹟調查報告書)》(필사본) 가운데 '의암 부인(義巖夫人)의 가계(家系)'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앞 부분 생략) 부인(夫人)의 가계(家系)를 살펴 보면 중국(中國) 송(宋) 나라 시대(時代)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주자(朱子)를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고려조(高麗朝)에 와서 예부상서(禮部尙書) 휘(諱) 인장(引長), 조선조(朝鮮朝)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承旨) 휘(諱) 공(縉)으로 세계(世系)를 이어 부인(夫人)의 7대조(七代祖) 금교찰방(金郊察訪) 휘(諱) 무현(武賢)이며, 6대조(六代祖) 증통덕랑(贈通德郎)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리(芳池里)에 이주(移住)하였고, 조부(祖父) 혁(爍)이 당시 장수(長水) 임내면(任內面) 주촌리(朱村里)에 거주(居住)하였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 후예(後裔)가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부인(夫人)이라 전(傳)한다.

위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삼절의 고장》과 《전북인물지》(上卷)의 내용과 큰 차이(差異)가 없다. 다만 위 내용은 장수 지역에 전해 오는 이야기와 문헌적 기록들을 정리(整理)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意義)를 찾을 수 있다.¹⁰⁾ 이상의 내용들은 뒷날 논개의 가계를 기록하는데 하나의 근거 자료(根據資料)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¹⁾

그러나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에는 '신안 주씨(新安朱氏)'가 보이지 않고 다만 '전주 주씨(全州朱氏)'와 '능성 주씨(綾城朱氏)'

와 '웅천 주씨(熊川朱氏)' 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백씨통보(百氏通譜)》에는 '무원 주씨(源朱氏)'가 보이는데 여기서 '무원 주씨'는 '신안 주씨'와 같다. 그것은 '신안(新安)'과 '무원(婺源)'이 다같이 중국(中國) 안휘성(安徽省) 휘주부(徽州府) 관할 현(縣)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신안 주씨'는 중국 사람으로 고려 때 귀화(歸化)한 주잠(朱潛)을 시조(始祖)로 한다.¹²⁾ 그런데 문제(問題)는 1902년에 간행된 《신안 주씨 세보(新安朱氏世譜)》(壬寅譜)를 살펴 보면, 앞의 '논개의 가계'에서 보이는 논개의 부친 주달문(朱達文)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이 보고서의 조사 경위(調查經緯)를 밝힌 것을 보면, '1984년 10월 4일 장수번영회(長水繁榮會)로부터 의암(義巖) 사적(事蹟)을 조사(調查)하라는 지시(指示)에 의(依)하여 동(同) 사적 조사에 임(臨)하였으나 천성(天性)이 타고나고(태어나면서) 우둔하며 견문지식(見聞知識)이 부족(不足)하며 4백년(四百年) 후(後)에 나서 4백년 전(前)의 일을 추적(追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구전(口傳)과 야사(野史)로 기(其) 내용(內容)들은 일맥상통(一脈相通)치 못하고 들은 귀와 생각하는 마음대로 기록(記錄)한 것이 너무 분명하여 근거(根據)를 찾을 줄기가 없으니 더욱 한스런 일이었다.

조사 기록한 내용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첫째 향리(鄉里)에 구전(口傳)되는 전설(傳說), 둘째 축석루(矗石樓) 경내(境內)에 있는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旌門)과 동문내(同門內)에 있는 사적비명(事蹟碑銘)과 장수(長水) 의암사(義巖祠) 경내에 있는 수명비(豎名碑), 셋째 장수지(長水誌) 전북지(全北誌) 호남지(湖南誌)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동감강목(東鑑岡目) 월강사록(月岡祠錄) 대동기문(大東奇聞) 문인(文人)의 시(詩) 등으로 구별(區別) 조사 기록하였다.

동 기록은 듣는 그대로 비명(碑名) 등 각 사적에 문장(文章) 구성 및 기록 방법의 모순(矛盾)은 있으리라 믿으나 사적(事蹟) 사실(事實)의 모순은 없을 것으로 확신(確信)하면서 조사 기록이 잘못된 점은 보는 이가 언제고 충고(忠告)하여 주시면서 더 상세(詳細)한 근거(根據)가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상기(上記) 사적을 조사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11)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1996, 부산)가 그 좋은 실예(實例)라 하겠다.

물론 논개의 부친 주달문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조 중종(中宗) 연간으로부터 선조(宣祖) 연간에는 《신안 주씨 세보(新安朱氏世譜)》가 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안 주씨 세보》에 주달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것은 《신안 주씨 세보》가 간행된 것은 1902년으로 이 때는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이 죽은지 이미 300여년이 지난 뒤의 일로 주달문에게는 대(代)를 이어 갈 아들이나 후손(後孫)도 없었고, 《신안 주씨 세보》를 편찬할 때 논개의 가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논개의 가계는 논개의 순국과 함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안 주씨 세보》를 편찬할 때 논개의 가계에 관한 참고(參考)할만한 자료도 없었고, 그녀의 가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누락(漏落)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개의 가계에 대한 이설(異說)이 있다. 1996년 부산(釜山)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鄉土文化研究所)에서 간행한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를 보면,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

12)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편(編),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서울), p. 1205. '주요 성씨 시조 일람표(主要姓氏始祖一覽表)'를 참조. 여기서 보면 주씨(朱氏)에는 '신안(新安, 始祖 본래 중국 사람으로 고려에 歸化한 潛)' · '능성(綾城, 始祖 餘慶, 高麗 · 始祖 績德, 高麗)' · '나주(羅州, 始祖 仲紹, 高麗)' · '압해(押海, 始祖 玄進, 본래 羅州 사람)' · '웅천(熊川, 始祖 大翊 · 始祖 善林, 朝鮮)' · '전주(全州, 始祖 仁, 高麗) 등 6개의 본관(本貫)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達文)으로 주촌의 서당(書堂) 훈장(訓長)이었다. 논개의 모친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서 그의 선조는 팔도병사(八道兵使)로 황석산성(黃石山城) 싸움에 공적을 남긴 박명박 장군이다.

용일에게는 달문(達文)과 달무(達武)의 두 형제가 있었다. 달문은 아버지의 높은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을 배워 문장과 덕행(德行)이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용일의 학식과 덕망은 산등성이를 넘어 대곡리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결국은 경상도 금당리에서 대곡리로 초빙(招聘)되어 이사(移徙)까지 하게 되었다.(이하 생략)¹³⁾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논개의 조부(祖父)가 '주용일(朱溶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용일에게는 '달문(達文)'과 '달무(達武)'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삼절의 고장》이나 《전북인물지》(上卷)에서 논개의 조부를 '주혁(朱爍)'이라고 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주용일'과 '주혁'은 동일인물(同一人物)로 일인이명(一人異名)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인물인지 밝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의 조부가 '주

13) 김무조(金戊祚), <통과의례(通過儀禮)로 본 논개(論介)의 생애(生涯)>(논개(論介)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慶星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 1996, 부산) p.48. 참조.

용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복원되어 있는 논개의 생가(生家) 뒤쪽 산등성이에 묘(墓) 1기(基)가 있다. 이 묘의 봉분(封墳) 앞에는 오래 전에 놓은 것으로 보이는 상석(床石)이 있으며, 상석 전면(前面)에는 선명(鮮明)치는 못하지만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지묘(朱溶一之墓)'라 음각(陰刻)되어 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묘를 쓰고 논개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묘가 바로 논개의 할아버지 묘라 믿고 있다. 이는 전해 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 묘는 현재 경남(慶南) 함양군(咸陽郡) 서상면(西上面) 금당리(金塘里) 방지(芳池) 마을에 살고 있는 주규상의 15대 방조(傍祖)의 묘라 한다.¹⁴⁾

이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지묘(朱溶一之墓)'가 곧 논개의 할아버지 묘가 아니었던가 생각한 나머지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이라 했다."고 기록하게 되지만 알아는지 모르겠다. 주규상은 이 마을에서 20여대를 계속 살아온 '신안 주씨'의 후손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규상의 가계와 논개의 가계와는 전혀 무관(無關)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전해 오고 있는 이야기에 그 묘가 '논개의 할아버지 묘'라고 한 내용과 주규상의 가계를 연관(聯

14) 현재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 김진영(金鎭泳) 원장(院長) 증언(證言)에 의거한 것임.

關)지어 생각해 본다면 논개의 할아버지가 '주용일'이라는 것이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주용일'이 곧 논개의 할아버지라는 주장은 아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과정(過程)을 거쳐 검증(檢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전북매일신문에 게재(揭載)되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에서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라 한 대목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살펴본 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지묘(朱溶一之墓)'란 누구의 묘일까?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에서 언급한대로라면 논개의 할아버지 묘는 이미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에서 논개에 관한 글을 쓴 필자가 잘못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에서 논개에 관한 글을 쓴 필자는 논개의 할아버지를 '주혁(朱爍)'이라 보았기에 그와 같이 기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논개의 출생(出生)

(1) 논개의 출생(出生)과 이름

1950년 이전의 논개에 관한 문헌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출생(出

生)과 성장(成長)에 관한 언급(言及)이 전혀 없다. 1651년 논개가 순국한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 재상간심관(災傷看審官)인 오두인(吳斗寅)이 쓴 <의암기(義巖記)> (《양곡집(陽谷集)》)를 위시하여 명암(明庵) 정식(鄭枋, 1664~1719)의 <의암비기(義巖碑記)>, 서계(西溪) 박태무(朴泰茂, 1677~1756)의 <의암전(義巖傳)>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의기사기(義妓祠記)> 등에서 보면, 그녀의 순국 사실과 역사적 인식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에서는 논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사람은 신분(身分)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누구든간에 그 사람의 출생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논개 역시 그녀 자신의 출생이 있었고 삶이 있었을 것이다.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최초의 기록(記錄)은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논개는 그녀의 부모가 명산(名山)에 기도(祈禱)를 한 뒤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절(三節)의 고장》을 보면,

주달문은 일찌기 안의현 서하면(西下面) 봉절리 밀양 박씨 집 규수(閨秀)에게 장가들어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 오던 가운데 남아(男兒)를 얻으니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불행하게도 나이 15세에 괴질(怪疾)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 주씨 가문(朱氏家門)의 대(代)를 이어 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

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를 얻어 부부는 무척 기뻐하였으나 여아(女兒)를 분만(分娩)한 부인의 실망은 대단했을 것이다.¹⁵⁾

논개의 아버지에게는 일찌기 '대룡(大龍)'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가 되어 괴질(怪疾)로 요절(夭折)하여 후사(後嗣)가 없게 되자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대(代)를 잇을 아들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는데 그 기원(祈願)의 보람으로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가 있게 되었고, 뒷날 분만(分娩)하니 여아(女兒)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여아가 곧 '논개'였다는 것이다.

1990년 장수군지편찬위원회(長水郡誌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 《장수군지(長水郡誌)》에서도 앞의 내용을 여과(濾過)없이 그대로 인용 게재(揭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버지 달문(達文)은 부친의 대를 이어 훈장으로 가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장성하여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의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문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남아(男兒)를 출산하여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15) 장수군청(長水郡廳), 《삼절(三節)의 고장》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 내용 참조.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뻐하였다.

고 한 내용을 보면 앞의 《삼절의 고장》에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즉

달문에게는 일찍 '대룡' 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에 괴질로 요절하고 사십중년까지 부인에게 태기가 없었다. 부부는 아들을 잃은 실의를 딛고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덕유산(德裕山) 영각사로 들어가 삼년동안 치성(致誠)을 드려 낳은 아이가 무남독녀(無男獨女) 논개이다.¹⁶⁾

고 하여 앞에서 인용한 내용의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라는 것과 다르게 나타

16)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1996, 부산), pp. 48-49. 내용 참조.

나 있다. 위의 내용에서는 '명산 장안산' 이 아니고 '덕유산(德裕山) 영각사로 들어가 3년동안' 치성(致誠)을 드려 낳은 아이가 무남독녀 논개였다는 것이다. 아무튼 위 두 내용 가운데 어느 내용이 맞는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논개의 부모는 명산을 찾아가 천지신명에게 기원하여 여아를 낳게 되었다든가 또는 사찰(寺刹)을 찾아가 치성(致誠)을 드려 여아를 낳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후사(後嗣)를 얻기 위해 기원을 하여 논개를 낳았다는 것은 일치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으로 보는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1960년 건립한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의 비문에 의하면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本鄉)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결구(結構)하고 산수의 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니 사방(四方) 인사(人士) 부급종사(負笈從事)하여 소거(小居) 수년에 일촌(一村)을 가성(可成)하니 세인(世人)이 주선생(朱先生)의 촌이라 칭하여 주촌(朱村)이라 하다.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9월에 일녀(一女)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愛知)하여 사주(四柱)를 기록하니 4갑술(四甲戌)이라.

는 내용이 있다. 이는 논개의 출생에 관한 최초의 글이다. 즉 논개는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기록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조선조 선조(宣祖) 7년(甲戌年) 9월(甲戌月) 3일(甲戌日) 밤 술시(甲戌時)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주달문이 사주(四柱)를 기록해 놓고 보니 4갑술(四甲戌)이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뒷날 논개의 출생에 관한 근거 자료이자 ‘논개(論介)’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매일신문(全北每日報聞)에 게재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鄉)’ 가운데 논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앞 부분 생략) 논개는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갑술년(甲戌年)에 일찍 서당(書堂)을 차리고 교학(敎學)을 펴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戌)’은 ‘개’ 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이하 생략)

라 하였다. 여기서 보면 논개는 조선조 선조(宣祖) 때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

에 업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는 조선 선조(宣祖) 7년 서기 1574년 9월 3일 술시(戌時)를 가리킨다. 이미 앞서도 살펴본 바이지만 논개의 아버지는 '주달문' 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라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의 4갑술을 등에 업고 논개가 태어났다는데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의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의 비문의 내용을 근거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은 논개의 사주(四柱)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에 대하여 논개가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 예언(豫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앞 부분 생략) 달문이 서당에서 이 소식을 아우인 달무에게 듣고 우선 사주(四柱)를 짚어 봤다. 몇 번인가 손가락을 꼽아 괘사(卦辭)를 풀어 보면서 '괴이(怪異)한 사주(四柱)로구나.' 하고 혼자말로 되씹으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을 분만한 부인 박씨는 몹시 실망하고 있었다. 달문은 실망하고 있는 부인을 위로(慰勞)하면서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났으니 4갑술(四甲戌)의 특이(特異)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 장차 큰 일

17) 전북애향운동본부(全北愛鄉運動本部),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1983, 전주) '논개(論介)' 조 내용 참조.

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名聲)이 높을 것이니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한스러울 뿐이요.'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었다.¹⁷⁾

위 내용을 보면, 논개의 아버지 달문은 아우 달무로부터 아내가 딸을 분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딸의 사주를 살펴 보니 괴이(怪異)하기는 하였지만 특이(特異)한 사주로 장차 큰 일을 성취(成就)하여 명성(名聲)을 떨칠 인물(人物)이 될 것이라 예언(豫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딸을 낳았기에 실망(失望)하는 아내를 태어난 딸의 사주를 통해 위로(慰勞)까지 한 것도 알 수 있다.

그 뒤 장수군(長水郡)에서 간행한 《삼절(三節)의 고장》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라는 글에서도 '명문의 고향' 의 내용과 유사(類似)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앞부분 생략)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赫)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분명 '명문의 고향' 을 그대로 인용(引用)하

여 기술(記述)한 것이라 이해된다.

그런데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앞 부분 생략) 논개의 탄생일은 1574년 9월 3일 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주(四柱)로 따지면 사갑술(四甲戌)이 된다. 곧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이다. ‘술(戌)’은 지지(地支)로서는 제11위에 해당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그래서 달문은 딸을 낳았기에 사주(四柱)를 보고서 내심으로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모를 바라보며 ‘당신이 개를 낳았군요.’라고 하였다. 부인이 놀라 ‘개를 낳았다구요?’ 하자 달문이는 사주를 따져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부부는 이 기이한 사주를 놓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4갑술생(四甲戌生)이 있으니 영조(英祖)가 아닌가. 달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을 비유(比喩)한 것이다. 그래서 작명(作名)하기를 ‘논개(論介)’라고 했다.¹⁸⁾

위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내용들을 재구성(再構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 내용의 뒷 부분 곧 “부부는 이 기이한 사주를 놓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또 한 사람

18)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鄉土文化研究所),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1996, 부산) p. 49. 참조.

의 4갑술생(四甲戌生)이 있으니 영조(英祖)가 아닌가. 달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을 비유(比喩)한 것이다. 그래서 작명(作名)하기를 '논개(論介)'라고 했다."고 한 것은 견강부회(牽強附會)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앞 부분의 내용과 시제(時制)가 맞지 않는다.

만일 위 뒷 부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주달문과 밀양 박씨 부부는 조선조가 태조(太祖)로부터 시작하여 순종(純宗)에 이르기까지 500년 지속(持續)하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되며, 또한 뒤에 즉위(卽位)할 영조(英祖)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영조의 사주(四柱)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위 내용대로 한다면 주달문과 밀양 박씨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 중기(中期) 명종(明宗) 연간(年間)으로부터 선조(宣祖) 년간에 이르는 사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내용의 뒷 부분은 이 글 필자(筆者)의 착각(錯覺)에 의한 것이거나 견강부회한데서 온 시제의 오류(誤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논개는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데 대하여는 여러 글들이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의 전개(展開)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의 '4갑술'이라는 사주에 의해 그녀의 이름을 '논개(論介)'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의 비문 가운데

(앞 부분 생략)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9월에 일녀(一女)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愛知)하여 사주(四柱)를 기록하니 4갑술(四甲戌)이라. 즉석에서 '産(논)' '狗(개)'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라 명명하였다.(이하 생략)

고 한 내용이 있다. 곧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사주 '사갑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産(논)' '狗(개)'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라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이 '논개'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를 밝혀주는 첫 내용이다.

그 뒤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에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앞 부분 생략) 공교롭게도 갑술년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戌)'은 '개'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의 작명은 '개똥, 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長壽)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論介)'란 무남독녀(無男獨女)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意識的)인 작명이었을 것이다.(이하 생략)

위의 내용은 '논개(論介)'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에서 "'産(논)' '狗(개)'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라 명명하였다."고 한 것보다는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논개라는 이름은 그녀의 사주 4갑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술(戌)'은 '개'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의 뒷 부분 "옛날의 작명은 '개똥, 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長壽)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論介)'란 무남독녀(無男獨女)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意識的)인 작명이었을 것이다."고 한 말에서 '논개'라는 이름이 단순히 그녀의 '4갑술'이라는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남독녀에 대한 애뜻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곧 그녀를 위한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즉,

(앞 부분 생략)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4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 이름 지어 주고 자라면서 아동 교육(兒童教育)의 여가(餘暇)를 타서 한문(漢文)과 예도(禮道)를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

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智慧)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놀라게 하였다.¹⁹⁾(이하 생략)

그런데 앞의 내용에서는 ‘술(戌)’은 ‘개’ 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라 하였는데 위의 내용에서는 “4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 이름 지어 주고”라 하여 설명(說明)하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다고 하겠으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위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앞 부분 생략) (四甲戌의) ‘술(戌)’은 지지(地支)로서는 제 11위에 해당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그래서 달문은 딸을 낳았기에 사주(四柱)를 보고서 내심으로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모를 바라보며 ‘당신이 개를 낳았군요.’라고 하였다. 부인이 놀라 ‘개를 낳았다구요?’ 하자 달문이는 사주를 따져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중간 부분 생략) 그래서 작명(作名)하기

19) 장수군(長水郡), 《삼절(三節)의 고장》(1982, 전주),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 내용 참조.

를 '논개(論介)' 라고 했다.²⁰⁾ (이하 생략)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논개' 라는 이름이 그녀의 사주(四柱) '4갑술(四甲戌)'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글들에서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논개의 출생지(出生地)와 성장지(成長地)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진주(晋州)에 머물렀던 기간(期間)이 짧았고, 진주성의 함락(陷落)과 동시에 나라의 원수(怨讐)이자 남편의 원수인 왜장을 죽이려 한 계획을 누구에게도 상의(相議)하거나 알리지 않은 상태(狀態)에서 단독 결행(單獨決行)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身分)이 전혀 노출(露出)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관하여 알려지지 못한 채 그동안 문헌의 기록들에서 언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 이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논개가 순국한지 207년이 지나 순조(純祖) 8년(1800) 간행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인데 최경희가 좋아하였다.(妓論介長

20)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 49. 내용 참조.

水人公(崔慶會)所昞也.) (이하 생략)

위의 내용은 희미하긴 하지만 논개가 '장수(長水)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즉 이 내용은 논개가 '장수(長水)'에서 출생(出生)하였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인가 그녀가 '장수에서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 간행된 뒤 39년이 지나 헌종(憲宗) 5년(1839) 호남 지역에서 간행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권 1(卷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논개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였다.(중략) 본현(本縣) 장수(長水)에 정려(旌閭)가 세워져 있다.(論介長水官妓(中略)旌閭於本縣長水.)

위의 기록으로 보면, 논개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라는 것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로 있었는데 진주병사(晉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최경회가 진주성(晉州城)으로 갈 때 그녀도 그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으며, 성이 왜적에 의해 함락(陷落)된 뒤 왜장들이 베푸는 축석루 큰 잔치에 그녀가 참석하여 왜장이 크게 취한 틈을 타 왜장을 끌어안고 축석루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곳 진주(晉州)에 비석을 세우고 관(官)에서는 매년 제사(祭祀)를 올렸으며,

본현(本縣) 장수에 정려(旌閭)를 세우게 되었던 것²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두 기록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간행된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과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에서도 논개의 출생지를 '장수(長水)'라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²⁾

그러나 위의 《호남삼강록》의 기록대로라면 그녀가 반드시 '장수에서 태어났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그녀가 장수에서 관기(官妓)로서 머물렀던 관계로 이 곳(本縣) 장수에 정려(旌閭)를 세우게 되었다고 이해(理解)하는 것이 더 타당(妥當)하리라 생각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위의 기록이 곧 '논개가 장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며, 굳이 이해한다면 장수현(長水縣)에 소속(所屬)되었던 기생(妓生)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기록으로서 논개의 출생지 또는 성장지가 '장수'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논리적(論理的) 비약(飛躍)이라고 하겠으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다.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 간행된 뒤 7년이 지나 헌종(憲宗) 12년(1846)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장수현 옥(獄)거리(현 장수읍 장수리 277번지)에 '축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를 세웠다. 그 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1)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권 1(卷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論介長水官妓 晉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論介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抱而同投樓下而死 因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22)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편(編),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서울), p. 222. '논개(論介)' 조(條) 참조., 유흥열(柳洪烈) 감수(監修), 《신개정증보판(新改訂增補版)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教育圖書, 1988, 서울), p. 356. '논개(論介)' 조(條) 참조.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概)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하여 죽음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림림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한가. 산에 영(靈)스러운 풀이 있고 물에는 맛있는 샘이 있으니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해서 사람들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 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한다.(疾風板蕩 不句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尚 況人之名 節源於天性 布人之耳目者乎. 熄余六旬 腐儒 終无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豐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恨无 今於義妓 豎名傳 後以生平 趨走下風 願謹以書記識. <後略>)

그런데 위 수명비의 내용에는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대

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다. 하지만 비석의 이름 '축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에서 보여주듯이 이 곳 장수가 곧 '축석루에서 순절(殉節)한 의기(義妓) 논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그것을 밝히고자 이 비석(碑石)를 세운다.'는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비문(碑文)의 내용에서는 그녀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는 하나 이 비석은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바로 이 곳 장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비명(碑名)이나 비문에서 논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故鄉)이 장수라는 주장(主張)에 대한 어떤 근거(根據)를 제시(提示)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추정(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 비석이 세워지게 된 배경(背景)에는 앞에서 살펴 본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나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의 내용에서 밝힌 논개에 관한 언급을 좀더 구체화(具體化)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개에 관한 내용을 현지(現地) 주민(住民)들로서 현지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기념물(記念物)이나 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곳 장수 주민들의 자존심(自尊心) 내지는 자긍심(自矜心)을 촉발(觸發)케 한 데서이다.

둘째로 이 곳 장수 지역에서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미 논개가 장수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최경희 현감의 사랑을 받다가 임진왜란으로 진주병사가 되어 진주로 떠나는 최경희를

따라 진주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 진주성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축석루 아래 바위 위에서 적장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설(傳說)로 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전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오지 않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개에 관한 기록도 없었을 것이고, 생장향수명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곳 장수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개에 관한 숭한 이야기가 사람 사람을 통하여 여러 형태(形態)로 전해 왔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當然)한 사실이라 이해할 수 있다.

논개가 순국한 뒤 279년이 지난 고종(高宗) 9년(1872) 간행된 《호남읍지(湖南邑誌)》 가운데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 절의편(節義篇), '의기논개(義妓論介)' 조(條)에는

의기(義妓)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으로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갔다.(義妓論介—任縣內面楓川人 忠毅崔公慶會本縣時所昞也., 崔公以晉州兵使 當壬辰之亂時論介隨去.)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앞의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나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즉 《호남삼강록》이나 《호남절의록》에서는 그저 막연(漠然)하게 '논개는

장수 사람이다.’ 아니면 ‘논개는 장수 관기였다.’는 표현만 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 그 지명(地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위의 기록이 어떤 근거(根據)를 가지고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논개가 본현(장수) 임현내면 풍천 사람’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이다. 위의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란 기록은 뒷날 논개의 태어난 곳과 성장지가 ‘장수현 임현내면 풍천’이라는 것을 확정짓게 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의 내용에서 논개가 최경회를 왜 따라 진주로 갔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있을 때 논개를 좋아하였으며, 최경회가 진주병사로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진주로 따라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것은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어떤 사연(事緣)이 있어 논개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장수 현감 최경회는 임현내면 풍천에 살고 있던 논개를 사랑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그가 진주병사로 진주에 가게 되었을 때 논개도 그를 따라 함께 진주로 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는 진주로 갔던 논개가 어떤 이유(理由)로 기생(妓生)이 되어 뒷날 의(義)로운 기생으로 추앙(推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지 ‘의기(義妓) 논개’라고만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논개가 기생으로서 왜적의 승전연회(勝戰宴會)에

참석하였다가 만취(滿醉)한 왜적(倭賊)의 적장(賊將)을 축석루(矗石樓) 아래 바위 위에서 끌어안고 함께 남강(南江)으로 투신(投身) 하므로서 국가(國家)의 원수(怨讐)이자 나라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는 데서 '의기'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 짐작할 수는 있다.

그 뒤 일제 식민지 시대(日帝植民地時代)로 접어들면서 일제에 의해 한민족 말살 정책(韓民族抹殺政策)에 의해 우리 나라 역사(歷史)의 왜곡(歪曲)과 말살로 논개의 사적(事蹟)에 관한 논의(論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1922년 장지연(張志淵)이 쓴 《일사유사(逸士遺事)》를 보면,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로 재모(才貌)가 절륜(節倫)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저자 장지연은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개가 '장수관기'라는 기록이나 '논개는 장수 사람'이라 한 내용과 《호남읍지》의 '장수현 임현내면 풍천 사람'이라 한 내용에 근거하여 '논개가 진주 기생'이라고 한 《어우야담》을 비롯한 다른 문헌적 기록들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8.15 해방(解放) 후 소설가(小說家)들에 의해 논개를 소재(素材)로 한 소설(小說)이 많이 간행(刊行)되면서 논개의 출생과 출생지 그리고 그녀의 생애 등에 많은 이설(異說)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소설가 정비석(鄭飛石)은 자신의 소설 《명기열전(名妓列傳)》 제 14화 '진주기논개(晉州妓論介)'에서 논개의 출생지를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월강리(月岡里) 풍천 부락(楓川部落, 속칭

朱村)'이라 하였고, 같은 소설가 박종화(朴鍾和)는 자신의 소설 《논개와 계월향》에서 '장수면(長水面) 연사루(戀思樓)'라 하였으며, 같은 소설가 전병순(田炳淳)은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삭촌'이라 하였다.

이처럼 몇몇 소설가들이 논개의 출생지에 관해 이설(異說)을 보여왔다.²³⁾ 물론 소설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짐작은 된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문학의 장르가 하나의 허구(虛構, fiction)라는 점에서 믿을만한 것은 못된다고 하겠다. 어쨌든 이들 소설가들의 소설 속에 나타난 바 논개의 출생지에 관한 서로 다른 설로 많은 혼란(混亂)을 가져오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논개가 순국한지 361년이 지나 1954년 의기창열회(義妓暢烈會)에서 진주 축석루 서편(西便)에 있는 의기사(義妓祠) 정원(庭園)에 논개에 관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

의낭(義娘)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23) 논개를 소재로 한 소설들을 살펴 보면, 가) 박종화(朴鍾和), 《논개(論介)》(단편), 1946년 6월부터 7월 사이 <신세대> 연재하였다가 1949년 9월 종로서원에서 간행한 《해방문학선집》(단편집) 1에 수록됨., 나)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장편), 1969년 9월 30일부터 1973년 9월 30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하였다가 1993년 청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다) 전병순(田炳淳), 《논개(論介)》(장편), 1979년 동화출판공사에서 《민족문학대계》 14권으로 간행하였다., 라) 정비석(鄭飛石), <진주기(晉州妓) 논개(論介)>(열전), 1974년 4월 2일부터 79년 2월말까지 <조선일보> '명기열전(名妓列傳)' 제 14화로 연재., 마) 김성한(金聲翰), 《임진왜란(壬辰倭亂)》(대하장편),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으로 1990년 행림출판사에서 전7권을 간행하였는데 제6권 가운데 '불타는 진주성'에서 논개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주촌리이니 성(姓)은 주씨(朱氏)이다.

장수군 장수면 큰 길가에 있는 논개 비각(碑閣)은 장수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세운 비석을 미일전쟁(美日戰爭) 때에 일본 경찰이 땅에 묻었던 것인데 을유년(乙酉年) 팔월(八月) 해방 뒤에 장수군민의 힘으로 파서 모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논개의 출생지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라 밝히고 있는데 논개가 순국한 진주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해 그녀의 출생지를 밝힌 최초의 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비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비문을 지은 사람은 장수 현지를 방문 논개의 출생지를 탐방(探訪)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논개의 출생지를 탐방하던 가운데 1846년 장수 현감(長水縣監) 정주석(鄭胄錫)이 장수에다 세웠던 ‘축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豎名碑)’를 장수면 길가에서 발견하였고, 이 비의 수난(受難)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헌적 기록에서 논개를 ‘진주의 기생’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녀의 출생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誤解)의 소지(所持)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장수 지역 사람들에게 자긍심(自矜心)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해 장수 지역 사람들에게 의해 장수에 ‘의암사건립추진발기회(義巖祠建立推進發起會)’를 소집(召集)한 것이나 ‘의암사신축공사(義巖祠新築工事)’가 시작되었던 것이나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長水義巖事蹟保存期成會)’가 발족(發足)

되었던 것을 상기(想起)해 본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에 이르러서는 논개의 출생과 성장지로 알려진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 事蹟不忘碑)'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비석은 뒷날 이 마을이 논개의 출생지이자 성장지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해 준 하나의 금석문(金石文)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명문(名門)의 고향(故鄉)'에서 논개의 출생지에 관한 기록을 보면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德裕山)의 웅봉(雄蜂)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四方) 팔방(八方)이 우중충한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년 전 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憂國)의 단심(丹心) 목숨과 바꾸고 그 충(忠)과 절(節)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낳은 곳이다.

고고(呱呱)한 산새들만의 고향인양 인적(人跡)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싹터는 수백년의 풍상(風霜)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形迹)조차 찾을 수 없게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의 짙은 교실(教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

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논개의 출생지가 바로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德裕山)의 웅봉(雄蜂)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四方) 팔방(八方)이 우중충한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년전 한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憂國)의 단심(丹心) 목숨과 바꾸고 그 충(忠)과 절(節)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낳은 곳이다."라 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출생지를 하나의 영상(映像)처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 역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1960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또 위 글에서 보면,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는 지금 온데 간데가 없고, 그 곳에는 조그마한 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을 뿐이라 한다. 즉 "고고(呱呱)한 산새들만의 고향인양 인적(人跡)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싹터는 수백년의 풍상(風霜)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形迹)조차 찾을 수 없게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의 짙은 교실(教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고 한 대목을 보면 필자가 직접 이 지역을 탐방하여 논개의 생가(生家)터를 확인

한 흔적(痕迹)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어떤 근거에서 이 곳이 논개의 출생지이자 성장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장수향교(長水鄉校)에서 간행한 《벽계승람(碧溪勝覽)》을 보면,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 자람에 따라 관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 현감(縣監) 최경회(崔慶會)의 시종(侍從)을 들다가(이하 생략)

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논개의 출생지는 앞의 '명문의 고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 이 글 가운데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라 한 내용의 근거는 아마 앞에서 살펴 본 1960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 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와 '명문의 고향'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글이 쓰여질 때에는 이미 앞의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에서 출생하였다.'는 몇 가지의 문헌적 기록과 금석문이 있었기에 특별(特別)히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뒤로부터 1982년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가 논개의 생가터에 세워지게 되었고, 1987년에 이르러서는 '주논개생가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가 같은 논개의 생가터에 세워지게 되었다. 1996년 6월에는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間)'가 주촌 마을 입구에 세워졌

던 것이다.

그런데 1982년 장수군에서 발간한 《삼절의 고장》과 1983년 전북 애향운동본부(全北愛鄉運動本部)에서 간행한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와 1996년 부산(釜山)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鄉土文化研究所)에서 간행한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 가운데에서 논개의 태어난 곳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삼절의 고장》(앞부분 생략)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赫)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이하 생략)

《전북인물지》(앞 부분 생략) 조부(祖父)의 휘(諱)는 혁(赫)이니 처음으로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書堂)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어 후진(後進) 교육에 힘썼다. 부친(父親) 달문(達文) 역시 가정 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문(學問)과 덕(德)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 유지(生計維持)를 하였다.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앞 부분 생략)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達文)으로 주촌의 서당(書堂) 훈장(訓長)이었다.

위의 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의 6대조 통덕랑(通德郎)이 증직(贈職)된 주응표(朱應杓)가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거주(居住)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인가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주(移住)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조부(祖父)까지 계속하여 살다가 조부(諱 燾, 또는 溶一)께서 이 곳 장수현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으로 이사(移徙)를 한 뒤 서당(書堂) 훈장(訓長)을 하다가 죽었고, 그 아들 달문(達文)이 아버지의 가업(家業, 書堂 訓長)을 계승 생업(生業)으로 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촌(朱村)'이라는 마을은 주문달의 아버지(燾 또는 溶一)가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서 이 곳으로 이사오기 전부터 이미 '주촌(朱村)' 마을은 형성되어 있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있게 된다. 곧 1960년 세워진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이다.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

(本鄉)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결구(結構)하고 산수의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니 사방(四方) 인사(人士) 부급종사(부급從事)하여 소거(小居)수년에 일촌(一村)을 가성(可成)하니 세인(世人)이 주선생(朱先生)의 촌이라 칭하여 주촌(朱村)이라 하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이 이 곳 즉 '본향(本鄉)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가운데에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짓고, 산수의 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다 보니 사방(四方)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여 모여들기 시작 몇 해를 지내는 사이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달문 선생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선생(朱先生)의 촌(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뒷날 '주촌(朱村)'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살펴 본 바 논개의 할아버지 주혁(아니면 주용일)이 이 곳 주촌으로 이사를 왔다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고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는 곧 '전북 장수군 장계면(계내면) 대곡리 주촌 마을'로 대부분의 문헌적 기록들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호남읍지》의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 한 기록의 지

명(地名) '임현내면 풍천' 과 앞의 기록에서 살펴 본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이라는 지명이 어떤 관계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옛 '임현내면 풍천' 이 지금의 어느 지역 어떤 마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옛 '임현내면 풍천' 이 어떻게 바뀌어 지금의 '대곡리 주촌' 이 되었는지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17년 발간된 《신구대조(新舊對照)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名稱一覽)》을 보면, 계내면 대곡리에는 '주촌(朱村)' 이라는 마을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문헌의 기록²⁴⁾에 의하면 당시 대곡리에는 '대곡(大谷)' · '동촌(東村)' · '궐촌(蕨村)' 이라는 세 마을이 소속(所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풍천(楓川)' 마을은 당시 계내면 월강리(月岡里)에 소속한 마을로 나타나 있다.

4. 논개의 신분(身分)

논개의 신분(身分)에 관한 문제는 논개가 본래부터 기생(妓生)이었는가 아니면 양가(良家)의 여자로 남편과 국가의 원수(怨讐)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가장(假裝)한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것이 타당

24) 월지유칠(越智唯七), 《신구대조(新舊對照)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名稱一覽)》(中央市場, 大正 六年<1917>, 朝鮮 京城府), p. 347.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부분. 내용 참조.

한가 하는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던 다음해인 선조(宣祖) 26년(1593, 癸巳) 진주성(晉州城)이 함락(陷落)된 직후 조정(朝廷)에서는 무군사(撫軍司)의 관원(官員)을 진주에 파견(派遣)하여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를 작성(作成)토록 하여 그들 가족에게 부역(負役)을 면(免)해주고 미태(米太)를 지급토록 한 바 있다.²⁵⁾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은 무군사 관원이 되어 세자(世子)를 따라 삼남(三南)으로 내려간 일이 있으며, 다음 해인 선조 27년(1594) 갑오(甲午)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가 되었는데 이 때 진주성에 들러 논개의 순국 사실을 채록(採錄)한 바 있다. 이 때 유몽인 자신이 손수 채록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인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수록(收錄)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논개에 관한 사적을 문헌적 기록으로 후세인(後世人)들에게 알게 한 최초의 내용이다. 그 이후 모든 문헌적 기록들은 이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우야담》 가운데 논개의 사적에 관한 내용을 보면 “논개(論介)는 진주(晉州)의 관기(官妓)였다.(論介晉州官妓也.)”라는 기록이 있다. 유몽인이 논개의 사적을 채록할 당시 ‘논개가 관기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록하

25) 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卷四十六), 26년(二十六年) 12월(十二月) 병자(丙子) 조(條), ‘日記曰 世子以晉州錦山陣亡人成冊 下于侍講院 命招其家屬 皆給免役牒及米太.’

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논개는 '관기(官妓)' '의기(義妓)' '의낭(義娘)' 등으로 필자(筆者)에 따라 다소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기생(妓生)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 뒤 1900년초까지는 논개의 신분은 기생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헌적 기록들에서이다. 그런데 구한말(舊韓末) 우국지사(憂國之士)이자 언론인(言論人)이었던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쓴 《일사유사(逸士遺事)》(1922년 간행)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로 재모(才貌)가 절륜(節倫)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依支)할데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기적(妓籍)에 들게 되었다. 현감(縣監) 황진(黃晉)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계사년(癸巳年)에 황공(黃公)이 순난(殉難)하자 논개도 물에 빠져 죽기를 결심(決心)하였다. 몸 단장(丹粧)을 곱게 하고 홀로 축석(矗石) 위에 서 있으니 왜장(倭將) 모(某)가 보고 몹시 기뻐하여 뛰어내려 하거늘 술에 취했을 때 논개가 갑자기 그의 허리를 껴안고 바위 아래로 떨어져 함께 죽었다. 이러한 까닭에 그 바위를 의암(義巖)이라하였고, 바위 위에 비를 세워 이를 정표하였으며, 진주 사람들이 축석루(矗石樓) 서쪽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매년 6월 29일이면 반드시 이를 제사하니, 이 날이 계

사순의일(癸巳殉義日)이기 때문이다.²⁶⁾

위의 내용은 그동안의 논개의 사적에 관한 문헌적 기록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吟味)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라는 대목과 또다른 하나는 '현감(縣監) 황진(黃晉)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이다.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라는 대목은 논개가 순국 당시 비록 기생이었다고는 하지만 '논개의 본래 신분(身分)은 장수현에 살았던 양가 출신'이었다는 의미(意味)를 갖는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본래 장수현에서 살았던 양가의 여자로서 어떤 사연(事緣)이 있어 기생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暗示)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장지연은 논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依支)할 데가 없었다.'는 데서 찾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狀況)에서 논개는 할 수 없이 '기적(妓籍)에 들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지연은 그동안 막연히 '논개는 관기(官妓)였다.'든가 '논개는 기생(妓生)이었다.'는 그동안의 문헌적 기록의 내용을 한 단계(段階) 높여 논개가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놓고 있다고 하겠다.

26) 장지연(張志淵), 《일사유사(逸士遺事)》 권(卷) 1. (1922, 서울), '論介는 本長水縣 良家女니 才貌絶倫하고 幼失父母하고 家貧無依하야 遂落籍爲妓라가 爲縣監黃進의 所愛러니 及晉陽之役에 黃公이 殉難이라. 論介欲赴水死하야 獨凝粧艷服으로 立巖石上이러니 日將某 | 見而悅之하야 將誘而引之러니 酒 에 論介忽抱其腰하고 投巖下俱死故로 名其巖曰義巖이라하고 立碑巖上而旌之하고 州人이 又立祠于轟石樓西하야 每歲六月二十九日에 必祭之하니 蓋癸巳殉義日也러라.'

위의 내용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기생(妓生)이란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기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에 높고 낮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개는 양가의 여자'란 말의 의미는 '논개가 당시 천민(賤民) 신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논개는 원래 양가의 딸로 태어나 어엿한 소녀(少女)로 자랄 수 있었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할데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논개의 출신 성분이 양가였든 가장(假裝)해서 기생이 되었든지간에 진주 촉석루 의암 위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할 당시에는 기생의 신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논개가 원래 양가의 딸로 태어나 어엿한 소녀(少女)로 자랄 수 있었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할데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일사유사》의 내용은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는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의암주논개낭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와 《벽계승람(碧溪勝覽)》의 내용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다고 할 것이다.²⁷⁾ 그렇다면 논개는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이

27) 《벽계승람(碧溪勝覽)》을 보면,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 자람에 따라 관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관비속공(官婢贖供)'이란 곧 관청(官廳)에 제공(提供)해야 할 것 대신 관비(官婢)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가 무엇인가를 관청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여 그대신 관청의 비(婢)가 되었다는 것이다.

된다. 즉 그녀가 기생이 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개를 사랑하였다는 최경회(崔慶會)의 후손(後孫)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더욱 확실해진다고 할 것이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기생 논개는 장수인데 최경회(崔慶會)가 좋아하였으며,' 라는 내용과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의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회가 사랑하였다.'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쥔 채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공(公)의 시첩(侍妾)이던 논개 역시 왜적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의 기녀(妓女)이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논개는 장수의 기녀(妓女)로 있다가 최경회의 사랑을 받아 마침내 시첩(侍妾)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겠다.²⁸⁾ 그리고 논개는 처음부터 기녀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면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오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의암 주논개 사적 조사 보고서(義巖朱論介事蹟調查報告書)》와는

28) 여기서 논개가 최경회의 시첩(侍妾)으로 되어 있으나 《일휴당실기》를 한글로 번역한 《해주최씨일휴당집육의록(海州崔氏日休堂六義錄)》, p. 81.에는 '시첩'을 '부실(副室)'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나온 기록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소 의미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즉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앞 부분 생략)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인(夫人)에게는 달무(達武)라는 숙부(叔父)가 있었는데 숙부는 천성(天性)이 어질지 못하고 주색(酒色) 방탕아(放蕩兒)였다고 한다. 인근 김풍헌(金風憲)이 살았는데 풍헌에게는 백질불구(白疾不具)의 아들이 있었다. 숙부 달무는 의암 부인을 김풍헌의 불구의 자식의 믿여느리로 팔았다. 그 내용을 탐문(探聞)한 의암 모녀는 안의현(安義縣) 서하면(西下面) 봉정 마을 외가(外家)로 피신(避身)하였다.

김풍헌은 이 사실을 알고 장수 현청(長水縣廳)에 제소(提訴)하여 포리(捕吏)들의 손에 두 모녀는 포박(捕縛)되었다. 1588년 8월에 장수현(長水縣) 관아(官衙) 뜰에서 심판(審判)을 받았다. 사실 심문(事實審問) 끝에 최경회(崔慶會) 현감은 무죄(無罪)를 인정하고 두 모녀를 석방(釋放)하였으며, 오히려 의지(依持)할 곳 없는 모녀의 딱한 사정에 모녀를 관아에 살도록 주선하였다.(이하 생략)

고 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에서 《일휴당실기》의 그것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개사적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논개가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는 있지만 그 근거 자료가 되려면 최소한 위의 내용을 입증(立證)할만한 유물(遺物)이나 문헌(文獻)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럴만한 유물이나 문헌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 한갓 전해오

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현감(縣監) 황진(黃晉)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대목에서,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의 문헌적 기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이다. 논개가 '사랑을 받고 있다' 라 표현한 말에는 논개는 '기생으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는 의미가 내포(內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논개가 기생으로 있으면서 황진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암암리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뒷날 정한숙(鄭漢淑)과 같은 소설가는 이를 소재(素材)로 삼아 《논개(論介)》라는 장편 소설(長篇小說)을 저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⁹⁾ 그동안의 문헌적 기록에는 대부분 '현감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근거에서 장지연은 현감 황진이 논개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류(誤謬)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³⁰⁾

5. 결어(結語)

이상에서 그동안 여러 문헌과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던 논개

29)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장편) (청아출판사, 1993, 1993), 1969년 9월 30일부터 1973년 9월 30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하였다가 1993년 청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30)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부산, 1996), p. 65. 내용 참조.

(論介)의 성씨·본관·이름·생년월일·출생지·성장지·신분에 관하여 그녀의 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입증(立證)할만한 근거 자료(根據資料)를 가지고 논의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確認)되었다. 논개에 관하여 언급(言及)한 최초(最初)의 문헌(文獻)이자 논개의 실존(實存)을 기록(記錄)으로 알려주었던 것은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술(著述)인 《어우야담(於于野談)》인데 이 역시 어떤 확실(確實)한 근거 자료에 의해 저술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어우야담》이 편찬되기 전 유몽인은 순무사(巡撫使)가 되어 당시 경상도 일대를 순시(巡視)한 바 있었는데 그 때 진주(晉州) 지역에 들러 그동안 향간(巷間)에 떠돌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蒐集)하였다가 뒤에 그 수집된 내용을 정리(整理)하여 《어우야담》에 수록(收錄)하였던 것이다. 《어우야담》이 필사본(筆寫本)으로 편찬된 것은 논개가 순국(殉國, 1593)한지 28년이 지난 1621년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개에 관한 내용들은 대개 《어우야담》에 수록된 논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민간(民間)에 구전(口傳)되어오던 논개에 관한 내용을 수집(蒐集) 확대(擴大)하거나 재해석(再解釋)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제 앞에서 살펴 보았던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었던 논개의 성씨·본관·이름·생년월일·출생지·성장지·신분에 관하여 그녀의 가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程度) 타당성(妥當性)이 있다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거나 이의(異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검토(檢討)해 보기로 한다.

최근에 이르러 논개의 가계(家系)에 관한 어떤 근거(根據)가 있든 없든 간에 논개의 성씨는 '신안 주씨(新安朱氏)', '그녀의 아버지는 주달문(朱達文)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朴氏)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립(定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개의 생년월일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앞 부분 생략) 배호길은 논개가 선조 7년(1574)인 갑술년의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사주가 사갑술이므로 술 戌이라서 '논개'라 명명했다는 것이다.³¹⁾ 정비석도 논개가 갑술년 9월 3일 갑술시생 곧 사주가 사갑술이며³²⁾, 전병순도 정비석과 같이 보고 있다.

하지만 논개란 이름과 꼭 같은 이름이 그녀가 살았던 당시의 문적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이름은 허다하게 많다. 그 한 예로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살펴 보면, '論介 礪山郡人 良人曹忠良之女也.' 고 한 것은 의기 논개와 동일한 이름이다. 이 밖에 良女 덕개(德介, 淸州人), 양녀 옥개, 양녀 인개, 양녀 석을배, 양녀 구토개, 양녀 홍

31) 배호길, <진주 촉석루와 주논개>《한양(漢陽)》, 1965년 3월호, 내용 참조.

32) 정비석, 《명기열전(名妓列傳)》, 제14화 진주기논개(晉州妓論介)(한국출판공사, 1982) 내용 참조.

개, 양녀 금개와 사비(私婢) 막개(莫介), 사비 춘개, 사지 막개, 사비 건이개, 사비 수령 및 신분이 명시되지 않은 충신 자근개, 옥개 등 논개와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³³⁾

(앞 부분 생략) 1861년에 간행되었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에서는 1577년에서 1579년까지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재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호남읍지》(제5책 〈무장읍지〉 官案條)의 1579년 3월 장수에서 무장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경희의 장수 부임은 1579년 이전으로 보아야 합당하다. 그런데 현전하는 구전을 체계화한 배호길은 1590년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부실로 맞아들였으며, 1591년 경상우병사가 되자 진주로 함께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논개의 나이, 논개와 최경희를 연결시켜 주는 송사 사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경희의 장수 현감 재임 시기를 맞추고 있다. 그 후 《장수군지》를 비롯한 지역사는 1589년을 최경희 장수 현감 부임을 정설화하고 있다.

최경희와 관련을 가지고 연구된 기존의 논문³⁴⁾에서는 최경희가 장수 현감 시절 논개와 인연을 맺는 것을 대부분 부정하

33)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p. 6-7. 내용 참조.

34) 리명길, 〈의기 논개의 사적 고찰〉《진주문화(晉州文化)》 제14집.(1992, 진주).. 유승주(柳承宙), 〈진주성(晉州城)의 의기(義妓) 논개고(論介考)〉《한국사학논총(韓國史學論叢)》, (1987), p. 909.

고 있다. 그것은 논개의 출생 연도를 대부분 1574년으로 인정한 위에 최경희의 장수 부임과 연결시킬 때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최경희의 장수 부임 시기는 1579년 장수에서 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1579년 이전이 함당하다고 판단된다. 157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논개의 나이는 너무 어려서 논개와 최경희와의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필자 또한 최경희의 장수 현감 부임은 1579년 경으로 보이며 1589년 부임 설은 수궁하기 힘들다.³⁵⁾

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의 출생년월일(사갑술)과 최경희와의 관계에서 볼 때 논개의 출생년월일인 사갑술설은 수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개의 출생년월일이 사갑술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고찰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갑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논개'라는 이름과 최경희와 논개의 관계에 관하여도 좀더 고찰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관해서는 지금의 '전라북도(全羅北道) 장수군(長水郡) 장계면(長溪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립(定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언(附言)해 둘 것은 '주촌(朱村)'이라는 지명(地名)과

35)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p. 204~205.

‘풍천(楓川)’이라는 지명이 동일한 마을에 대하여 그렇게 불렀던 서로 다른 이름인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지명이 서로 다른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 번더 깊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논개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현재 ‘주혁(朱爍)’과 ‘주용일(朱溶一)’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일인동명(一人同名)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끝으로 그녀의 신분에 관한 것인데 그녀는 분명 처음에는 양가 출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한 뒤 무슨 사연으로 말미암아 기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바 ‘관기’·‘의기’·‘기생’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축석루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할 때는 분명 기생의 신분이었음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³⁶⁾이 쓴 <진주의기사기(晉州義妓祠記)>를 보면,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 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

36)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晉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教) 교명(教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 해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穡)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忠臣(충신)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³⁷⁾ 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축석루 위에 써 붙인다. (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晉州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喪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37)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 이란 '홍화보(洪和輔)' 를 가리킨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이다.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
破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轟石樓上.³⁸⁾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정약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意義)를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정약용의 위의 글에서 논개의 신분이 무엇이었던가는 중요시 되지 않는다. 다만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정약용의 말에서 논개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

38)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오늘날 우리가 논개를 추앙하는 것은 그녀가 '신안 주씨'라는 양가의 딸이었다거나 아니면 충의공 최경회 부실(아니면 측실, 아니면 시첩, 아니면 애기)이었던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 때문이다.

문헌(文獻)에 나타난 논개(論介)

순천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오 병 무

(1)

역사(歷史)란 과거(過去)에 있어서의 인간(人間)의 행위(行爲)를 대상(對象)으로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란 우리들이 직접(直接) 지각(知覺)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기록 문서(記錄文書) 즉 사료(史料)를 매개(媒介)로 하여 인식(認識)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물론 사료란 문헌(文獻) 사료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남아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옛문서(古文書)들·옛기록(古記錄)들·서책(書冊)·서한(書翰)·신문(新聞)·일기(日記)·가요(歌謠)·구비전설(口碑傳説) 등과 인골(人骨)·석기(石器)·토기(土器)·주거지(住居地)·언어(言語)·회화(繪畫) 등 모두가 사료

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상(歷史上)의 어떤 사건(事件)이나 인물(人物)에 관하여 연구(研究)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들이 뒷날 객관성(客觀性)을 지닌 하나의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화(說話)나 구전(口傳)보다는 우선 그 당시의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나 금석문(金石文)에 새겨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러한 문헌이나 금석문이 전해오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한 사료적(史料的) 가치(價値)가 있는지의 여부(與否)에 관해서는 비판(批判)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순국(殉國)한 의암(義巖) 논개(論介) 사적(事蹟) 역시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문헌적 기록(文獻的記錄)이나 금석문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계(學界)로부터 의암 논개에 관한 역사적 사료(史料)로서 객관성을 인정(認定)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문헌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논개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지역의 사람들에게 옛부터 전(傳)해 오는 이야기(說)가 많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도 객관성을 가진 사료(史料)를 찾기 위하여 여러 학자(學者)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논개 사적에 관한 객관적인 사료로는 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금석문으로는 의암 논개가 순국한 곳으로 알려진 바위에 새겨져 있는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의 전서(篆書)가 있고, 문헌적 기록으로는 당시의 민담(民譚)과 설화(說話)를 모아 놓

은 것으로 알려진 류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이 최초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본고를 쓰는 목적은 논개에 관한 각종 문헌의 내용들을 분석 객관적 사실들을 추출하여 논개(論介)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립(定立)할 수 있는 그 가능 근거(可能根據)를 찾아 보려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앞의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1900년 이전까지 간행(刊行)되었거나 필사본(筆寫本)으로 이루어진 문헌들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1. 《어우야담(於于野談)》

《어우야담(於于野談)》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筆寫本)이다. 한글본과 한문본(漢文本) 두 종류(種類)가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譯者)와 연대(年代)는 불분명하다. 이 《어우야담》은 현재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어우야담》 필사본은 '장서각본(藏書閣本)' · '연세대본(延世大本)' · '천리대본(天理大本)' · '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文章上)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이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¹⁾이 당시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 야담(野談)과 설화(說話)를 모아 필사본(筆寫本)으로 편찬한 것이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 류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계사년(癸巳年)²⁾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축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

1) 유몽인은 명종(明宗) 14년(1559) 사간(司諫) 충관(忠寬)의 손자이자 당(堂)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당(於于堂)·간재(艮齋)·묵호자(默好子)이며,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그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門人)으로 선조(宣祖) 15년(1582) 진사(進士)가 된 뒤 158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문장에 뛰어났으나 성품이 경박(輕薄)하여 스승의 책망을 받고 절교(絶交)를 당하자 이이첨(李爾瞻) 등 당시 대북파(大北派)와 교류하면서 중북(中北)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우계 성혼이 죽자 스승을 모독하는 글을 써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폐모론(廢母論) 때 이이첨과 대립, 이에 가담치 않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화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유응시(柳應時)의 고변(告變)으로 기자헌(奇自獻)·유경종(柳敬宗) 등이 반란을 일으킨 이괄(李适)과 내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하려 하자 양주(楊州)의 서산(西山)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이원익(李元翼)·김상헌(金尙憲) 등의 문초에 모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지은 '상부사(孀婦詞)'에서 인조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아들 약(淪)과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조선 중기의 설화문학(說話文學)의 대가였으며 전서·예서·해서·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정조 때에 이르러 신원(伸冤)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추증되었고 흥양의 운곡사(雲谷祠)와 완주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어우야담(於于野談)》·《어우집(於于集)》이 전해오고 있다.

2)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찌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論介者晉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靚服 立于矗石樓峭下峭巖之巔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污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歎哀哉.)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 부분 '논개(論介)는' 부터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까지는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고, 뒷 부분 '임진왜란(壬辰

倭亂) 때' 부터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까지는 논개의 순국(殉國) 사실에 관한 어우당 유몽인 나름의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평가(評價)라 하겠다.

우선 앞의 기록에서 '논개(論介)'는 진주(晉州)의 관기(官妓)였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에게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관기로서 논개는 진주성(晉州城)이 함락(陷落)되어 많은 군사(軍士)와 백성들이 죽게 되자 나라와 백성들의 원수(怨讐)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장(丹粧)한 뒤 남강(南江)가의 바위에 앉아 왜적(倭賊)의 장수를 유인(誘引)하여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관기(官妓)란 원래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라 하여 정열(貞烈)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몽인이 볼 때 논개는 관기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끝내 나라를 등지 지 않은 채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정열(貞烈)이 있었고 충(忠)을 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관기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일반 사서인(士庶人)들이나 양반(兩班)의 부녀자(婦女子)들이 행할 수 있는 충과 열을 궁행(躬行)하였다는 것이다. '충(忠)'이란 원래 '충성(忠誠)'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교(儒教)의 덕목(德目)의 하나로 임금에 대하여 신하(臣下)와 백성이 자신의 본분(本分)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충(忠)'이라는 문자는 '중(中)'과 '심(心)'이 합(合)해져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형태가 나타내듯이 인간의 내면적(內面的) 양심(良心)이라 할 수 있는 성실(成實)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

한 마음에 의하여 남을 이해(理解)하려는 것이 '서(恕)'라 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거짓이 없이 말(言語)로 행하려는 것이 곧 '신(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몽인이 앞의 글에서 논개가 궁행하였다고 평가한 '충'이란 정치적(政治的) 개념(概念)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道德的) 개념으로서의 대의(大義)를 위한 자발적(自發的)이고 실천적(實踐的) 헌신(獻身)으로 본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열(烈)'이란 원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여자(女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의암(義巖)'이라는 전서(篆書)

논개가 임진왜란 당시 순국(殉國)한 진주성(晉州城) 축석루(矗石樓) 아래 남강변(南江邊)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이라는 전서(篆書) 두 글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져 새겨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유몽인의 《어우집(於于集)》 가운데 '어우선생년보(於于先生年譜)'를 보면 이 '의암'이라는 글씨는 정대응(鄭大隆)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대응이란 임진왜란 때 함경도(咸鏡道)에서 의병(義兵)을 이끈 의병장(義兵將) 정문부(鄭文孚)³⁾의 차자(次子)인데 그는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에 뛰어났다고 한다. 《진양현속지(晉陽縣續誌)》 권이(卷二), 인물조(人物條)를 보면 정대응은 아버지 정문부가 초(楚) 회왕(懷王)에 대해 지은 시(詩)가 있는데 이 시로 인하여 인조(仁祖) 2년 서기 1624년 1월

이괄(李适)의 난(亂)에 연루되어 무고(誣告)로 죽게 되자 형 정대영과 함께 진주(晋州)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두 기록이 사실이라면 '의암(義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仁祖) 2년 1월 서기 1624년 이후가 된다.

한편 현재 축석루(矗石樓)에 걸려있는 <의암기(義巖記)>를 보면 이 '의암(義巖)'이라 각자(刻字)한 동기(動機)가 소상(昭詳)하게 밝혀져 있다. 즉

…논개(論介)는 짐짓 미소까지 지으면서 맞아들인 뒤 그 왜놈(倭人)을 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했다고 한다. 의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말한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에서 말하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原文 省略)⁴⁾

3) 정문부는 명종(明宗) 20년(1565) 부사(府使) 신(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자허(子虛)이고, 호는 농포(農圃)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선조 21년(1588)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곧이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한 뒤 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회령(會寧)의 국경인(鞠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켜 적에게 투항하자 그는 산 속으로 숨었다가 민관(民官)을 수습한 뒤 의병 대장(義兵大將)이 되어 경성(鏡城)을 수복하고 회령으로 진격하여 두 왕자(王子)를 왜적(倭賊)에게 넘겨준 반란군과 국경인의 숙부(叔父) 세필(世弼)을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 이듬해 영흥부사(永興府使)가 되었다가 그 뒤 길주목사(吉州牧使)가 되었다. 인조(仁祖) 2년(1624) 그는 자신이 지은 초희왕(楚懷王)에 관한 시(詩)가 이괄(李适)의 난과 연루가 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뒤에 함북(咸北) 지방민들의 송원(訟冤)에 의해 신원(伸冤)되었다. 그의 저서로 <농포집(農圃集)>이 전해 오고 있다.

라는 기록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의암'이라 새겨져 있는 바위는 논개가 왜놈(倭人)을 안고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논개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기 위해 후세(後世) 사람들이 새기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의암'은 논개와 직접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와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의암'이라 부르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의암이 공식적(公式的)으로 세상에 알지게 된 것은 논개가 순국한 지 32년 뒤의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의암기〉는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 당시 간관(諫官) 오두인(吳斗寅)이 쓴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양곡집(陽谷集)》의 내용을 참고할 것) 아무튼 이 기록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후세에 알려 주게 된 직접적인 사료(史料)가 되는 최초의 금석문(金石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곡집(陽谷集)》

《양곡집(陽谷集)》은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⁵⁾의 저술로 4권 2책으로 되어 있는 인쇄본이다. 영조(英祖) 22년 서기 1746년 아들 태주(泰周)⁶⁾와 사위 도암(陶巖) 이재(李緯)⁷⁾가 간행하였다. 이 오두인의 문집인 《양곡집》 권삼(卷三)에도 〈의암기(義巖記)〉가 있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 서

4) 현재 진주(晉州)에 있는 축석루(矗石樓)의 현판(懸板) 가운데 '의암기(義巖記)'와 오두인(吳斗寅), 《양곡집(陽谷集)》 권삼(卷三), 〈의암기(義巖記)〉 참조.

기 1651년에 쓰여진 것이다. <의암기(義巖記)>의 내용을 살펴 보면

진양성(晉陽城) 축석루(矗石樓) 아래 남강(南江) 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속에 솟아 있다. 물에서 그 바위로 건너 가려면 한 걸음 밖에 얹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계사년(癸巳年)⁸⁾에 왜적(倭賊)이 침입(侵入)해 오자 창의(倡義)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官妓) 논개(論介)만은

5) 오두인은 인조(仁祖) 2년(1624) 상(翔)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숙부 숙(翽)에게로 입양(入養)되었다. 그의 자는 원징(元徵)이고, 호는 양곡(陽谷)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인조 26년(1648)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합격한 뒤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지평(持平)·장령(掌令)·헌납(獻納)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다가 다음 해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 청(淸) 나라에 다녀왔다. 숙종(肅宗) 5년(1679)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 나라에 다녀와 다음 해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1682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공조 판서를 역임하다 숙종 15년(1689) 형조 판서로 재직 중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西人)들이 정치에서 실각(失脚)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삭직(削職) 당하였다.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폐위(廢位)되자 이세화(李世華)·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국문(鞫問)을 받았으며 의주(義州)로 유배(流配) 도중 숙종 15년(1689) 파주(坡州)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곧 복관(復官)되었으며 뒤에 그에게 영의정(領議政)이 추증되었다. 파주의 풍계사(豐溪祠)·광주(光州)의 의열사(義烈祠)·양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의성(義城)의 충열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 <양곡집(陽谷集)>이 전해 오고 있다.

6) 오태주는 현종(顯宗) 9년(1668) 두인(斗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도장(道長)이고, 호는 취몽헌(醉夢軒)이며, 본관은 해주이다. 그는 현종의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결혼하였으며 숙종 5년(1679)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다. 그는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예서(隸書)에 능통하였다. 그는 1689년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아들을 세자(世子, 景宗)로 책봉(冊封)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가 한 때 삭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예에만 열중하였다. 그는 숙종 42년(1716) 죽었다.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讐)로 여겨 순국(殉國)키로 맹세(盟誓)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 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倭兵)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키면서도 위태로운 지세(地勢)를 겁내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倭將)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물으러 논개를 꺾어 내려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였다고 한다.

의(義)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이른바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 《詩經》)에서 이른

-
- 7) 이재는 숙종 6년(1680) 진사(進士) 만창(晩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희경(熙卿)이고,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이며, 본관은 우봉(牛峯)이다. 그는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찬집청 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端宗實錄)》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봉교(奉敎)로 있으면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 이듬해 홍문관(弘文館)·헌납(獻納)·북평사(北評事)를 역임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는 노론(老論)의 일원(一員)으로 《가례원류(家禮源流)》시비가 일어났을 때 소론(少論)을 통박하기도 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중부(仲父) 만성(晩成)이 옥사(獄死)하자 정계에서 은퇴하고 인제(麟蹄)로 들어가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전념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중추적 인물로 등장하였다. '심성론(心性論)'에 있어 이간(李柬)의 학설을 지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 당시 낙론(洛論)의 대표적 학자가 되었다. 그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조광조(趙光祖)·이이(李瑀)를 사숙(私塾)했으며 《율곡전서(栗谷全書)》를 산정(刪定)하기도 하였다. 그는 서화(書畵)에도 능통하였다. 영조(英祖) 22년(1746) 그는 죽었다. 용인(龍仁)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도암집(陶庵集)》이 전해 오고 있다. 그 밖에 많은 편저가 전해지고 있다.
- 8)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晉州)의 한 창기(娼妓)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義)를 좇아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大丈夫)의 열렬한 사업(事業)처럼 처리(處理)함으로써 당시 여염(閭閻)집 부인(婦人)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恩澤)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感動)하여 분발(奮發)케 한 것이리라. 마치 남국(南國) 부인네들이 문왕(文王)의 인정(仁政)에 감화(感化)되어 강한(江漢) 땅의 풍속(風俗)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前省略> 義哉巖也. 庸詎非大易所謂介于石 衛詩所謂不可轉者耶. 彼以南州之一娼妓 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 辦此烈烈如大丈夫事業 以愧夫當日之髻婦 苟非我國家深仁厚澤 能使人感發者 有若南國婦人 化文王之政 變江漢之俗 則何以得此乎.)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가 김창의(金倡義)⁹⁾와 함께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몇 명의

9) 여기서 '김해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는 이종인(李宗仁)을 가리키며, '김창의(金倡義)'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을 가리킨다. 이종인의 자는 인언(仁彦)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귀침(龜琛)의 아들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다. 뒤에 무예(武藝)를 익혀 무과(武科)에 급제한 뒤 선조 16년(1583) 군관(軍官)이 되어 이제신(李濟臣)의 반란(叛亂)을 토평(討平)하는데 종군(從軍)하였으며, 북방(北方) 수비(守備)에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부임하여 진주성(晉州城)이 왜적에게 포위(包圍)되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황진(黃進) 등과 함께 성을 끝까지 방어(防禦)하였으나 함락당하게 되자 적병(賊兵)을 양팔에 한명씩 끼고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뒤에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추증하였으며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왜적을 두 팔에 끼고 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다.' 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의열(義烈)이 많다는 말인가.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 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저!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前省略〉噫. 癸巳于今甲子纔一周 而以如彼堂堂死義之所 尙未能辦其彼此 是何禮義之邦而文獻之不足徵耶 殊可欠也. 然而均是死於義 則彼亦一義也. 此亦一義也. 俱可謂確乎其不可拔者 何傷竝稱其義於此巖也.)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晉陽)에 다다르니 이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 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있어 마침내 축석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原文 省略)

위의 내용은 아마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고 거기다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좀더 상고(詳

考)하여 보완(補完)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해 부사 이모(李宗仁)' 역시 진주성이 함락되자 양팔에 왜적 한명씩을 끼고 남강(南江)에 투신(投身) 숙국하였는데 그 투신처(投身處)가 바로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던 '의암(義巖)'이라는 기록이다. 이같은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없는 것으로 새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해 부사 이종인은 이 때 이미 그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으로부터 인정되어 순국한 그에게 포상(褒賞)이 이루어졌고 충민사(忠愍祠)에 그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었다. 오두인이 바로 이 점을 착안(着眼)하여 이 글을 썼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場所)에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도 한 사람(이종인)은 포상이 되고 사당에 위패까지 봉안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논개)은 미천(微賤)한 관기(官妓)라 하여 그녀의 행적(行蹟)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포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발로(發露)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 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저!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

들 무엇이 나쁘겠는가?”고 반문(反問)한 것이리라.

그런데 위의 인용문 끝 부분 즉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晉陽)에 다다르니 이 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 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있어 마침내 촉석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진양(진주)에 왔다고 한 ‘신묘년(辛卯年)’은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인데 이 때는 진주성이 함락된지 58년이 지난 뒤이다. ‘의암기’를 쓴 오두인은 162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주성이 함락되었던 그 때(癸巳年, 1593년 6월 29일)를 목격(目擊)하지도 않았지만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신묘년 이 때는 그의 나이 불과 27세였다. 오두인이 진양에 이르렀던 신묘년 10월 24일 진주 사람들이 강변에 제단을 설치하고 진주성이 함락될 당시 순국한 의혼(義魂)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날이 바로 성이 함락된 날로 착각(錯覺)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주성이 함락된 것은 계사년(癸巳年) 서기 1593년 6월 29일 한 여름이었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때 사람들이 진주성이 함락되었던 그 날이 한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물(祭物)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 때가 농번기(農繁期)였기에 추수(秋收)가 끝나고 농한기(農閑期)가 시작되는 10월 24일로 정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오두인이 진양성에 도착하여 진주의 주민들이 순국한 의혼(義魂)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

마 이 날이 진주성이 함락된 날이 아니었던가 착각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계문(疏啓文)에 나타난 논개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戰死)한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시민(金時敏)¹⁰⁾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¹¹⁾ 등 27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10) 김시민은 명종(明宗) 9년(1554) 지평(持平) 충갑(忠甲)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면오(勉吾)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선조 11년(1578)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이 되었을 때 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건의한 바 채택되지 않자 관직을 그만 두었다. 1591년 진주 판관(晉州判官)이 되었으며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죽은 목사(牧使)를 대신하여 진주성의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무기(武器)를 갖추어 목사로 승진하였다. 이어 사천(泗川)·고성(固城)·진해(鎭海) 등지에서 적을 격파하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 올라 금산(錦山)에서 다시 적을 격파하였다. 이 해 10월 적의 대군이 진주성(晉州城)을 포위하자 불과 3천8백의 병력으로 7일간의 공방전을 벌려 3만여의 사상자를 내게 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이마에 적탄을 맞은 채 죽었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추록되고 상락군(上洛君)이 봉해졌으며 뒤에 영의정·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이 추증되었다.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11) 최경회는 중종 27년(1532) 천부(天符)의 아들로 능주(綾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선우(善遇)이고, 호는 삼계(三溪)·일휴당(日休堂)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명종 16년(1561) 진사시에 합격하고 선조 즉위(1567) 식년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영해군수(寧海郡守)·장수현감(長水縣監) 등을 역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전라우도(全羅右道)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금산(錦山)·무주(茂朱)·창원(昌原)·성주(星州) 등지에서 왜적을 격퇴 전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이듬해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승진하였으며 이 해 6월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9주야(晝夜)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뒤에 좌찬성(左贊成)이 추증되었으며 능주의 포충사(褒忠祠)·진주의 창렬사(彰烈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것이다. 순조(純祖) 31년 서기 1831년 정덕선(鄭德善) 등이 편찬 간행하였다. 김시민을 충민사(忠敏祠), 최경희 등을 창렬사(彰烈祠)에 배향(配享)하게 된 전후(前後)의 사실(事實)과 포상문(褒賞文)을 실은 다음 수성기(守城記)·함성기(陷城記)·소계(疏啓)·비문(碑文)·제문(祭文) 등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충렬실록》의 편찬과 간행 년도가 순조 31년 서기 1831년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그 이전의 것들이다. 여기서는 논개에 관한 부분만 살펴 보고자 한다.

《충렬실록》 권이(卷二), 〈비변사장(備邊司狀)〉¹²⁾의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축석루(矗石樓) 아래의 남강(南江)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倭亂)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血戰)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死義)한 뒤 오직 한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12) 비변사장(備邊司狀)이란 비변사에 올린 장계(狀啓)를 말한다. 비변사는 조선 시대 관청의 하나로 일명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라고도 하였다. 비변사가 정규(正規)의 관청(官廳)이 되어 독자적(獨自的)인 합의 기관(合議機關)이 된 것은 명종(明宗) 9년(1554)이다. 비변사의 권한(權限)이 강화(強化)된 것은 임진(壬辰)·정유왜란(丁酉倭亂) 이후인데 변경(邊境)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행정(一般行政)도 모두 이 곳에서 의논(議論)하여 결정(決定)하게 되었다.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축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데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히 추락(墜落) 당하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節義)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이란 호를 새기었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戰歿)한 제신(諸

臣)들에게는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哀惜)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義烈)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날날이 품달(稟達)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原文 省略)

위의 글은 당시 진주 사인(士人)들이 전진주(前晉州) 별장(別將) 윤상보(尹商輔)에게 장문(長文)을 우병영(右兵營)에 올리도록 권유(勸諭)하였는데 그 때 그 권유를 받아드려 윤상보가 쓴 것이다. 이를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이 인용(引用)하여 경종 2년 2월 서기 1722년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를 올린 바 있다. 이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實相)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암(義巖)이란 전각(篆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으니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娼妓)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아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

땅히 포이지례(褒異之禮)를 참작(參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原文 省略)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방도(方道)를 통하여 찾아 보았으나 그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어우야담》의 내용 가운데에서 논개의 순국 사실을 찾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야담고기'란 곧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진한은 《어우야담》의 내용과 '의암(義巖)'이라 새겨진 전각(篆刻)을 대조(對照)해 보고 비교(比較)도 해 보았다는 것이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논개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 허람(虛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논개가 비록 처음에는 창기(娼妓)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마침내에는 의(義)를 위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조정(朝廷)의 아무런 조치(措處)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없어질 우려(憂慮)가 있으니 조정으로부터 마땅한 포이지례(褒異之禮)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최진한의 주장이다.

이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개의 포양(褒揚)을 경종(景宗)에게 계문(啓聞)¹³⁾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마침내 예조(禮曹)로 하여금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한 뒤 시행토록 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관문(關門)¹⁴⁾을 보내게 되었다.

13) '계문(啓聞)'이란 관찰사(觀察使)나 어사(御使)가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말함.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亂中)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倭賊)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嘉尙)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明白)하게 의거(依據)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한 뒤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原文 省略)

위의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아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정(朝廷)에서 미력(微力)하나마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확신(確信)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그녀의 순국 사실을 논의(論議)하기 어려운 까닭에 더 조사(調査)하여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관문을 보냈던 것이다.

위의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최진한은 진주의 사인(士人)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나머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종 2년 4월 민관(民官)이 함께 재정을 출자하고 정식(鄭栻, 1683~1746)이 비문을 짓게 되었는데 이 때 건립하게 된 비(碑)가 곧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문에는 《어우야담》의 논개 순국 사실을 전제한 뒤 '이 내

14) '관문(關文)'이란 상급(上級)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公文)을 가리킴.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용은 당시의 실록(實錄)에서 나왔으므로 지금 비문을 새김에 있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대로 비에 옮겨 새긴다.'고 되어 있으며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글을 새겼던 것이다.

유독 가파른 그 바위 위에 그녀 홀로 우뚝 서 있도다. 그녀가 그 바위 아니었다면 어찌 죽을 끈을 얻었겠으며, 바위인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롭단 소리를 듣겠는가? 이 남강가의 높다란 바위에는 만고(萬古)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原文省略)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건립한 우병사(右兵使) 최진한(崔鎭漢)은 그 뒤 다시 비변사(備邊司)에 신보(申報)¹⁵⁾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서적(書籍)은 고금(古今)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서는 의거(依據)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殉國)한 뒤부터 영남(嶺南)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子孫)이 없는데다 족속(族屬)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後代)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

15) '신보(申報)'란 하급자(下級者)가 상관(上官)에게 보고(報告)하는 것을 말함.

사간(公私間)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碑)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野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 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野談)의 글은 고인(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依據)할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碑文)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嶺南)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感情)을 품게 한 폐단(弊端)을 풀도록 하십시오.(原文 省略)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도 논개의 사적(事蹟)에 관한 기록이 관청의 문적(文籍) 가운데에는 찾아 볼 길이 전혀 없었지만 '의암'이라 새겨놓은 바위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비문이 곧 논개의 의거(義舉)를 증빙(證憑)할만한 충분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암(義巖)'이라 바위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는 논개가 순국한 뒤 영남(嶺南) 사람들에게 의해 '의암'이라는 말만이 전해 오게 되었는데 몇몇 선비들이 논개의 의거 사실을 애석(哀惜)하게 여겨 새겨놓은 것이라 한다. 그 뒤 논개가 순국한지 백여년이 지나 자손(子孫)도 없고 족속(族屬)도 적어 그녀의 사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 것을 염려(念慮)한 나머지 의암 위에다 비석 하나를 세우게 되

었다고 한다.

그 비문의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의암' 이라 새겨진 바위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보는 바이고, 《어우야담》은 옛 사람들의 공의(公議)에 따른 것이니 논개의 의거(義舉)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이 두 가지 내용보다 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논개의 의거 사실을 인정 포이지전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위의 최진한(崔鎭漢)의 신보(申報)를 받아 본 비변사(備邊司)에서는 다시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재관문(再關文)을 보낸다.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殉國) 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子孫)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¹⁶⁾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¹⁷⁾을 보이도록 하라.(原文 省略)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그동안 조정(朝廷)에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최진한의 신보(申報)로 말미암아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논개의 순국에 관해 논의한 바 그녀의 자손

16) '급복(給復)'이란 세금(稅金)과 부역(負役)을 면제(免除)해 주는 것을 말함. '복(復)'은 '제(除)'와 같은 의미이다.

17) '포이지전(褒異之典)'이란 공적(功績)을 특별히 찬양하여 특전(特典)하는 일을 가리킨다.

을 찾아 그들에게 급복(給復)과 포이지전을 베풀도록 조치(措置)하라는 것이다.

이 재관문(再關文)을 받은 최진한은 비변사에 다음과 같은 연보(連報)¹⁸⁾를 한다.

의기 논개의 자손(子孫)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사문(査問)하였더니 지방관(地方官)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坊坊曲曲)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¹⁹⁾합니다.(原文 省略)

이 연보(連報)에 의하면 논개에 관한 칭호(稱號)가 관기에서 ‘의기(義妓)’로 바뀌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의기 논개의 자손을 찾기 위해 해당 관청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토록 하였으나 논개는 원래 자손이 없었고 그녀와 관계가 있는 족속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의 관문이 경상우병사의 관할지로 보냈는지 아니면 논개가 태어나 성장한 곳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논개의 자손이나 족속을 찾아본 즉 아무도 없었기에 급복의 특전을 베풀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이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18) ‘연보(連報)’란 이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함.

19) ‘첩보(牒報)’란 서면(書面)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첩정(牒呈)’과 같은 의미이다.

그 뒤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청증직소(請贈職疏)'를 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사실(事實)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晉州)에 부임(赴任)한 뒤에야 과연 축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峭石)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노(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傳說)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도리켜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激動)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亂中)에 절개(節慨)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娼妓)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

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野談)²⁰⁾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낀 바위에는 '의(義)' 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포(旌褒)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歎息)하고 애석(哀惜)해 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嶺南)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職位)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연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전하(殿下)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앓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所關) 업무(業務)도 복잡하고 군사(軍士)를 훈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할 방도(方道)에도 겨를이 없아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²¹⁾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妓生)이 순국한 후 원한(怨恨)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

20) 여기서 '야담(野談)'이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말한다.

21) '외월(猥越)'은 '외람(猥濫)'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짓이 분수(分數)를 넘음

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原文 省略)

위의 인용문은 논개에게 증직(贈職)해 줄 것을 임금에게 직접 청원(請願)하는 소장(疏章)의 일부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포하는 상장을 내려 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妄覺)한 채 마침내에는 임금에게 직접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내용과 그녀에게 증직할 것을 청원하는 소(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英祖) 16년 1740년 마침내 논개에게 '의기(義妓)의 정포(旌褒)'가 내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正祖) 22년(1798)에 이르러 우병사 안숙(安繡)이 작성한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의 내용 가운데

영조(英祖) 16년(1740)에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 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다.(原文 省略)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게 정려(旌闡)의 은전(恩典)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 서기 1740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에 대한 '관기(官妓)'라는 표현이

아닌 '의기(義妓) '로서의 정포를 윤택(允許)받았던 것이다.

5. 〈의기전(義妓傳)〉

〈의기전(義妓傳)〉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 서기 1739년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文集)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의기전〉은 논개의 순국에 관한 기록이다. 〈의기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력(萬曆) 기사(癸巳) 6월 그믐에 왜적(倭賊)들이 진주성(晉州城)을 함락시켰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論介)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의암(義巖)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었다. 춤이 어느 정도 이르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모든 적들이 크게 놀라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적들은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되어 다라나고 무너져 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저 무지(無知)하고 한결같이 천(賤)한 창기(娼妓)가 사직(社稷)을 걱정하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南方)의 수백년의 근기(根基)를 회복(恢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앞 옛 역사(歷史)에 일찌기 있었던가? 나는 이경(李璈)과 백사림(白士霖)의 무리들을 초청(招請)하여 이를 일러주고자 한다. (萬曆癸巳六月晦日賊陷晉陽城 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喟然曰國事至此生不如死 然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 會長喜而來 遂媯然而迎與之舞 舞將半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 欲救之已無及矣. 賊喪其帥大亂奔潰城復全. 嗟乎. 士讀書講明義理平居談論莫不自許以忠臣烈士. 而及一朝遇事變未免徘徊 於死生之間不能決然於能魚之分 卒爲天下後世笑者種種焉. 彼無知一賤娼之能憂社稷扶綱常. 含笑臨江視死如歸 了無識毫顧惜之意. 而又其奇謨秘策出於人意慮不到 殲賊魁於乘勝方張之際 振士氣於敗衄殘傷之餘 損一縷而爲南方數百年恢復根基者. 此果前古史所嘗有者乎. 吾欲招李璈白士

霖輩而告之)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암 위에서 논개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라 하겠다. 그동안 논개의 순국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춤을 추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구체화(具體化) 내지는 사실화(事實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성품(性品)을 적게나마 파악(把握)해 볼 수 있다.

한편 윗 글에서 보면 당시의 선비들의 생활상(生活相)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당시의 선비들은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여 선비들은 평소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면서도 사변이 일어나니 결연치 못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한 두 예가 아니라 한다.

그런데 논개는 무지(無知)하고 미천한 창기(娼妓)였지만 “사직을

걱정하고 강상을 부지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설픈 선비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의리(義理)를 배우지도 않았고 평소에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도 않았지만 국가(國家)와 백성의安危(安危)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있을 때 사직(社稷)을 걱정하였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高貴)한 삶과 죽음이 아닐 것인가?

마침내 그녀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왜적의 우두머리 곧 장수(將帥)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 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의 수백년의 근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논개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에 의한 순국은 당시 왜적의 침략을 당해 패잔의 상처와 쓰라린 고통(苦痛)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조선(朝鮮)의 백성들과 군사(軍士)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 수백년동안 유지(維持)되어온 근기(根基)를 회복(回復)할 수 있게 하는데 한 계기(契機)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개의 순국 결과에 대하여 ‘앞 옛 역사(歷史)에 일찍이 있었는가? 참으로 논개의 순국은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나야 할 것이 아닌가?’ 고 박태무는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의기전>은 진주에 ‘의기사(정려)’가 창건(創建)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기전>의 끝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임금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기(義妓)의 정려(旌閭)를 세우라 명(命)하였는데 정려는 의암(義巖)의 북쪽 수십보(數十步) 거리에 있다.(上聞之 命立義妓之間 閭在義巖北數十步許)

6.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

정약용(丁若鏞)²²⁾이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은 것은 1780년 이후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 서기 178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1726~1791)가 보수(補修)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22)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晋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教) 교명(教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 해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穡)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丈人)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던단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낭(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 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충신(忠臣) 지사(志士)들의 분

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²³⁾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축석루 위에 써 붙인다. (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 矧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晉州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悲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眇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 曠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缺 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矗石樓上.²⁴⁾

23)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 이란 '홍화보(洪和輔)' 를 가리킨다.

위의 글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意義)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논개(論介)'라는 말이 없고 '기(妓) 의낭(義娘)'이라 표현하고 있다. '기(妓)'는 기생(妓生)을 가리키며 '의낭(義娘)'은 '의로운 낭자(娘子)'를 가리킨다. '낭자'란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 곧 처녀를 말한다. 만약 '기(妓) 의낭(義娘)'이 '논개'를 가리킨다면 이 때의 논개는 혼인(婚姻)을 하지 않은 처녀 기생(處女 妓生)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앞에서는 '기(妓) 의낭(義娘)'이라 기록해 놓고 뒤에서는 그녀를 '현부인(賢婦人)'이라 기록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24)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7.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卽位年) 서기 1800년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일하(卷之一下, 33面),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를 보면 논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기생(妓生) 논개(論介)는 장수(長水) 사람으로 공(公)²⁵⁾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성으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陷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며 적장(賊將) 두 명을 유인(誘引) 마주 대한 채 남강(南江)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나서 자신도 죽었다. 뒷 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놓기를 '의암(義巖)'이라 하였으며 비(碑)를 세웠다.(妓論介長水人公所旣也. 隨入晉州及城陷盛其塗澤誘賊將二人 對舞南江危巖上 兩手掙二賊墜江而死 後人鐫其巖曰義巖立碑)

위의 기록은 《호남절의록》,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의 뒷 부분에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이는 최경회(崔慶會)와 논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된다. 한 가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

25) 여기서 '공(公)'이란 최경회(崔慶會)를 가리킨다.

이 대부분 진주(晋州)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는 논개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위 기록에서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경희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기록이다.

그런데 《호남절의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수단 유사(收單有司)'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각 집안을 방문(訪問) 조사(調査)케 한 뒤 그 조사된 내용을 참고로 하였던 것이다. 《호남절의록》,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의 뒷 부분에 부기(附記)되어 있는 내용은 논개의 후손이나 아니면 족속이 말해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최경희의 후손에 의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최경희의 후손들이 어떤 근거(根據)를 가지고 수단 유사에게 최경희가 논개를 좋아하였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분명히 최경희의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경희가 논개를 사랑하게 된 시기(時期)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재임하고 있던 때였는지 아니면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였던 때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적장(賊將)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적장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해오는 바 논개가 적장 한 명을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떠밀어 남강에 빠져 죽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논개의 순국에 관한 기록에는 논개가 춤을 추다 왜장을 양팔로 껴안고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의 기록에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먼저 물에 떠밀어

빠져 죽게 한 뒤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뒤 이 《호남절의록》을 바탕으로 하여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8.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종(憲宗) 5년 서기 1839년 간행되었다. 이 《호남삼강록》은 《호남절의록》보다 39년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호남삼강록》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조(論介條)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논개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로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사랑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된 뒤 왜장(倭將)은 논개와 더불어 축석루에서 큰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듯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 (술에) 취하자 끌어안고 루(樓) 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곳에 비(碑)를 세우고 고을(진주) 관청(官廳) 스스로 매년 치제(致祭)를 한다. 장수(長水) 본현(本縣)에 정려(旌閭)가 있다. (論介長水官妓晋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論介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 抱而同投樓下而死 因立碑於其州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위의 기록에서 보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논개에 관한 내

용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는 달리 논개조(論介條)를 따로 분리(分離)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개가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라 하였으며, 진주 병사(晉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논개가 장수의 관기였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이다'고 하여 그녀가 곧 '장수 사람이다.'라든가 아니면 '그녀가 장수 태생이다.'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뒷날 편집 간행되는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인용문에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제기(提起)되는데 즉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라는 기록이다. 그 정려가 장수 본현 어디에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져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되기 전까지 이 곳 장수 지역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금석문(金石文)이나 그녀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건물이 세워졌다는 문헌적 기록이나 세워진 금석문이나 건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남삼강록》의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라는 기록은 오기(誤記)이거나 수단 유사(收單有司)의 오해(誤解)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최경회조(崔慶會條)를 여기에 부기 해둔다.

崔慶會海州人號三溪受學於奇高峯大升門文科壬辰收散亡
卒進至長水擊賊破之轉向晉州開寧屯賊聞風賁潰拜慶尙右兵

使與金健齋入晉州累戰累却及其城陷登南譙樓北向四拜赴水而死 贈吏判旌閭享彰烈祠 賜額綾州褒忠晉州官奴得印於南江淺灘卽公殉節時抱而投江者也馳 啓封進 英廟朝親製銘序 親製祭文致祭于彰烈褒忠祠 諡忠毅綾州

최경희의《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는 철종(哲宗) 12년 서기 1861년에 간행되었는데 이는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보다 22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실기의 창의서록(倡義敍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위의 기록과 《호남삼강록》의 논개조에 영향을 받은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권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시첩(侍妾)이던 논개(論介) 역시 왜적(倭賊)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長水)의 기녀(妓女)였다.(原文 省略)

9.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는 헌종(憲宗) 12년 서기 1846년 논개의 출생지(出生地)를 기념(記念)하기 위해 장수현(長水縣)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장수 현감(長水縣監) 정주석(鄭胄錫)이 비문(碑文)을 지었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概)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 일진대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判斷)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烈烈)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을 것이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根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라.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 하노라.(原文 省略)

위의 비문이 세워지게 된 년대는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된 7년 뒤의 일이다. 그리고 이 비문은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이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의 내용과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던 이야기를 근거(根據)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비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논개의 인격(人格)에 관하여 어느 정도이긴 하지만 짐작(斟酌)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

겠다. 즉 위의 글에서 보면, 당시 정주석은 장수 군수로 부임한 뒤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논개가 국난(國難)을 당하여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절개(節概)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烈士)들에게도 어려운 일' 이지만 한갓 여자의 몸으로 대의(大義)를 판단(判斷)하여 행동으로 옮겨 순국하였다는 사실과 그렇게 순국한 논개의 충열에 대하여 삼가 옷깃을 여미게 되었고, 그녀를 공경(恭敬)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나머지 정주석은 논개가 순국할 당시를 회고(回顧)해 보았는데 그녀의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을 것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根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 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라 감탄(感歎)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述懷)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주석은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스스로 원(願)하였기에 삼가 글로 그 내용을 적어 후세(後世)에 알리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주석의 말에서 논개의 타고난 성품(性品)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난(國難)'이란 선조(宣祖) 25년(1592)에 발발(勃發)했던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10. 《호남읍지(湖南邑誌)》

《호남읍지(湖南邑誌)》는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종(高宗) 9

년 서기 1872년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읍지》 가운데 장수현조(長水縣條), 절의편(節義篇)에는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의기(義妓) 논개(論介)는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晉州兵使)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였을 때 그녀가 따라갔다.(原文省略)

위 내용에서 논개는 의(義)로운 기생 곧 의기(義妓)로 표현되어 있다. 논개가 다른 기록에서 처럼 '관기' 라든가 '진주 기생' 이라든가 '장수 기생'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고 다만 '의기' 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이 장수(長水)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이다.' 고 밝히고 있다. 곧 그녀의 고향이 '장수의 임현내면 풍천' 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록들은 그녀의 고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장수 사람이다.' 는 정도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면(面)과 마을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는 내용 역시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경회가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좋아했다.' 는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즉 '장수 현감' 이라는 직명(職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최경회가 진주 병사(晉州

兵使)가 되어 진주성(晋州城)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도 최경회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논개의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하겠다. 즉 논개가 진주성으로 간 것은 최경회가 진주 병사가 되어 진주성으로 가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다. 이같은 기록은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영향이라 이해할 수 있다.

11. 《청구야담(靑邱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의 작자(作者)와 만들어진 년대(年代)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推測)하건대 조선 말기(末期)로 보인다.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필사본(筆寫本)이다. 그 결구(結構)와 수법(手法)이 묘하여 언어(言語)·풍속(風俗)·관습(慣習)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청구야담(靑邱野談)》 가운데 '진양성의기사생(晋陽城義妓捨生)'이라는 제목 아래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논개(論介)는 진양(晋陽) 땅의 기생(妓生)이다. 임진년(壬辰年) 왜적(倭賊)이 진양성(晋陽城)을 공격(攻擊)할 때 상락군(上洛君) 김시민(金時敏)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지키며 여러 번 싸워 여러 번 패퇴(敗退)시켜 왜적 수만명을 죽였다. 적들은 결국 호남(湖南)을 넘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 해 계사년(癸巳年) 6월(六月) 왜장(倭將) 청정(清正)이 풍신수길(豊臣水吉)의 명을 받고 진양성에서의 치욕(恥辱)을 씻고자 십만

(十萬) 병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包圍)하였다. 이 때 경상도병사(慶尙道兵使) 최경회(崔慶會)와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과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등 여러 공(公)들이 들어와 성을 지켰다. 유독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는 '이 성은 왜적이 힘을 다해 싸울려는 곳시오, 호남과 영남(嶺南)의 요충(要衝)과 관문(關門)이 되는 곳으로서 고단한 병력으로 강적(強賊)을 대항(對抗)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고 하여 끝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공들이 축석루에 모여 생사(生死)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히 일을 의논하였다. 왜군에서는 아래에 명을 내리기를 '작년(昨年)에 패퇴한 보답을 오늘에야 할 것이다. 이 성을 함멸(陷滅)시키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고 했다.

그리하여 (왜적은) 백방(百方)으로 공격을 했는데 10일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 안 6만의 사람이 같은 날에 죽었고 여러 공들은 모두 남강에 이르러 죽었다. 이 때 논개는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왜장 가운데 가장 걸출(傑出)하게 생긴 자를 찾아 만나고 거짓으로 교태(嬌態)를 부리니 왜장이 기뻐했다. 그가 그녀를 겁탈(劫奪)코자 했으나 그녀는 허락치 않고 부드러운 말로 왜장을 유인(誘引)하여 강가의 바위 위로 걸어 나오게 했다. 그 곳에서 함께 춤을 추었는데 이 바위는 강가에 우뚝 솟아 있어 삼면(三面)이 모두 깊은 못이었다.

그래서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강물로 떨어져 들어갔다. 왜군의 진영(陣營)에서는 크게 놀랐다.

난이 평정(平靜)된 뒤 논개를 기려 '의기(義妓)'라 하고 강가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祭)를 지내고 그 바위를 '의기암(義妓巖)'이라 이름하여 '일대장강(一帶長江) 천추의열(千秋義烈)'이라는 여덟 글자를 새겨 두었다. 그 바위를 또한 '낙화암(落花巖)'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기녀가 강에 가라앉은 것을 낙화(落花)에 비유(比喻)한 것이라 한다.(論介者晉陽妓也. 壬辰倭攻晉陽城 上洛君金時敏孀嬰城自守 屢戰屢敗之殺倭數萬 賊終不敢窺湖南而歸 翌年癸巳六月倭酋清正承秀吉之旨 必欲雪晉陽之恥 率兵十萬來圍 時本道兵使崔慶會 忠淸兵使黃進 倡義使金千鎰 金海府使李宗仁 復讐將高從厚 泗川縣監張潤諸公入守之 獨紅衣將軍郭再祐曰 此城倭賊必爭之地也. 爲湖嶺要衝關隘(阨)之所 而孤軍遇強賊 必敗乃已云. 而終不入城 諸公會轟石樓 誓同生死慷慨論事 倭下令曰 昨年敗衄之報 政在今日 不滅此城 誓不旋踵 百道攻城第十餘日城陷 城中六萬人 同日殲之 諸公皆赴南江而死 時論介凝粧盛飾 往見倭將之最傑驚者 假意獻媚 倭將悅之 欲劫之 妓不從 以婉辭誘引倭將 步出江邊巖石上 與之對舞 此巖插在江岸三面皆深潭也. 遂抱倭將之腰 墜入江中 倭陣大驚 亂平後 旌論介曰義妓 立祠江上祭之 名其石曰義妓巖 刻一帶長江千秋義烈八字 其巖亦名落花巖 盖以妓之沈江 譬之落花云.)

위의 내용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분은 '논개(論介)는...'에서부터 '...맹세한다고 했다.'까지, 그리고 둘째 부분은 '그리하여 (왜적은)...'부터 '...크게 놀랐다.'까지, 셋째 부분은 '난이 평정(平靜)된 뒤...'부터 '...비유(比喩)한 것이라 한다.'까지이다. 첫째 부분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기 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둘째 부분은 논개가 순국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부분은 작자가 논개의 순국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녀의 공(功)을 추모(追慕)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의 글의 전체적 흐름으로 보아 작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이미 앞의 유몽인의 《어우야담》 가운데 논개의 순국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熟知)하고 있었으며, 그 숙지하고 있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에다가 자신이 또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좀더 구체적(具體的)이면서 합리적(合理的)으로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즉 유몽인의 《어우야담》 가운데에는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의 이야기가 없으나 이 글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진주성이 함락되어 성 안에 있던 6만여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새로 언급되고 있다. 또 논개가 왜(倭)를 끌어들여 안고 강물에 함께 죽었다고 《어우야담》에는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왜적의 장수(倭將)'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2. 시문(詩文)에 나타난 논개

앞에서 살펴본 바 11건은 금석문이거나 산문(散文)으로 되어 있

다. 논개에 관한 시문(詩文)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략(大略)만 열거(列擧)하기로 한다.

논개의 순국에 대하여 시문으로서 최초의 것은 정식(鄭奭, 1683~1746)의 '의암(義巖)'이란 제목의 한시(漢詩)가 있다. 정식은 당시 경상우병마사 최진한(崔鎭漢)에게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전거(典據)를 수집 제공한 학자이다. 그는 이 시에서 논개가 이바위 위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물에 몸을 던져 순국한지 어언 천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이름과 거룩한 순국 정신이 아직까지 이 남강물과 의암에 새겨져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뒤 허회(許澮, 1758~1829)가 지은 '축석루(矗石樓) 차판(次板) 상운(上韻)'이라는 시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정약용의 '축석회고(矗石懷古)'가 있고,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의 칠언절구(七言絶句)로 된 '의기사(義妓祠)'가 있으며, 박치복(朴致馥, 1824~1894)이 쓴 오언 70구(五言七十句)로 된 '논개암(論介巖)'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박치복이 쓴 '논개암'은 서시(序詩)에서 축석루에 서려있는 충열(忠烈)들의 영혼(靈魂)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둘째 시에서는 논개의 절의(節義)를 찬양하고 있으며, 셋째 시에서는 논개의 출생에서 순국까지를 70구(句)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려내고 있다. 이는 논개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알려 주는 장시(長詩)이다. 이 박치복의 시를 통하여 논개의 출생과 기녀(妓女)가 된 기구한 운명·성품·진주성 싸움의 상황·왜적의 축석루 축석루 잔치와 그녀가 왜장을 유인하는 장면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겠다.

기타 여러 시문객들이 쓴 시문이 있으나 본책 '시문(詩文)에 나타난 논개(論介)의 충절 정신(忠節精神)' (朴基政)에서 상세히 논구(論究)하고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Ⅲ〕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역사(歷史)란 것은 변화(變化)라는 것을 무시(無視)하고서는 존재(存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自然)·인간(人間)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항상 갱신(更新)하고 발전(發展)하며 또 붕괴(崩壞)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단(不斷)한 변화는 단순히 양적(量的) 변화와 같은 직선적(直線的)인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과정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과거(過去)의 반복(反復)도 아니라 하겠다. 역사의 변화는 낡은 질적(質的) 상태(狀態)에서 새로운 질적 상태(狀態)로, 그리고 단순(單純)한 것에서 복잡(複雜)한 것으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사란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서술(敘述)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계(自然界)의 현상(現象)은 직접적(直接的)으로 인식(認識)할 수 있지만 역사적 과거는 인간의 정신(精神)의 활동(活動)으로 재생(再生)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 각종 문헌이 만들어진 년대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 당시 진주 지방의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던 논개의 순국

에 관한 내용을 야담(野談)과 설화(說話)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 2년 1월 서기 1624년 이후로 《어우야담》 가운데 논개의 의거(義舉)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根據)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암기(義巖記)〉는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 오두인(吳斗寅)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의암(義巖)’이라 쓰여진 두 글자와 바위 그리고 《어우야담》의 내용을 구체화(具體化) 내지는 사실화(事實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의암기〉가 쓰여짐으로서 논개의 의거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인(公認)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다.

소계문(疏啓文)은 순조(純祖) 31년 서기 1831년에 《충렬실록(忠烈實錄)》이라는 이름의 책 속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훨씬 이전의 기록들로서 논개에 관한 역사적(歷史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 기록들에 의해 마침내 논개의 순국(殉國) 사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어 정려(旌閭)의 은전(恩典)까지 조정(朝廷)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기전(義妓傳)〉은 영조(英祖) 16년 서기 1739년 이후로 《어우야담》에서 비롯된 논개의 사적들이 이 〈의기전〉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차원(國家的次元)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근거가 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논개의 의거를 그녀의 충성심(忠誠心)과 지략(智略)에 의한 행동으로 평가(評價)함으로써 논개의 사적이 좀더 객관성(客觀性)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가 쓰여진 년대는 1780년경으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 서기 178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가 보수(補修)하였다. 이 의기사를 보수한 뒤 의기사기가 쓰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 〈진주의기사기〉는 논개의 순국을 '절열(節烈)' 과 '충의(忠義)' 가 함께 지켜졌다고 평가(評價)된데에서 그 의의(意義)를 찾을 수 있다. 즉 논개의 순국을 여인으로서의 '의열(義烈)' 과 신하되는 백성으로서의 '충절(忠節)' 을 함께 승화시킨 행동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 하겠다. 이 내용은 논개 사적에 대한 그동안의 무시(無視)되었던 바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를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과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뒤 늦게 간행되기는 하였지만 논개의 출생지와 생애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보완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논개의 출생지가 어느 곳인지 몰랐다가 이들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논개는 장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한편으로는 최경회(崔慶會)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는 논개가 장수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밝혀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攄名碑)' 와 《호남읍지(湖南邑誌)》는 가장 뒤늦게 제작되긴 하였지만 이 문헌에서는 논개의 인품(人品)을 짐작케 하고 논개가 장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밝혀 놓고 있다.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 와 《호남읍지》는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과 《호

남삼강록(湖南三綱錄)의 내용을 참고(參考)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헌적 기록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민담(民譚)이나 설화(說話)에 근거한 것이었겠지만 그 단순한 민담이나 설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根據)가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민담이나 설화가 유포(流布)될 때에 점차 변형(變形)되어 때로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갈고 닦아져 정밀(精密)하게 사실(事實)과 일치(一致) 내지는 사실에 가깝게 부합(附合)될 수도 있다고 본다. 논개의 사적에 관한 앞의 문헌들은 후자(後者) 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헌들을 시간을 두고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논개의 출생(出生)과 생애(生涯)도 구체적(具體的)으로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시문(詩文)에 나타난 논개(論介)의 충절 정신(忠節精神)

時調詩人·文學博士
박 기 정

1. 서언(序言)

중국 전한대(前漢代)의 문인(文人)인 가의(賈誼)는 그의 <봉조부(鵬鳥賦)>에서 '탐욕(貪慾)한 사람은 재물(財物)에 목숨을 걸고, 권세욕(權勢慾)이 강한 사람은 그것에 끌려 죽고, 범용(凡庸)한 사람은 그저 생명(生命)을 탐하고 아낄 뿐이지만, 의열(義烈)한 사람은 명예(名譽)에 목숨을 건다'고 노래하였다. 조선(朝鮮)의 긴 역사(歷史)를 돌이켜볼 때 왕(王)·후(侯)·장(將)·상(相)도 많았거니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기층 민중(基層民衆)이 뿌린 피로 이 강토(疆土)를 지탱해 왔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

나 그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역사의 한 장(章) 조차도 할애(割愛)받지 못하여 왔다.

우리 나라 역사를 통해 충열(忠節)·의열(義烈)을 실천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미 그 이름 조차 잊혀져 버렸거나, 또 어떤 이는 그의 사적(事蹟)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생애와 업적이 산질(散佚)되어버렸다고 하여 사적(史蹟)을 남기지 못한다면 후대에게 무슨 명분이 서겠는가? '의인(義人)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남겨졌을 때 진실로 역사는 존재하게 된다'고 사마천(司馬遷)은 그의 역사적 사명 의식에 대하여 『사기열전(史記列傳)』의 자서(自序)에서 밝힌 바가 있다. 선대(先代)의 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후세(後世)들은 웃짓을 여미고 자신들의 존재를 재삼 확인하는 것이다.

일연선사(一然禪師)가 『삼국유사(三國遺事)』(고려 25대 忠烈王 11, 1285)를 저술한 의도는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 17대 仁宗 23, 1145)가 일사(逸史)가 많았음이 아니던가? 유사유문(逸事遺聞)이라고 하여 사실(史實)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정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역사적 사실이 아님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암(義巖) 논개(論介)의 사적에 대한 탐구는 필요하며, 그에 대한 후대인의 칭송은 역사를 장식하는 한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칭송되는 민족 정신의 한 표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재하는 논개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해명은 어디까지나 역사학(歷史學)의 몫이며, 역사 속의 인물로서 논개의 출생(出

生)·성장(成長)·성품(性品)·업적(業績) 등의 모든 행적이 문학가(文學家)에 의해 재구성되어 독자들에게 인지(認知)됨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감동으로 이어져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머물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구히 기억되는 인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은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사실성(事實性)과 진실성(眞實性)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를 그 소재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의미있는 일이다.

18세기 영국(英國)의 문학사가(文學史家)인 토마스 와튼·Thomas Warton은 그의 《영시(英詩)의 역사(歷史)》(History of English Poetry, London, 1774)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의 한 방법으로서 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社會的) 내용(內容)'을 들었다. 사회적 내용 즉 작품 속에 담고 있는 사회적 사건(事件), 관습(慣習), 문명사(文明史), 국가적(國家的) 운명(運命)들은 곧 역사의 재원(材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6세기 말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국가적 운명 속에서 논개가 보여준 충절(忠節)은 곧 문학 작품의 소재(素材)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되며, 그대로 역사의 재원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본고에서는 논개 절의(節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생애를 다룬 시 편(詩篇)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수집하여 일별(一瞥)하고, 그 시문(詩文)에 나타난 논개의 충절정신(忠節精神)을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시문학(詩文學)의 올바른 가치 평가와 아울러

러 시공(時空)을 초월한 한민족(韓民族)의 정신사적(精神史的) 확립(確立)이라는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문학이라고 하면 그 문학적 장르가 다양하여 논의의 대상이 광범위하다. 한국 시문(詩文)의 범위는 구비문학(口碑文學)으로서 민요(民謠)가 있는가 하면, 전통 시가(傳統詩歌)로서 시조(時調)와 가사(歌辭)가 있고, 또한 한시(漢詩)가 있으며, 현대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요와 가사와 현대시는 시 편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학계(學界)에 발표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한시와 시조시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한시(漢詩)에 나타난 논개(論介)의 정신(精神)

논개의 충절을 노래한 한시(漢詩)는 십 수편에 이른다. 우리 시사(詩史)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이처럼 많이 애송(愛誦)되어진 예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논개가 순절한 당시(조선 宣祖 26년, 1593)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의 시 편들을 찾아보니 대략 다음과 같았다.

1. 許澮(1758~1829) <蠹石樓次板上韻>(七言律詩)

(『濂湖文集』卷1)

2. 丁若鏞(1762~1836) <蠹石懷古>(七言律詩)

(『與猶堂全書』第1集1卷)

3. 崔秉軾(1867~1928) <登臺石樓>(七言律詩) ··· (『玉澗集』卷1)
4. 金昌淑(1879~1962) <臺石樓次板上韻>(五言律詩)
(『心山遺稿』卷1)
5. 鄭栻(1683~1746) <義巖>(七言律詩) ····· (『明庵集』卷1)
6. 李止淵(1777~1841) <義妓祠>(七言絕句) ··· (『希谷集』卷1)
7. 朴致馥(1824~1894) <論介巖>(五言七十句)
(『晚醒先生文集』卷3)
8. 金澤榮(1850~1927) <義妓歌>(五言絕句)
(『韶濩堂詩集』卷2)
9. 黃玪(1855~1910) <義妓歌>(七言律詩) ····· (『梅泉集』卷3)
10. 安鍾彰(1865~1918) <義妓巖>(五言十句) ··· (『希齋集』卷1)
11. 金昌淑(1879~1962) <義妓巖>(五言絕句) ··· (『心山遺稿』卷1)

앞의 시 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배경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고 감회에 젖는 회고적(懷古的) 시 편들과 다른 하나는 의암 논개의 생애를 통한 그의 절행(節行)을 보다 적극적으로 칭송·추모하는 시 편 들이다.

(1)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회고적(懷古的) 시(詩)

회고적 성격을 띤 시 편들은 주로 진주성(晉州城)을 끼고 한맺힌 역사를 간직한 채 유유히 흐르는 남강(南江), 남강변 험준한 절벽 위 '의암(義巖)'에서 의연하게 절의(節義)를 단행한 논개, 그 위 언

덕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축석루(矗石樓)에 서린 충혼(忠魂)들, 그리고 논개의 충절(忠節)을 기리는 의기사(義妓祠)들을 통하여 논개의 삶을 회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축석루는 진주 일대의 절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름있는 누각(樓閣)으로서 예로부터 시인(詩人)·유객(遊客)들의 발길이 잦던 곳이다.

축석루에서 회고하다

矗石懷古¹⁾

바다 동쪽 오랑캐를 바라본 지 그 오랜 세월,
 붉은 누각은 높고 멀리 산과 언덕을 베었네.
 옛날의 그 물결 위엔 꽃같은 가인의 춤이 어리고,
 단청 동자기둥엔 장사의 노래 길이 남았네.
 전쟁터의 그 봄바람은 초목을 휘감고,
 쓸쓸한 성의 밤비에 물안개 불어나네.
 지금도 사당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남아있는 듯,
 삼경에 촛불 켜고 강신술을 올리네.

蠻海東瞻日月多
 花潭舊照佳人舞
 戰地春風回艸木
 只今遺廟英靈在

朱樓迢遶枕山阿
 畫棟長留壯士歌
 荒城夜雨漲煙波
 銀燭三更酌酒過

1)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卷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19세 때 그의 장인(丈人) 홍화보(洪和輔)의 청에 따라 <지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었다. 그의 장인은 그무렵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都使)의 관직으로 임지(任地)가 진주(晋州)인데, 다산이 그를 뵈러 갔을 때 마침 축석루와 논개 사당을 새로 보수 공사하였고, 다산의 훌륭한 문장을 빌어 그것을 기념하였던 것이다. 이 시도 이 때 축석루에 올라 회고하며 읊은 것으로, 기문(記文)의 내용을 살펴 보면 시의 감회도 저절로 전달될 것이다. 그 기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 왜적들이 진주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일이다. 기생으로서 의로운 여인(논개)이 있었는데, 왜장을 유인하여 강가운데에 바위 위에서 마주 춤을 추었다. 바야흐로 춤이 어울어지자, 그녀는 왜장을 껴안고 강물 속에 몸을 던져 같이 죽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당이다. 아! 어찌 장하고 장하며 훌륭한 부인이 아니던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과감히 적장을 죽이고 조국에 몸을 바쳤으니, 이로써 국가와 민족의 의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찬란히 빛나게 되었으니, 이는 한 성(城)의 실패점으로 문제시 될 일이 아니다.……」²⁾

진주성 싸움에서 축석루가 삼장사(三壯士)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2) 상계서, 第一集, 卷二, <文·晋州義妓祠記>

‘昔倭寇之陷晋州也 有妓義娘者 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 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而眇小一女子乃能殲賊酋 以報國 則君 臣之義然曠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不足恤也……’

싸울 것을 다짐한 유적(遺蹟)의 현장이라 한다면, 의암(義巖)은 논개의 충절을 상징하는 유적으로서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산물(産物)인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의절(義節)의 주체(主體)로서 삼장사와 논개의 순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새로 단청(丹青)된 축석루의 기둥에서 삼장사의 기상(氣像)을 느끼고 남강 물결 위에서 논개의 춤추는 모습이 남아있는 듯한 감회에 젖는다. 또한 논개를 추모하는 사당(祠堂)에서는 그의 거룩한 영혼이 느껴지는 듯하다고 술회하고 있다.

회고시들이 대개 축석루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것은 현판(懸板)의 운(韻)에 따라 제영(題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를 보자.

축석루 현판의 운을 따라

矗石樓次板上韻³⁾

지난 세상 묻고자 하나 강물만 동으로 흐르고,
저물어가는 모래톱에 갈매기만 외롭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은 목숨을 던지지만,
시절이 평화로울 때 시인은 누각에 의지했다.
붉게 떨어지는 바위 꽃은 장한 혈기로 뭉쳤고,
푸르른 강풀에는 의로운 기생의 수심이 서렸네.

3) 許滄, 『濂湖文集』, 卷一.

태평한 성대에는 책이 묵고 검이 녹스나니,
큰 목소리 한 곡조로 마음껏 놀아보세.

往塵欲問水東流	只見沙鷗立暮洲
世亂忠臣踏死地	時平騷客倚高樓
巖花紅落鍾雷血	江草青留義妓愁
聖代居然書劍老	浩歌一曲恣遨遊

시인 염호(濂湖) 허회(許澮, 1758~1829)는 명승지 촉석루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촉석루는 누각(樓閣)으로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곳을 찾은 시인들은 자연히 거기서 의암을 만나게 되고, 논개의 절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촉석루에 오른 유객(遊客) 중에 의암을 노래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그만큼 의암에서의 논개의 절행은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국운(國運)의 존폐(存廢)를 눈 앞에 둔 한 여인의 충절 정신(忠節精神)이 마침내 붉은 꽃으로 강물을 물들였고, 그 절의의 대가로써 오늘 이 시인은 태평 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며 감회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암 논개는 분명 강한 혈기(血氣)로 뭉쳐진 한 떨기 붉은 꽃이다. 그래서 그는 초개(草芥)같이 푸른 강물 위에 꽃잎을 날렸던 것이다. 푸른 물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미래의 상징(象徵)이요, 강물을 물들인 붉은 꽃잎은 우리들 마음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논개의 충절 정신임을 시인은 칭송(稱誦)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시도 있다.

의기사당

義妓祠⁴⁾

봄 산초 가을 계수나무는 강가에 허허롭고,
한밤중 바람에 환패소리 쓸쓸하다.
이후로 논개 영혼 의지할 곳 있도록,
붉은 기둥 한 칸 집 성 가운데 세웠네.

春椒秋桂野汀空
從此精靈依有所

環佩淒然半夜風
一間朱棟起城中

이 시는 희곡(希谷) 이지연(李止淵, 1777~1841, 자는 景進, 본관은 全州)의 작품으로 그가 경상감사(慶尙監司) 재임시에 의기사를 중축하고 논개의 충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논개의 절의에 대한 적극적 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 말기 곧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국가 위난(國家危難)의 시기였다. 불법적(不法的)이고 강제적(強制的)으로 치러진 1905년의 을사조약(乙巳條約, 5條約)과 1910년의 국치(國恥)로 우리는 국권(國權)을 빼앗기는 치욕(恥辱)을 격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우리의 의사(義士)와 지사(志士)들은 곳 곳에서 일본 요인들과 친

4) 李止淵, 『希谷集』, 卷一.

일 매국노(親日賣國奴)들을 암살(暗殺)하기도 하고, 신문지상(新聞紙上)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여론(輿論)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사(儒士)들은 농민들과 지방군과 합세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국에서 무력 항일 투쟁(武力抗日鬪爭)을 벌이는가 하면, 우국(憂國)의 시(詩)를 남기고 자결(自決)한 애국지사(愛國志士)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일부 선비들은 입신(立身)에 뜻을 버리고 초야(草野)에 숨어버리거나 일부 선비들은 일제(日帝)의 식민 통치(植民統治)에 울분을 참지 못해 충열(忠烈)로 순국(殉國)한 조상의 유적지를 찾아 오늘의 시국(時局)을 통분하며 한(恨)을 삭히기도 하였다.

성주(星州) 출신으로 유학자(儒學者)이며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인 김창숙(金昌淑, 1879~1962, 자는 文佐, 호는 心山, 본관은 義城)은 그러한 후자의 대표적 인물로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촉석루현판의 운을 따라

矗石樓次板上韻⁵⁾

전 세상 말하려하니 분한 눈물 흘러,
힘없이 고개 돌려 옛 강가 바라본다.
이 금수강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던가.

5) 金昌淑, 『心山遺稿』, 卷一.

비바람에 황량한 장사 누각 뿐이구나.
 대독으로 호령하던 일 옛 꿈인 듯 희미하고,
 왜놈들 날뛰니 새로 걱정 생기네.
 의기암 강가엔 물결만이 분노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속절없이 노니는가.

欲說前塵憤淚類	悄然回首古汀洲
江山繡錯誰家物	風雨荒涼壯士樓
大纛號令迷舊夢	小酋橫突釀新愁
娼娥岩畔波猶怒	我輩何心汗漫遊

일찍이 진주성 전투에서 의연(毅然)히 순국한 삼장사와 논개의 절의는 어디에 가서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또다시 나라를 빼앗긴 이 시점에서 시인은 충절의 혼(魂)이 서린 촉석루와 의암을 찾아 순국의 정신을 되새긴다. 시인은 오늘의 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의암 논개의 충절 정신에서 일깨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의암가의 강물결이 분노하고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조선 말의 학자로서 최병식(崔秉軾, 1867~1928, 자는 孟車, 호는 玉澗, 본관은 慶州)이 있다. 그는 경북 합천(陝川)에 사는 선비인데 10년 전에 촉석루를 찾았던 일을 회고하며 그 날의 감회와 함께 논개의 절의를 노래하였다.

촉석루에 올라

登矗石樓⁶⁾

십년만에 다시 찾은 촉석루,
 긴 강만 외로이 성을 안고 흐르네.
 적막한 옛 언덕에는 부질없는 산새들이요,
 아득하게 긴 세상 한서린 갈매기네.
 삼장사의 석잔술은 송백의 절개요,
 논개 충절의 바위는 가을의 눈서리네.
 상녀의 정화곡을 듣자니,
 아득히 놀던 옛 일 그림네.

十載重尋矗石樓	長江獨自擁城流
古邱寂寞啼山鳥	浩劫蒼茫恨岸鷗
壯士三杯松栢節	義妓一石雪霜秋
忍聽商女庭花曲	往事蒼茫憶舊遊

여기에서는 수난당한 민족적 울분이나 한맺힌 망국적(亡國的) 비애감(悲哀感)보다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촉석루에 서린 삼장사와 의암에 얽힌 논개의 충절 정신을 기리는 조금은 소극적(消極的)인 역사 의식(歷史意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삼장사를 송백(松栢)의 절개에, 그리고 의암을 가을의 눈서리에 기탁(寄託)하여

6) 崔秉軾, 『玉潤集』, 卷一.

그들의 순국(殉國)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촉석루와 의암은 삼장사와 논개의 유적지인 동시에 충절과 의열의 한 장(場)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논개(論介)의 충절 정신(忠節精神)에 대한 적극적 시문(詩文)

의암 논개의 절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찬양·칭송하는 시 편들은, 주로 장수(長水) 풍천(楓川)에서 출생, 천부적으로 타고난 정절(貞節)의 기품(氣稟),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쳐 기녀(妓女)가 된 논개의 운명적(運命的)인 삶, 촉석루 아래 의암(義巖)에서 왜장(倭將)을 안고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져 순국한 사실, 사후 그녀의 충절 정신을 기리는 의기사(義妓祠), 역사에 길이 빛날 그의 이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시를 통하여 살펴 보자.

의암에서

義巖⁷⁾

형세의 빼어남이 남쪽 고을에서 으뜸인데,
 의로운 여인의 자취가 이 강가에 남았구나.
 천 년의 슬픈 원한 강물결도 흐느끼고,
 만고의 아름다운 이름 바위에까지 남았구나.
 적막한 외로운 성 구름은 산골에 흩어있고,

7) 鄭栻, 『明庵集』, 卷一.

쓸쓸히 지는 낙엽, 달은 가을을 머금었네.
바람을 맞고 이렇게 우뚝 섰자니 마음이 저려와,
어렴풋이 먼 데 푸른산 보며 나루에서 눈물짓네.

形勝南州第一區	義娥遺躅此汀洲
千年哀怨江波咽	萬古芳名石面留
寂寂孤城雲銷峽	蕭蕭墜葉月籠秋
臨風最是傷心處	翠黛依稀泣渡頭

이 시는 조선(朝鮮) 숙종(肅宗)·영조대(英祖代)의 학자 정식(鄭
栻, 1683~1746, 자는 敬甫, 호는 明庵, 본관은 晉州)의 작품인데,
그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형(大亨)의 손자로 일찍이 과
거(科擧)를 보러 나갔다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김지순(金之純)
이 쓴 척화소(斥和疏)를 읽고 당세에 영리(榮利)를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항상 패랭이를 쓰고 명산(名山)을 유람(遊覽)하다 만년에는
두류산(頭流山) 속에 암자(庵子)를 짓고 여생을 마친 사람이다.

더욱이 시인은 진주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논개의 포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순국 사실에 관한 전거(典據, 柳夢寅의 『於于野
談』)를 수집하여 당시 집권 세력과 가까운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
馬使) 최진한(崔鎭漢)에게 제공(1721, 景宗 원년)한 사람이었기에
논개에 대한 그의 추모(追慕)의 정(情)이 얼마나 각별했는가는 짐
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정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정문부(鄭文孚)의 종증손

(從曾孫)이자 친명배척파(親明排淸派)의 인물로서 국운이 명척청화(明斥淸和)로 기울어짐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전국 명산대천(名山大川)을 행운 유수(行雲流水)하다 오늘 남강변 의암에 서고 보니 그 날의 절행(節行)에 새삼 감개(感慨)가 무량(無量)하였다. 조선의 한 가녀린 여인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바위에서 왜장을 안고 남강물에 몸을 던져 순국한지 어언 천 년(千年)이 흘렀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과 거룩한 정신은 아직도 이 남강물과 의암에 새겨져 오늘에 남아 전하고 있음에 감격하는 것이다.

의암의 절행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시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압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박치복(朴致馥, 1824~1894, 자는 致馥, 호는 晩醒, 본관은 密陽)이 지은 <논개암(論介巖)>이라는 작품이다. 이 시는 서시(序詩)에서 촉석루에 서린 충열들의 영혼을 기림, 둘째 시에서는 논개의 절의를 찬양, 셋째 시는 총 70구로, 출생에서 사후까지 논개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그려낸 한편의 서사시이다. 셋째 시는 다시 4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논개의 출생·성장과 성품, 제2부는 진주성 전투의 참혹함, 제3부는 논개 절의의 결행과 왜장의 죽음, 제4부는 논개 정신의 영원함 등 네 부분으로 되어있는 장시(長詩)이다. 그러면 직접 시를 살펴 보면서 그 가운데 표출된 논개의 생애를 조명하여 보자.

논개암에서

論介巖⁸⁾

8) 朴致馥, 『晩醒先生文集』, 卷三.

(序詩) : 본 시의 배경, 진주 남강 위에 서있는 촉석루와 의암의 장엄한 서경, 거기에 서린 충성스런 영혼을 기림.

남강물은 만길이나 깊고,
강바위는 천길이나 높구나.
그 위에 백척의 높은 누각 있어,
장사들의 충혼이 머리카락 솟게 하네.

江水萬仞深

江巖千丈直

上有百尺高樓

壯士忠魂髮衝冠

(둘째 시) : 여인의 몸으로 왜장을 죽인 절행(絶行), 그로 인하여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음을 칭송함.

살아서 욕됨이 미치지 않고자 하더니,
미천한 몸이 진실로 욕을 보게 되었네.
왜장 하나 죽인 일들이라 말하지만,
현인들은 오직 왜적 하나 만이라고 하지 않네.
작은 여인이 왜장하나 죽인 것이,
왜적들의 자만스런 웃음 그치게 했네.

生不欲被汚

鱗介誠爲辱

等是死殲一倭酋

尙賢已莫道壹倭

少人穢壹倭

倭且休堪笑

(셋째 시) : 내용상 본장에 해당되는 장시. 4부로 구성.

제1부 : 창루의 풍경과 기녀가 된 논개의 운명, 그리고 천성적(天性的)인 그녀의 정량(貞諒)한 기품(氣稟)을 묘사함.

여인들이 노래하며 걸어다니니,
 오고가는 발길에 강둑 풀이 노랑구나.
 구름은 등실 떠 오동나무 꽃을 어루고,
 요염한 여인이 창문으로 고개 미네.
 집집마다 천자의 아들 돈쓰듯,
 노래와 웃음, 다투어 봄을 간지럽히네.
 첩(논개)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움에 떨어져,
 몸은 창루 가에 맡겨졌네.
 꽃다운 나이 열여섯인데,
 다만 우뚝한 자태 가련하구나.
 천성은 본디 곧고 미빠서,
 내치고 싶어도 결코 버릴 수 없다네.

步出閨閣曲

井井黃蘗塢

英英刺桐花

冶豔當函戶

千家錢樹子	歌笑爭春妍
妾生墮髮衫	寄身娼樓邊
芳年屬破瓜	多姿最可憐
天性苦貞諒	欲罷不能忘

제2부 :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략으로 도성(都城)이 도륙(屠戮)을 당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위태롭고, 진주성(晋州城)도 왜적의 침공으로 6만의 성민(城民)이 같은 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일을 묘사함.

나라의 운명이 임진·계사년의 간난 속에서,
천한 오랑캐(왜구)에게 오래토록 짓밟혔네.
관리들 사로잡혀 욕을 당하고,
종묘와 도성도 송두리째 타버렸네.
날 저물어 기둥에 의지하며 생각에 잠긴데,
긴 칼 끝에 초생달 모아드네.
고립된 성의 담장이 무너지니,
견고한 진주성도 지킬수가 없구나.
슬프다! 육만의 성민들이여,
관민이 한 날에 죽음을 맞았네.

天步屢辰巳

醜虜長蹂躪

衣冠辱俘據
日夕倚柱念
孤城乏儲胥
哀哀六萬人

廟都隨灰燼
蛾眉攢脩劍
坐失金湯險
同日爲猿鶴

제3부 :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축석루(矗石樓)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논개(論介)가 그 자리에 들어가 왜장(倭將)을 유인 함께 바위 아래 강물로 뛰어드는 장면을 묘사함.

탐욕한 왜장은 걸상에 의탁한 채,
술에 흠뻑 취해 방자히 지껄이며 기롱한다.
미련스레 꺾꺾웃으며 짐승처럼 나대더니,
끌어내어 매질하며 제멋대로 음탕하다.
단칼에 죽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욕되게 목숨을 마친다면 무슨 도움이 되리오.
피를 내고 곧 일어나서,
기쁘게 그를 따라 춤을 추네.
높은 누각은 시 읊기에 좋지 못하나,
강가의 바위는 크고 넓어 믿을만 하단다.
손을 끌고 가면서 원하여 말하기를,
어두워질 때까지 노닐자 하더라.
어리석은 왜놈은 이미 정신이 녹아서,

그 말 따라 응락을 하였네.
 위험한 바위는 절벽 깎아 만들었나,
 위에는 겨우 소반하나 놓을만 한데,
 아래로는 천 길 못이 있네.
 흐르는 물결 힐끗보니 맑고 잔잔한데,
 섬뜩한 무서운 생각에 와락 끌어 안긴다.
 몸을 가까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허리를 엮어 끌어 안는다.
 힘을 써 갑자기 발을 날리니,
 만길 떨어져 풍덩 소리났네.

頑曾據胡牀
 駭渠牡牡性
 一劍諒非難
 作計乃爾立
 高樓正不韻
 願言攜手去
 癡奴魂已銷
 危巖陡戍削
 下有千仞潭
 強忍巖閃意
 緊緊抱其腰
 颯颯萬丈下

縱酒恣謹諛
 挑撻肆淫黷
 經瀆竟何益
 忻然隨俯仰
 江石洵訐廣
 徜徉窮旭
 隨語聲應諾
 上可容盤礴
 流漣澹清漣
 近身稍向前
 用力脩舉趾

제4부 : 논개의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논개와 계월향(桂月香)의 절의(節義)를 읊음.

나와 너 함께 죽었으니,
 추한 뼈는 상어와 악어의 먹이되고,
 아름다운 넋은 용궁으로 모셨네.
 용궁은 바다에 통한다 하니,
 멀리 대동강(패강)과도 통하겠네.
 대동강에도 의로운 기생이 있어,
 왜놈의 배를 칼로 찔렀다네.
 빛나는 강물 얕은 듯 깊은,
 대동강은 서북으로 흐르네.
 당대에 빼어난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어,
 어여쁜 절개 ! 그 이름, 영원하리라.

-----	吾與爾共死
醜骨餌鮫鱐	香魂侍龍宮
龍宮達于海	遙與涇江通
涇上有義妓	剗刃奴腹中
菁江淺如泓	涇水西北流
絕代兩佳人	姘節名不休

각 시 편의 구구절절(句句節節)에 배어있는 의암(義巖) 논개의

삶은 시인에게 실재(實在)하는 역사로 인식되어 진솔(眞率)한 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셋째 시의 4부에서 보이는 대동강(大洞江)가의 의기(義妓)는 임진왜란 때 평양성(平壤城) 전투에서 김경서(金景瑞, 金應瑞)를 도와 왜장(倭將) 소서비(小西飛)를 꼬여서 죽임으로써 결정적인 공을 세운 계월향(桂月香)을 말한다. 김응서(1564~1624)는 임진년(壬辰年) 평양 방위전에서 수탄장(水灘將)으로 대동강을 건너는 적병을 막았으며, 계사년(癸巳年)에는 이여송(李如松)의 명군(明軍)과 함께 빼앗겼던 평양성을 탈환하여 공을 세운 무장(武將)이다.

임진왜란사(壬辰倭亂史)에서 여인으로서 공을 세운 자가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관기(官妓)로서 왜적을 만나 욕(辱)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죽은 자를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고 유몽인(柳夢寅)은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말한 바 있다. 위의 시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하나의 여인 계월향의 절의도 의암 논개와 더불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아름다운 두 여인을 함께 칭송하고 있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획책(劃策)이 노골화(露骨化)되기 시작한 19세기 말, 구체적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체결(締結) 이후 왜적에 의한 제2의 국란(國亂)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때 뜻있는 학자나 문인들은 문장을 통하여 국운(國運)을 예언하기도 하였으며, 또는 과거의 민족사에서 구국(救國)의 정신으로 역사를 이끌었던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국운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시인이 개성(開城) 출신 김택영(金澤榮, 1850~1927, 자는 于霖, 호는 滄江, 본관은 花開)이다. 창강은 1891년(고종 28)에 진사(進士)가 되어 관직(官職)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사직하고 국가의 장래를 통탄(痛歎)하다가 1908년 중국(中國)으로 망명(亡命)하였다.

시인은 본 시의 서두(序頭)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진주(晋州)에 논개(論介)라는 기생(妓生)이 있었는데 선조(宣祖) 임금 계사년(癸巳年) 난리에 왜병(倭兵)의 장수(將帥)가 진주를 함락시키고는 기생들을 불러 앞 강가 큰 바위 위에서 놀다가 술에 취하자 논개가 적장(賊將)을 안고 강물에 빠져 함께 죽었다. 이에 나는 그 사당(祠堂)을 찾았노라」⁹⁾

라고 쓰고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의기를 노래하다

義妓歌¹⁰⁾

푸른 강물은 빛나는 그날의 치마빛이런가

9) 金澤榮, 『韶濩堂詩集』, 卷二.

‘晋州妓有曰論介者 宣廟癸巳 日本將陷晋 招妓游前 江大石上 酒酣 妓抱將落江 俱死 余既訪其祠’

강위 피는 꽃은 숨쉬는 그녀의 넋이런가
강밑에 잠겨있는 그 뼈나마 거두어
천년토록 우리들 곁에 모셔두자

江水羅裙碧	江花魂氣遲
願收江裏骨	千歲傍要離

외로운 바위에는 봄바람 스치고
쓸쓸한 사당엔 이끼만 무성하다
오늘 강가를 거니는 여인들은
물에 비친 그 모습 곧 미인일세

孤石春風厲	荒祠蘚色滋
至今江上女	照水正蛾眉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춤추는 그대 모습
얼마나 고왔으랴 그대의 머리단장
내 이제 와 그대의 서린 원한 물어보니
강물만 소리없이 흐르고 흐르네

愛娘眞珠舞	愛娘錦纏頭
我來問芳怨	江水無聲流

10) 상계서.

시인은 이 시에서 진주 의기 논개가 왜장을 안고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절의에 대한 감회(感懷)를 노래하고 있다. 강 언덕에 피는 꽃은 논개의 녀이요, 그의 정신은 천 년(千年)토록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논개는 한국 여인(韓國女人)의 충절(忠節)의 상징(象徵)이며, 그래서 오늘의 한국 여인들도 모두 미인(美人)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에서는 시인의 감회와 심경(心境)을 읊은 것으로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心情)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개의 출생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충절 정신을 노래한 시(詩)가 있다. 시인 황현(黃玹, 1855~1910, 자는 雲卿, 호는 梅泉, 본관은 長水)은 학자·우국지사(憂國志士)로 1885년(고종 22) 생원시(生員試)에 장원(壯元)했으나 시국(時局)의 혼란함을 개탄(慨歎)하고 은퇴하여 향리(鄉里)에서 지냈다.

의기를 노래하다

義妓歌¹¹⁾

풍천나루의 강물은 아직도 향기로우니,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씻고 의로운 논개에게 절하노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적장을 죽였던가?
죽음을 각오한 채 거룩한 뜻을 단행했네.

11) 黃玹, 『梅泉集』, 卷三.

장계의 연로자들은 고향 사람이라 자랑스러하고,
 촉석루에서는 단청하고 순국함을 제사지낸다.
 화려한 왕조 돌아보면 인물이 많았다 하지만,
 기생이었어도 오랜 세월 그 이름 한결같이 빛나리.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產	矗石丹青祭國殤
追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풍천(楓川)은 장수(長水) 임현내면(任縣內面)의 마을이다. 논개가 풍천 태생임은 1872년(고종 9)에 편간된 『호남읍지(湖南邑誌)』 가운데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 절의편(節義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논개가 장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으로 이보다 앞서 1800년(순조 즉위)에 편간된 『湖南節義錄』과 1839년(헌종 5)에 편간된 『湖南三綱錄』에도 기록되어 전한다.

매천(梅泉)이 우국(憂國)의 심회(心懷)를 안고 찾은 곳이 바로 논개의 생장지(生長地)인 장수 풍천 땅이다. 그는 이 곳에서 논개의 충열에 큰 감화를 받는다. 시인은 풍천에 들러 몸을 정갈하게 하고 논개를 향해 경건(敬虔)히 배향(拜向)을 하고 선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한 목숨 아까와 하지 않고 기꺼이 나라에 바치겠다는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감복(感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논개의 장한 죽음은 장수 온 고을의 자랑이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빛이 되어 그 이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 후 매천은 결국 1910년(융희 4) 경술년(庚戌年)의 국치(國恥)에 통분하여 절명시(絶命詩) 4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구한말(舊韓末) 일본(日本)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쇠퇴해 갈 무렵 학자로서 안종창(安鍾彰, 1865~1918, 자는 致行, 호는 希齋, 본관은 慶州)이 있어 논개의 절의시(節義詩)로서 시국의 위태로움에 직면하여 잠자는 우리 민족 정기(民族精氣)를 일깨우려 하였다.

의기암에서

義妓巖¹²⁾

한 여인이 의롭게 죽었으니,
 곰과 물고기의 덕이라 하겠네.
 밝게 빛나는 청정한 자태여!
 늠름하고 결백한 지조여!
 왜장 한 놈 죽였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네.
 한 작은 여인이라 말하지 마라,
 만 장부의 팔뚝처럼 떨쳤다네.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갈지 못하니,
 천년의 의암 언제나 남아있네.

12) 安鍾彰, 『希齋集』, 卷一.

女子死於義
濯濯冰玉姿
莫謂一倭死
莫謂一女小
江流石不磨

熊魚判容易
凜凜霜雪志
萬膽同日墜
能奮萬夫臂
留得千載義

시인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논개의 표상(表象)을 청정(淸淨)한 자태(姿態) 늠름한 지조(志操)라고 했으며, 그것은 바로 웅어(熊魚)의 덕행(德行)이라고 찬양한다. 비록 그의 목숨을 왜장 하나와 맞 바꾸었다고 하나 그로 인하여 모든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니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이 어찌 장하지 아니한가? 그녀의 조국에 대한 충절 정신은 천 년 만 년 민족과 함께 길이 남을 것이라고 시인은 칭송한다.

이무렵 유학자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은 논개의 충절을 칭송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쇠락해 가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

의기암에서
義妓巖¹³⁾

기특하고 아름답도다! 이 나라 역사 위에,
기녀로서 의암이 있었다네.

13) 金昌淑, 前掲書, 卷一.

꺾어씹아구나! 고기 씹는 작자들,
 나라 버리고서 무엇을 그리 탐하느냐?
 의기사는 바위 위 언덕에 높은데,
 남강물은 의암 아래로 흐르네.
 지금의 탐욕스런 부자들아,
 의암의 충절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는가!

奇絶青邱史
 咄哉肉食子
 祠高巖上岸
 卽今封豕食

娼家有義巖
 負國尙何饑
 水咽岩下潭
 此義少人傷

김창숙은 1909년 명성학교(星明學校)를 창립 육영 사업(育英事業)에 종사하고, 을사오적매국성토문(乙巳五賊賣國聲討文) 상소 사건(上疏事件)으로 옥고(獄苦)를 치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해외로 망명, 전국 유림 대표들이 서명한 한국 독립을 호소한 유림단진정서(儒林團陳情書)를 휴대하고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우송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암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상 충절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칭송하면서 그의 정신을 되살려 독립 정신(獨立精神)을 고취시키자고 외치고 있다. 나라가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위기에 있는데도 고기로 배를 채우고 사는 매국적(賣國的) 무리들에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다.

3. 시조(時調)에 표현된 논개(論介)의 정신(精神)

그간 우리 학계에 소개된 『교본역대시조전서(校本歷代時調全書)』(沈載完 편) · 『시조문학사전(時調文學事典)』(鄭炳昱 편) · 『한국시조대사전(韓國時調大事典)』(朴乙洙 편) · 『한국시조큰사전』(박병순 외 공편) 등의 시조집과 개인 시조집, 그리고 각 문예지(文藝誌) 등에 보이는 논개에 대한 작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논개 사후부터 현대까지의 작품들을 가능한 망라해 보려 한 것이다.

- 1) 安玟英 <蠶石樓 欄干받기>(『金玉叢部』)
- 2) 미상 <말고말근 江南水야>(『教坊歌謠抄』)
- 3) 미상 <蠶石樓 발근달이>(『教坊歌謠抄』)
- 4) 미상 <花寨秘訣>(『大韓每日申報』 제969호)
- 5) 金相沃 <蠶石樓>(『草笛』)
- 6) 鄭寅普 <晉州義妓祠迎送神曲>(『園時調』)
- 7) 張斗翰 <蠶石樓>(『아름다운 江山』)
- 8) 朴宗玉 <蠶石樓에서>(『桑園時調集』)
- 9) 李鎬雨 <蠶石樓>(『爾豪愚時調集』)
- 10) 박병순 <촉석루>(『月刊文學』 제31호)
- 11) 金貞姬 <논개사당의 백일홍>(『시조문학』 제9호)
- 12) 元容文 <남강에서>(『남강물에 촉석루 비치고』)

위의 작품(作品)들을 문학사적(文學史的) 입장에서 살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우선 1), 2), 3)은 19세기 중엽의 작품으로 고시조(古時調)에 해당되고, 4)의 작품은 20세기 초(1908)의 것이니 근대 시조(近代時調, 開化時調)이며, 5)에서 12)까지의 작품은 1945년 이후의 것으로 현대 시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전제된 시조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거개가 축석루(矗石樓)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논개 충절의 행위가 축석루와 남강가의 의암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만큼 축석루와 의암은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논개의 절행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유적지로서의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1) 고시조(古時調)에 나타난 논개(論介)

많은 고시조 가운데에서 필자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세 작품 뿐으로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고시조(古時調)가 그렇듯이 작자(作者)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었다. 논개에 관한 고시조는 시조의 유형별로 볼 때 주로 단형 시조에 취중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그 실체를 보자.

矗石樓 欄干받기 南江水碧 白鷗飛라
슬푸다 一片石은 貞忠孤魂을 실었고나
西風에 薰드러 위로할제 눈물겨워 흐노라¹⁴⁾

이 시조는 안문영(安文英, 1816~?, 자는 聖武, 호는 周翁)의 개인 가집(歌集)인 『금옥총부(金玉叢部)』에 실려 있어 작자가 안문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는 서민(庶民) 출신으로 운취가 있어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명리(名利)를 좇지 아니하는 고결한 성품을 지녔다. 또한 운유(雲遊)을 일삼고 시를 잘했으며 음율에도 정통한 조선 후기의 가객이었으니 그가 영남(嶺南)의 명승지인 진주 촉석루를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인의 시선은 촉석루 높은 곳에서 남강의 푸른 물 위를 나는 흰 갈매기를 따라 어느덧 의암(義巖, 一片石)에 머무른다. 저 일편석이 바로 나라를 위해 순사한 정충 고혼(貞忠孤魂) 논개를 실은 바위임에 시인은 그의 충절 정신에 감격하며 술잔을 들고 있다. 시인은 지금 왜장을 안고 남강물에 뛰어들기까지의 논개의 외로운 심정을 어떤 형태로든 위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안문영의 가집 『금옥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 앞 시조의 사연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진주의 촉석루 밖 남강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위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임진년 왜란 때에 왜장이 진주부 관기인 논개와 함께 이 바위 위에 올라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술이 반쯤 취하자 논개가 왜장에게 춤을 추자고 청하니 왜장은

14) 朴乙洙, 『韓國時調大事典』 4162, 亞細亞文化社, 1992. (4162는 시조집의 歌番임)

기꺼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었다. 그러다 논개가 왜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묘당(廟堂)을 세우고 그의 충열(忠烈)을 표하였다.¹⁵⁾

작자를 알 수 없는 시조로 다음의 두 작품을 보자.

(가) 말고 말근 江南水야 壬辰 이를 네 알니라
忠信과 義士덜이 몇몇치나 저난고
아마도 女中丈夫난 論娘子가 흐노라¹⁶⁾

(나) 矗石樓 발근 달이 論娘子的 녀시로다
向國한 一片丹心 千萬년에 비취오니
아마도 女中 忠義난 이 뿐인가 흐노라¹⁷⁾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위의 두 시조는 조선조(朝鮮朝) 고종대(高宗代) 정현석(鄭顯奭)이 편찬한 시조집인 『교방가요초(教坊歌謠抄)』(1872년)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다. (가)와 (나)의 시조에서는 시인이 논개를 의기(義妓)라 하지 않고 '논낭자(論娘子)'라 칭하고 있는데 이는 논개의 충의 정신과 함께 그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다. 시인은 그러면서도 그를 '여중장부(女中丈夫)' 또는 '여

15) 安玟英, 『金玉叢部』138.

‘晉州矗石樓外 南江中 有一大巖 上可以坐百人 壬辰之倭亂 倭將 與府妓論介 登此巖 飲酒而樂 酒至半酣請倭將對舞 倭將欣然而起舞 論介抱倭腰 投江而死 以此故 立廟以表忠烈’

16) 沈載完, 『校本歷代時調全書』984, 世宗文化社, 1972. (984는 歌番임)

17) 박을수, 전계서, 4163.

중충의(女中忠義)'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갓 가녀린 여성으로서의 논개가 아닌 장부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절행(節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요, 예우(禮遇)라 하겠다.

(가) 에서는 진주(晉州) 남강(南江)이라는 배경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배출된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들을 칭송하면서도 그 가운데 특히 논개의 충의 정신을 제일로 꼽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는 (가)와 같은 성격의 노래이다. 시인은 특히 1행과 2행에서 논개(論娘子)의 충절을 촉석루와 이 강토를 비취주는 달에 비유(譬喩)함으로써 오직 한 마음으로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세련된 은유(隱喩)를 사용하여 시상(詩想)을 한껏 높여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2) 개화 시조(開化時調)에 나타난 논개(論介)

우리 나라가 최초로 외국(外國)과 국교(國交)를 가지게 된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때부터이다. 그 때는 아직도 우리가 신문화(新文化)를 받아들일 만한 겨를이 없었으므로 실제적인 우리 나라의 개화기(開化期)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우리 시조문학사(時調文學史)에서 개화 시조(開化時調)란 대체로 갑오경장(1894) 이후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에 이르기까지의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문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

하는 시기였으니 그것이 바로 1905년에 강제로 체결된 한일협약(韓日協約, 乙巳條約)이었다. 이 때 언론 기관은 국민의 여론을 환기(換氣)시켰고, 이에 자극되어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우리 온 국민은 분노하여 일어났다. 이무렵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발행된 <독립신문(獨立新聞)>(1896)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5) · <대한민보(大韓民報)>(1909) 등은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권 의식(民權意識)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섰고, 특히 <대한매일신보>와 <대한민보>는 많은 개화 시조를 싣기도 했으니 논개에 대한 순국(殉國)의 충절(忠節)의 시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매일신보>(제969호, 1918년 12월 4일자) '사조(詞藻)'란에는 다음의 <화채비결(花寨秘訣)>이란 시조가 발표되었다.

論介는 우리 祖上 桂月香은 우리 先生
 殺身成仁 그 忠節은 千萬年에 빛나도다
 우리도 더를 模範하야 視死如歸¹⁸⁾

시인은 이 시조에서 논개와 계월향을 같이 노래하고 있다. 논개와 계월향은 기녀이면서도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쳐 충절을 지킨 인물들이다. 그동안 논개의 충절 순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계월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계월향은 임진왜란 당시 평양(平壤)의 기생(妓生)으로 평안도 방

18) 박을수, 전계서, 4754.

어사(平安道防禦使) 김응서(金應瑞, 景瑞)를 오라비라고 속여 함께 평양성으로 들어가 왜장(倭將) 소서비(小西飛)를 죽이게 도와주고 적(賊)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신도 김응서로 하여금 죽이게 한 충절의 여인이다.

그런데 본 시조의 초·중장에서는 논개를 '우리 조상(祖上)'으로 계월향을 '우리 선생(先生)'으로 나란히 대접하면서, 그들의 살신충절(殺身忠節)이 우리의 역사 위에 영원히 빛날 것임을 칭송하고 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우리들도 오늘의 이 시국에 즈음하여 논개와 계월향의 충절 정신을 본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국(輔國)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조시(時調詩)를 통하여 논개와 계월향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인물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하려는 수난(受難)의 시대에 다시 살아나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민족 정신(民族精神)을 일깨움으로써 참 조상으로 또는 참 선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1910년 국권이 빼앗긴 뒤부터는 이러한 애국심(愛國心)을 고취(鼓吹)시키는 시조 작품을 찾아 볼 수 없다.

(3) 현대 시조(現代時調)에 나타난 논개(論介)

암흑기(暗黑期)가 지나고 해방(解放)이 되자 안으로만 갇혀 있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이 때 개인 시조집(時調集)들이 많이 등장하여 문학계(文學界)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무렵 발표된 작품들을 발표지(發表誌)의 연대순으로 보면, 장두한(張斗翰)의 <축

석루)를 비롯하여 김상옥(金相沃)의 <축석루>, 박종옥(朴宗玉)의 <축석루>, 정인보(鄭寅普)의 <진주의기사영송신곡>, 이호우의 <축석루>, 김정희(金貞姬)의 <논개 사당의 백일홍>, 박병순의 <축석루>, 원용문(元容文)의 <남강에서> 등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시조들은 개화 시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민족 정신에 대해 각성(覺醒)이라기 보다는 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到來)로 과거에 대한 자각과 회고의 성격을 감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개에 대한 회고의 시가 대개 그러하듯이 여기에서도 축석루와 의암,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남강과 주변 등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배경과 논개의 운명적인 삶, 논개의 절행, 그의 절행을 추모하는 사당, 그리고 사후 역사에 빛날 그의 정신들을 노래하고 있다.

시조시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그간의 고시조나 개화 시조와는 달리 거개가 연시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 때에 단형 시조의 고전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현대 시조 문학의 본격적 성숙기(成熟期)로써 보다 발전적 형태(자유로운 음수율과 행의 변화)와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이는 시조문학사(時調文學史)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우선 작품을 보기로 하자.

蠹石樓¹⁹⁾

蠹石樓 돌아드니 論介 적이 어느 때냐?

19) 이상·정태진 편,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회, 1946.

悠悠한 南江물은 예보던 물 아니러든
한숨만 그젠듯하여 차마 禁치 못하네.

高樓에 비긴 별은 그 때 별과 다르다만
義岩이 서 있는데 물결만이 굽이친다.
고기배 無心하여라 魂 님는 듯 하고녀.

살아서 못다한 恨 대(竹)가 되어 솟단말가?
잎잎이 눈물이요 마디마디 마음이라
실바람 지날 때마다 울음소리 같아라.

논개가 순국한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인은 '논개 적'을 회고하고 있다. 참혹(慘酷)한 역사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남강물은 이미 그 때의 물이 아니요, 축석루에 비취는 별은 그 때의 별이 아니지만 그가 순국의 절의를 단행한 그 바위(義巖)는 지금도 그 때의 역사를 말해주듯 묵묵히 서 있어 시인으로 하여금 세월의 무상(無常)함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오직 남강변의 대나무만이 논개의 충절을 기리며 논개의 혼(魂)으로 남아서 한서린 울음을 운다고 하였다. 대나무는 예로부터 정절(貞節)과 충절(忠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시문(詩文)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도 자연(自然)도 세월 앞에서 허무(虛無)한 존재(存在),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오직 한점 부끄럼없이 살다간 참된 인간의 모습 이요, 정신인 것이다. 그래서 맹자(孟子)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고 사람을 둘러보아 부끄럼이 없음(仰不愧於天 俯不 於人)' (『孟子』盡心章句 上)이 군자(君子)의 도(道)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 시인들은 논개를 여장부(女丈夫)로 칭송했던 것이다.

이와 동류의 작품을 또하나 보자.

矗石樓²⁰⁾

헐린 城廓을 둘러 강물은 흐르고 흐르고
나루에 빈 배 한 채 몇 몇 날로 매였는지
갈밭 속 해질 무렵에 기러기떼 오른다.

흰 모래 깔린 벌에 대숲은 푸르는데
무너진 흙담 안에 祠堂은 벽이 없고
비바람 추녀에 들어窓살 마자 삭는다.

육쓸어진 古木을 돌아 다락에 올라서면
옷빠는 안악네는 끼리 끼리 모여앉아
蒼蒼한 傳說을 띄워 물과 함께 보낸다.

이 시조는 역사의 사적으로서 축석루와 황량(荒涼)한 남강변의 배경을 들어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각 연(聯)이 감정의 격정적(激情的) 분출(噴出)이나 관념적(觀念的) 지향(指向)이 없이 현실적

20) 김상옥, 『초적』, 수향서헌, 1947.

상황을 통하여 그저 역사의 장(章)에 있었던 한 사건 썸으로 무리없이 읊은 한 편의 서정시(敍情詩)이다. 소극적 회고시(消極的懷古詩)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논개가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충절 여인(忠節女人)인데 그에 대한 후세인의 보답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흙담', '벽없는 사당' 등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시인은 엄숙한 그 역사적 사실은 다만 오늘날의 '옛 이야기'로 남아 후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라고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논개의 충절 정신에 대한 추모(追慕)의 정(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晉州義妓祠迎送神曲²¹⁾

계실젠 진주 기생 떠러지니 나랏 「넉」이
남강물 푸른빛이 그제부터 더 「지터」라
오실제 길뭇지마소 「핏줄」 절로 당귀리.

「례」맛고 문다드니 물넘어는 산들이라
이 강산 못「잇」기야 죽어살어 달르릿가
뚝단배 어이 섯는고 님이신 듯 하여라.

21) 정인보,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진주 <의기사(義妓祠)>는 영조(英祖) 16년(1740) 당시 경상우병사로 부임해 있던 남덕하(南德夏)의 건사 사액(建祠賜額)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건립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논개 사후 147년 만의 일로써 그간 구중구곡(九重九谷)을 떠돌던 논개의 영혼이 이로부터 후손들에게서 위로(慰勞)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정조(正祖) 3년(1779)에는 당시 경상우병사 홍화보(洪和輔)가 보수 공사를 하였고, 그의 사위인 정약용(丁若鏞)이 그의 장인의 청에 따라 19세의 약관으로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어 문명(文名)을 날리기도 하였다. 그 후 《진주읍지(晋陽邑誌)》에는 순조(純祖) 23년(1823) 목사 홍백순(洪百淳)이 의기사(義妓祠)를 새로 건립했다 하였고,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는 경상감사 이지연(李止淵)이 순조 24년에 건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백순은 순조 23년 4월에 목사(牧使)로 부임하였고, 이지연은 순조 23년 11월에 감사(監司)로 부임했던 것으로 볼 때 두 사람 다 <의기사(義妓祠)>의 중건(重建)에 관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²²⁾

시인은 시조의 제 1연에서 진주 기생으로서의 논개를 나라의 넋(민족의 정신)으로 승화(昇華)시켜 놓고 있다. 시인은 그 이유를 남강에 왜장을 안고 떨어졌다는 그 숭고(崇高)한 순국(殉國)의 정신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했다. 따라서 논개 사후 400여년이 흐른 지금도 후손들은 그의 충혼(忠魂)이 서린 <의기사>를 찾고, 그의 넋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군(檀君)이래 삼국인(三國人)이

22) 『承政院日記』2164책과 2172책, 순조 23년 4월 18일조와 동년 11월 10일조 참조.

나, 고려인(高麗人)이나, 조선인(朝鮮人)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한 핏줄'로 이어진 운명적 존재(運命的存在)이기 때문이리라.

제2연에서는 논개야말로 죽어서까지도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혼(愛國魂)으로 남아 있음을 칭송하고 있다. 시인은 논개의 거룩한 충절 정신을 돛단배의 이미지에 실어 예리(銳利)한 감성(感性)으로 읊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개의 회고시류(懷古詩類)가 그러하듯이 다음 시조에서도 시인은 축석루와 의암을 중심으로 하는 주로 시적 배경(詩的背景)을 통해 스며있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논개의 충절 정신을 그려내고 있다.

(가) 蠹石樓²³⁾

늪어 누운 나무 병들어 쓰러진 나무
 깎아 선 벼랑 끝에 가을바람 울고 가고
 빈 다락 夕陽 하늘에 낡을대로 낡았다.

두어 두어도 百年을 못하는 목숨들이
 한 나라 興亡에 걸려 싸워 죽은 자리
 모래는 희기만 하고 대수풀은 푸르고

23) 이호우,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

흔적도 없는 城터는 차라리 서럽지 않다
창연한 傳說을 지니고 외로 남은 義巖
저무는 江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는다.

(나) 남강에서²⁴⁾

진주를 하나로 잇는 진양교가 누워 있다
오늘도 봄바람 타고 이 난간을 짚고 서면
왜인의 시린 칼날이 콧등에 와 닿는다.

남강은 산 역사의 강 꽃은 저도 푸르러 오고
저 물결 멎는다 해도 그의 님은 白沙로 남아
임진년 덜 씻긴 한을 행귀내고 있을 거다.

江岸에 길로 자란 푸른 대밭, 푸른 노래
논개, 우닐던 자리 대나무로 앳은 뜻은
우리네 앳을 자리를 바로 일러 줌일 게다.

(가) 시조에서 보이는 '빈 다락 석양 하늘', '싸워 죽은 자리',
'흔적 없는 성터', '외로 남은 의암' 등의 공간적 배경(空間的背景)
속에서 역사가 활취고 간 빈 자리가 유난히 우리의 가슴을 처연(悽

24) 원용문, 『남강물에 촉석루 비치고』, 1981.

然)하게 만든다. 그만큼 당시 전란(戰亂)의 참혹(慘酷)함과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논개의 순국(殉國)이 후세인들에게 영원한 애국 충절(愛國忠節)의 표본(標本)으로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시조에서 시인은 주로 '난간을 짚고서면', '남강은 산 역사의 강', '그의 넓은 백사', '논개 우닐던 자리' 들을 통해 회고적 서정성(抒情性)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인의 시린 칼날' 이라든지, '임진년 덜 씻긴 한' 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앓을 자리' 들의 구절(句節)을 통해 우리의 역사 위에 지을 수 없는 민족적 한(民族的恨)으로 남아있는 임진왜란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歷史意識)을 던져주고 있다.

다음 시조는 시적 이미지를 최대한 살림으로서 현대 시조로서의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논개 사당의 백일홍²⁵⁾

유월에 서리 맺는 여인의 매운 한을
삼단 같은 머리 풀어 밤마다 울어 예더니
백날을 소지 올리는 불꽃이, 불꽃이 인다.

그 불씨 하나 벼랑을 물들이고
하늘도 물이 들어 구천으로 번지면

25) 『時調文學』 제9호, 1976 겨울.

백날을 밝히던 햇불 대들보를 그을렀다.

제1연에서는 '유월의 서리', '삼단 같은 머리', '백날을 소지 올리는 불꽃' 등의 시각적 이미지들이 백일홍에 비겨서 '왜적에 대한 분노와 순국의 애국적 충절 정신'이라는 주제(主題) 아래에서 유기적(有機的)으로 통일(統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삼단 같은 머리'의 시각적 이미지는 직유(直喩)와 결합되어 시적(詩的) 이미지의 조성(造成)에 기여(寄與)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제2연에서 시인은 '그 불씨 하나 벼랑을 물들이고'에서와 같이 색채적(色彩的)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하늘도 물이 들어구천으로 번지면'에서와 같이 회화적(繪畵的)인 이미지를 잘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불씨~'에서는 은유(隱喩)가 시각적(視覺的) 이미지와 결합되어 표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백날을 붉게 피어있다는 백일홍의 이미지를 통해 논개 사당에 서린 그의 정신의 신성함과 영원함이라는 주제를 나타냄으로써 부분적(部分的) 이미지와 전체적(全體的) 주제(主題)의 조화(調和)를 잘 살리고 있다. 이처럼 현대 시조를 통해서 나타난 논개의 충절 정신은 시인의 고도의 표현 기법(表現技法)에 힘입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애국 정신과 살신 보국(殺身輔國)의 한 표본으로 영원히 칭송 되어질 것이다. 이 외에도 박종옥의 <촉석루에서—의기 논개의 비각을 읽고>²⁶⁾와 박병순의 <촉석루>²⁷⁾ 등의 작품이 있다.

4. 결어(結語)

지금까지 논개의 생애를 노래한 시문, 특히 한시(漢詩)와 시조시(時調詩)를 통해 나타난 그의 충절 사상(忠節思想)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리 나라의 충절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無二心, 操守, 不事二君)'는 정신으로, 왕조 찬탈(王朝篡奪)의 경우에 보이는 충절의 신조(信條)로서 곳곳이 절개(節概)를 지키는 경우이다. 고려(高麗)의 유신(遺臣)으로서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절개가 유명하며, 조선초(朝鮮初)의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의 절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다음으로는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등의 국운(國運)이 위태로울 때에 발휘되는 충절의 경우이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지닌 충열 정신과 선비인 조헌(趙憲)의 충의 정신에 의한 의병 활동, 유정(惟政)의 승병 활동(僧兵活動), 그리고 진주성 전투에서의 삼장사(三壯士)와 왜장(倭將)을 안고 진주 남강에서 순국한 의기(義妓) 논개(論介)의 충절 등이 대표적인 충의 정신(忠義精神)의 발현(發現)이다.

역사적으로 충절을 지켰던 인물들과 충의 정신을 발휘한 인물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고난을 무릅쓰고 순사(殉死)하였으며 편안

26) 박종옥, 『상원시조집』, 고려문화사, 1948.

27) 『월간문학』 제31호, 1971·5.

히 일생을 마친 경우가 없다. 그것은 오직 자기 희생(自己犧牲)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의 육신(肉身)은 충절과 충의의 이름으로 순국하여 갔지만 그의 위대한 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논개를 추모(追慕)·찬양(讚揚)한 한시(漢詩)들은 대략 12편인데 이 시 편들은 성격상 둘로 대별된다. 하나는 진주성(晉州城)을 끼고 흐르는 남강(南江), 남강변 절벽 위의 의암(義巖), 의암에서 절의를 단행한 논개(論介), 언덕 높은 곳에 있는 축석루(矗石樓), 그리고 논개의 충절(忠節)을 기리는 의기사(義妓祠) 등 주로 자연적 배경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는 시 편들이다. 다른 하나는 논개의 장수(長水)에서의 출생(出生), 천성적인 정량(貞諒)한 기품(氣稟), 곤궁(困窮)한 성장 과정(成長過程)과 기녀(妓女)로서 논개의 운명적(運命的)인 삶, 의암(義巖)에서 왜장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어 순국한 과정, 사후(死後) 그 녀의 충절을 기리는 의기사(義妓祠),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명예(名譽) 등 주로 논개의 순국의 충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칭송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통한 충절 정신을 부각(浮刻)시키는 시 편들이다.

논개의 생애를 노래한 시조(時調)는 모두 12편으로써 이를 문학사적(文學史的) 관점(觀點)에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고시조(古時調)는 논개 사후부터 19세기까지의 작품으로 3수가 있고, 근대 시조(近代時調, 開化時調)로는 1수가 있으며, 현대 시조(現代時調)는 1945년 이후의 작품으로 8수가 있다. 고시조는 유형별로 볼 때 단형 시조(短形時調)이면서 제목(題目)이 없고 작자가

거의 불분명하며, 개화 시조와 현대 시조는 작자(作者)와 제목이 있고 주로 연시조(連時調)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개화 시조와 현대 시조에서 보면 '촉석루(矗石樓)'라는 제목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논개의 충절 행위가 촉석루와 의암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논개는 장수(長水) 풍천(楓川)에서 출생하여 천부적인 정숙(貞淑)한 성품을 지녔으며 곤궁하게 성장하여서는 관기(官妓)가 되어 불우한 운명적 삶을 살다가 국운이 위태로왔던 임진왜란(壬辰倭亂) 때는 기녀(妓女)의 몸으로 진주성 남강(南江) 의암(義巖)에서 아낌 없이 몸을 던져 구국(救國)의 충절(忠節)을 결행(結行)한 여인으로 시인들에게 칭송되어지고 있다.

논개가 국운이 위태로울 때를 맞아 왜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 것은 조선인(朝鮮人)으로서의 그의 본분을 다한 것이니, 곧 「충(忠)」으로서 진성(眞誠)이요, 무이심(無二心)인 것이다. 또한 조선의 관기로서 왜장에게 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죽은 것은 곧 「절(節)」이니, 이것이 조수(操守)요, 절조(節操)이다. 이는 옳은 일을 지키어 뜻을 굽히지 아니함이니, 곧 절개(節概)인 것이다. 이것으로써 논개의 충절 정신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한 논개의 충절 정신도 기녀로서의 논개, 한 여인으로서의 논개라는 이유로 의열(義烈)의 반열(班列)에 오르지 못하고 지내 오던 중 1721년(景宗 1) 진주의 관민 합동(官民合同)으로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건립하게 되었고, 1740년(英祖 16) 〈의기사(義妓祠)〉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의 생장지(生長地)인 장수현(長水縣)

에는 1846년(憲宗 12)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가 건립되었으며, 근래에 이르러 <의암사(義巖祠)>와 논개의 생가(生家)가 복원(復元)되는 등 여러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와 더불어 많은 시인들에 의해서도 그의 충절의 행적을 칭송하는 시문들이 끊임없이 노래되어 왔다. 끝으로 본 논문의 자료에 대하여는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편(鄉土文化研究所編)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 의미(歷史的意味)』에 수록한 경성대(慶星大)의 김철범(金喆凡) 교수와 부산외대(釜山外大)의 박경수(朴庚守) 교수의 논문에서 도움을 입었음을 밝혀둔다.

● 참고 문헌

『湖南邑誌』

『湖南節義錄』

『湖南三綱錄』

『承政院日記』

『教坊歌謠抄』

『金玉叢部』

『論語』

『辭源』

鄭 棡, 『明庵集』

許 澮, 『濂湖文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李止淵, 『希谷集』

朴致馥, 『晚醒先生文集』

金澤榮, 『韶濩堂詩集』

黃玪, 『梅泉集』

安鍾彰, 『希齋集』

崔秉軾, 『玉澗集』

金昌淑, 『心山遺稿』

李基白 著,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증보수정판.

심재완 편,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 박을수 편,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 정병욱 편,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0.
- 박병순 외 공편,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1985.
- 이상·정태진 편,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회, 1946.
- 김상옥 저, 『초적』, 수향서헌, 1947.
- 정인보 저,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 박종옥 저, 『상원시조집』, 고려문화사, 1948.
- 이호우 저,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
- 원용문 저, 『남강물에 축석루 비치고』, 1981.
- 『시조문학』제9호, 1976 겨울.
- 『월간문학』제31호, 1971·5.
-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편,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
1996.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 문학적 이해

순천대학교 교수
임 채 용

1. 머리말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말로 전하는 문학(文學)이다. 그런데 구비 문학은 기록 문학(記錄文學)만큼 중요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학은 글로 된 것이라야 한다는 관습(慣習)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기도 했었고, 민속학(民俗學)의 소관(所關)이라고 하면서 그 쪽으로 밀어 두기도 했다. 구비 문학을 통해 문학 일반의 본질(本質), 존재 양상(存在樣相), 기능(機能) 등에 관한 이해를 가다듬고 이론(理論)을 반성(反省)하자는 것이 구비 문학을 문학으로 연구하면서 노리는 바인데,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國內外)를 막론하고 나날이 축적(蓄積)되고 있다.

구비 문학이 기록 문학에 수용(受容)되어 변모(變貌)된 양상도 구비 문학 연구에서 마땅히 관심(關心)을 가져야 한다. 구비 문학이 기록에 올라 전하는 자료(資料)도 구비 문학 연구에서 계속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구전(口傳)되고 있는 설화(說話), 민요(民謠), 무가(巫歌), 민속극(民俗劇) 등은 구비 문학 연구가 아니면 수집(蒐集)하고 정리(整理)하며 해석(解釋)하고 평가(評價)할 수 없다. 구비 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學者)는 이 세 가지 영역(領域)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구전되고 있는 자료를 특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구비 문학 연구는 자료 조사를 무엇보다도 긴급(緊要)한 과제(課題)로 삼는다. 자료를 조사해야 비로소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서는 구비 문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연구해야 할 과제도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구비 문학 연구가 시작된 시기(時期)부터 지금까지가 전래(傳來)된 자료를 풍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고, 앞으로의 사정(事情)은 불투명(不透明)하다는 점을 고려(考慮)한다면 자료 수집의 의의(意義)는 그만큼 더 커진다.

의암(義巖) 논개(論介)는 목숨을 바쳐 충절(忠節)을 지킨 그 값진 죽음으로 인해 시대를 넘어 겨레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人物)이라 할 수 있다. 의암 논개를 주인공(主人公)으로 하여 구전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경남(慶南) 진주(晉州)와 전북(全北) 장수(長水)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散在)해 있는 여러 기념물(記念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代表的)인 것만 하더라도 진주성(晉

州城) 축석루(矗石樓) 경내(境內)에 건립(建立)되어 있는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光海君 12년)과 '의기사적비명(義妓事蹟碑銘)' (景宗 2년), 그리고 '의기사(義妓祠)' (純祖 24년)를 비롯하여 장수에 건립되어 있는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 (憲宗 12년), '의암사(義巖祠)' (1956년), '의암주논개랑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鄉事蹟不忘碑)' (1960년), '의암주논개상(義巖朱論介像)' (1980),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등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장수군에서는 해마다 군민(郡民)의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을 위한 대축제(大祝祭)의 장(場)으로 '의암제(義巖祭)'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같은 여러 기념물에 못지 않게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는 이야기 또한 의암 논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의암 논개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상(歷史上)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까닭에 그만큼 역사적 성향(性向)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本稿)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근거(根據)해서 논개의 신분에 대해서 재고(再考)해 보고자 한다.

2. 구비 문학적 이해

전설(傳說)의 형성(形成)은 사실(事實)과 사실의 과장(誇張)이나 와전(訛傳)에 의한 전설적 전환(轉換)이 함께 이야기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 그 자체가 곧 전설은 아니

다. 아무리 생애(生涯) 자체가 특이(特異)해서 널리 관심을 끄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실의 과장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전설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전설로의 전환이 납득(納得)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적(傳承的)인 유형(類型)도 받아들이고 작품 구조(作品構造)로서의 유기적(有機的)인 질서(秩序)도 갖추어야 하며, 창조자(創造者)와 수용자(需用者)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제기(提起)할 수 있는 폭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실은 그것대로 기억(記憶)된다고 해도 사실에 구애(拘碍)되지 않는 전설적(傳說的) 창작(創作)이 쉽사리 가능(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의암 논개의 전설에 대해서 구조적(構造的) 이해(理解)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구조적 이해란 이야기 한 편이 그 나름으로 지니고 있는 전승적인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며, 나아가 작품 구조로서의 유기적(有機的) 질서(秩序)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의암 논개의 전설 역시 구비 서사문학(敍事文學)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작품 전개(展開)의 시간적(時間的) 순서(順序)에 따른 구조, 다시 말해서 순차적(順次的) 구조가 존재(存在)할 수 있다는 전제(前提)로부터 출발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와 『우리 고장의 전설』(함양문화원)에서 조사된 자료 8편과 광정식(郭正植) 교수가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13편의 자료 등 모두 지금까지 조사된 논개의 전설 21편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는 광교수의 자료편에 의거(依據)했다.

(가) 논개 아버지 주달문은 주촌 마을 훈장(訓長)이었다.

- ① 논개의 아버님되시는 분은 학자(學者)로서 달문이라는 분이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촌으로 넘어가 훈장으로 살게 되었다. 마을에서 훈장 어른한테 주촌 마을 사람들이 살림집도 지어주고 대우를 했다.[의암 논개 (1)]
- ② 원래 논개의 아버지는 주촌 마을 진사 어른, 그 당시 훈장으로 이름은 달문이다.[의암 논개(4)]
- ③ 논개 아버님은 달문이란 분으로 훈장이었다.[의암 논개(6)]
- ④ 아버지가 가난한 선비로서 훈장을 하고 계셨다.[의기 논개]
- ⑤ 논개 부인은 아버지가 주달문, 진사 주달문이고, 작은 아버지는 주달무, 풍향 주씨다.[최경희장군]

(나) 부모가 외아들을 잃고(또는 아들이 없어) 절에서 지내며 기도한 끝에 논개를 얻었다.

- ① 대룡(大龍)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잘생기고 똑똑했으나 도중에 요절하게 되었다.[의암 논개(1)]
- ② 논개 앞에 대룡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으로 중간에 죽었다. 부부는 영각사(靈覺寺)라는 절에 들어가 불공을 빌어 무남독녀 논개를 낳았다.[의암 논개(4)]
- ③ 아버지가 아들을 못낳았다. 무남독녀 딸 한 분만 낳고서 일찍 돌아가셨다.[최경희 장군]

(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물이 좋았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 ① 신안 주씨 15대 조부 용일이라는 분의 묘소인 고사리 골이란 곳이 명당이라 논개가 태어난 연고도 그것으로 인해 인물이다.[의암 논개(2)]
- ② 영리해서 훈장 어른이 출타했을 때에는 대신으로 글을 가르쳤다. 또한 부친이 병이 들어 앓아 누웠을 때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봉양했다.[의암 논개(4)]
- ③ 한문을 하는데 재주가 아주 좋았고, 또한 인물이 썩 잘 났었다. 인물이 안좋았으면 왜놈 장수를 유인했겠는가.[의암 논개(6)]

(라)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자 숙부 주달무가 돈을 받고 팔았다.

- ① 논개의 삼촌이 한 분 있는데 이름은 주달무로 형님이 돌아가시자 사느게 어려워서 어딘가 돈을 받고 팔았다.[의암 논개(1)]
- ② 논개를 삼촌이 주막에다 팔았다.[의암 논개(2)]
- ③ 놈팽이 삼촌이 있었는데 부자이자 병신인 김풍헌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의암 논개(4)]
- ④ 성년(成年)할 무렵에 모녀와 주정뱅이 삼촌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없는 부자 늙은이한테 상의도 안하고 팔았다.[의기 논개]
- 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린 논개는 의지할 곳이 없어 작

은 아버지에게 맡겼다. 작은 아버지는 조카딸을 장수군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의 면장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민며느리로 보냈는데 그 면장 아들이 불구자였다. 그것을 알고 논개 어머니하고 논개는 도망을 쳤다.[최경희 장군]

(마) 장수 현감 충의공 최경희의 구원을 받았고, 뒤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① 삼촌이 논개를 최풍헌의 민며느리로 팔자 논개 모녀가 그것을 알고 피난을 하자 최풍헌이 최경희 현감에게 소장을 냈다. 최현감이 모녀를 불러놓고 재판을 했는데, 삼촌이 돈을 받고 판 것을 알고서 죄가 없다하고 무죄방면을 하였으나 오갈데가 없었다. 딱한 처지를 안 최현감이 자기 집에서 거처케 했고, 현감 부인이 깊은 병으로 오래 살 가망이 없자 논개에게 영감하고 후사를 부탁하였다.[의암 논개(1)]

② 장수 현감 충의공 최경희에게 억울한 사연을 고발하고 해결되자 논개를 빼어왔다. 삼촌이 또 괴롭힐 것 같아 최현감 밑에 살게 하였다. 관아에 들어가 현숙하고 점잖은 부인들께 예의범절을 배웠고, 엄격한 관아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었다. 부인 여흥 민씨가 병 중에 논개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하자 최현감이 후실로 삼았다. 현재 사당에서는 6월 29일 충의공 제사 때 논개도 같이

지내는데 후실로 생각하고 있다.[의암 논개(2)]

③ 최경희 장군과 논개 부인은 송사 사건으로 인연이 되었다. 논개가 형편이 어려워 오갈데가 없으니까 관아에서 지냈는데 정실 부인이 건강치 못해 부실로 들어갔다. 최현감 정실 부인 눈에 들었다면 인물이 훌륭했다고 보여진다.[의암 논개(3)]

④ 논개 모녀가 함양 외가로 도망가자 김풍헌이가 관에 고소를 했다. 장수 현감이 재판을 하고 논개 모친을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논개가 모친 대신 종노릇 하겠다고 나섰다. 현감이 그 녀의 효성에 감동해서 방면하였다. 그 뒤 현감 부부가 친자식같이 보살폈는데 현감 부인이 병이 들자 논개를 불러 후사를 부탁하고 그 뒤 현감과 부부가 되었다.[의암 논개(4)]

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기울자 잘사는 남의 집에 살았다. 진주성이 무너지기 전에 삼장사 중 한 분이 의병장으로 전라도에서 오셨다. 그 때 논개도 같이 따라왔다. 진주성에서 돌아가신 최장군 후처라고 알고 있다.[의암 논개(6)]

⑥ 그 때는 결혼하기로 돈을 건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다. 젊은 딸이 노인한테 팔려가 후처 노릇하기가 억울하니까 관가에 호소를 했는데, 저쪽에서 논개를 산 사람이 관가에 고소를 해버렸다. 그 때 최경희 현감이 담당했는데 정리상 소지가 없는 일이라고 구제해 주었

다. 최경회도 나이가 들고 본처가 노병이 있어, 모녀를 관가에서 기식시키며 병간도 하고 수종을 하게 했는데 처녀가 가정 교육이 잘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병들어 있던 최경회 본부인이 후처로 추천했다.[의기 논개]

- ⑦ 도망간 모녀를 면장인 김통이 고발하니까 잡혀왔다. 그 당시 재판장은 최경회 현감이었는데 조사해 보니 죄가 없어 석방했는데 거기서 인연이 맺어졌다. 논개 부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시종을 들고 하다가 그 뒤에 난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그 분이 같이 참전을 하셨다.[최경회 장군]

(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에 갔다.

- ① 최경회는 왜란이 일어나자 시묘살이로 거병을 못하다가 장수 의병들이 나서서 의병 대장으로 모셨다. 그러다가 직함을 받고 진주로 건너 갔다. 그 뒤에 논개 부인이 따라갔다.[의암 논개(1)]
- ② 최장군이 의병장으로 경남 진주로 지원하기 위해 떠났다. 논개 부인도 물론 따라가려고 했지만 최장군이 아녀자가 어찌 따라올 수 있겠느냐 했다. 그러나 논개 부인은 특별한 정신을 가지신 분으로 “그래도 나는 간다” 하고 단신에 뒤에 쫓아갔다.[의암 논개(3)]
- ③ 임진년에 난리가 나자 장수에서도 의병을 모았다. 그

때 장수에서 현감하던 최경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서 시묘살이에 들어갔는데, 장수 의병들이 그 분을 모셔 훈련도 시키고 공을 세우자 절도사라는 벼슬을 제수받아 진주로 가게 되었다. 최장군은 그 뒤 성이 장마에 무너지자 전사하였다.[의암 논개(4)]

- ④ 임진란 때 왜놈들이 진주성을 보름동안 포위를 해 군관민 의병들이 있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당해낼 수 없었다. 그 때 삼장사라고 하는 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전라도 의병장으로 진주성에 참전하신 분인데 그 어른이 이리로 올 적에 논개 부인도 같이 따라왔다.[의암 논개(5)]
- ⑤ 원수를 갚으라고 천한 인자기생으로 꾸며 장수기생이라 하며 기생(귀생)대신으로 들어가서 독한 술에 취한 왜장을 안고 의암 바위 밑으로 가 떨어졌다.[의암 논개(6)]
- ⑥ 임진왜란이 나자 최경희는 진주성에 병사로 발령을 받아 나갔고, 그 무렵 논개는 최경희 장군을 뒤쫓아 갔는데 성이 함락되었다.[의기 논개]

(사) 최경희 장군(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기생으로 사칭하고 왜놈들 승전 잔치에 나가서 순국했다.

- ① 최경희가 진주성 전투에서 역부족으로 왜놈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남강에 투신해 자결했다. 그 뒤 논개

- 는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기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남강 의암으로 왜장을 유인해 같이 죽었다.[의암 논개(1)]
- ② 논개의 기생 명칭은 서방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생에 뛰어든 것이지 원래 기생이 아니다.[의암 논개(2)]
- ③ 왜장들이 승전연을 할 때 기생만 모이라 했기 때문에 기생이란 신분이 아니면 참여를 못했다. 그러나 의암 논개 부인은 승전연에 원수를 갚기 위해 참여를 했고 결국 왜장과 같이 투항했다.[의암 논개(3)]
- ④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는데, 마침 기생들은 술잔치에 참가하라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수안기생에게 찾아가 짐짓 장수기생이라 속이고 이름을 올려 왜놈들 술잔치에 나갔다. 마침내 왜놈 장수를 유인해 물에 빠트리 죽이고 논개도 죽었다.[의암 논개(4)]
- ⑤ 최병사가 돌아가신 날 왜놈들이 축석루(예전에는 남장대)에서 크게 잔치를 벌렸다. 논개 부인이 원수를 갚으려고 기생으로 꾸며 잔치에 참여해서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께라는 자를 유인해 술을 잔뜩 먹여 물 속에 밀어 넣었다. 남편 원수 갚는다고 의암 부인이 그랬는데 그가 바로 나라의 원수이기도 하다.[의암 논개(5)]
- ⑥ 최경회를 따라온 것은 틀림없다. 장수에 있다가, 이분이 가야무라 로꾸스께라는 왜놈 장수하고 의암 바위에서 죽었다. 왜놈 장수는 일본 야사에도 나오는 인물로 가등청정의 부하 중 힘이 제일 센자로 당시 힘이라면

일가견이 있는지라 왜란시 가등청정을 죽였다고 오인할 정도였다.[논개(2)]

⑦ 비통에 젖어 논개는 복수를 결심하였다. 점령군이 진주성에서 전승 축하연을 하려고 시중드는 관기를 모으는 광고를 붙였다. 관기의 명부에 논개가 없으니 임실 관기라 속이고 지위가 높은 대장에게 접근해서 술을 많이 먹여 남강 가운데 의암 바위로 유인해 안고 뛰어 내렸다.[의기 논개]

⑧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까지 갔는데 최장군이 돌아가시자, 나중에는 기적에 올려 기생으로 가장해서 왜장들의 승전연에 참여하여 왜장을 자진해서 끌어안고 죽었다. 최경회 장군 원수도 갚고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최경회 장군]

위의 단락(段落) 분석(分析)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름 아닌 일대기(一代記) 형식(形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논개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成人)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생애(生涯)의 전과정을 나타내는 시간이 작품의 전개적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각 단락의 성격(性格)을 요약(要約)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단락 (가)는 논개의 부친이 훈장(訓長)으로 초대(招待)를 받아 이주(移住)하게 되었다거나 진사(進士)였다거나 하여, 혈통(血統)이 훌륭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락 (나)는 논개의 부

모가 장성(長成)한 아들을 잃고 후사(後嗣)를 잇기 위해 기도(祈禱)했으나 딸을 낳게 되었다고 했다. 단락 (다)는 논개가 어려서부터 용모(容貌)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글 공부를 통해서 그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하고, 조상(祖上) 산소가 명당(明堂)이었다고 하는 그럴듯한 근거(根據)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이는 논개가 범인(凡人)과는 다른 탁월(卓越)한 능력을 타고 났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락 (라)는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어린 논개가 불량한 숙부에 의해서 인신매매(人身賣買)를 당하게 되고, 이를 피해 외가(外家)로 도망했다가 재판(裁判)에 회부(會付)되는 등 논개에게 밀어닥친 뜻밖의 고난(苦難)을 보여준다. 단락 (마)는 의지(依支)할 곳 없는 어린 논개를 최경희가 구출 양육자(養育者)로 하여 불의(不義)의 고난을 극복(克復)해 간다는 것이며, 단락 (바)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전란(戰亂)으로 인해서 다시 논개가 고난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최경희를 따라 진주성(晉州城)으로 갔다는 것이다. 끝으로 단락 (사)는 논개가 죽음을 각오(覺悟)한 끝에 남편의 원수(怨讐)를 갚는다는 것인데, 이는 논개의 순국(殉國)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지란(危機之亂)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충절(忠節) 의식(意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의 단락 분석의 결과는 조동일 교수의 논문 「영웅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에 나오는 구조(構造)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고귀(高貴)한 혈통(血統)을 지닌 인물(人物)이다.

- (나) 비정상적(非正常的)으로 잉태(孕胎)되거나 출생(出生)했다.
- (다) 범인(凡人)과는 다른 탁월(卓越)한 능력(能力)을 타고 났다.
- (라) 어려서 기아(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마) 구출 양육자(養育者)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바) 자라서 다시 위험(危險)에 부딪쳤다.
- (사) 위기(危機)를 투쟁(鬪爭)으로 극복(克復)해서 승리자(勝利者)가 되었다.

의암 논개 전설은 임진왜란 때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진주(晉州) 남강(南江)에 투신(投身)한 것을 계기(契機)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논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남강에 투신할 때의 논개는 나이 어린 부녀자(婦女子)에 지나지 않았다. 지체 높은 분들에게 흔하게 있는 문집(文集)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이고 간단한 행장(行狀)이나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짤막한 서간문(書簡文) 하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꾸며낸 이야기는 모두 허황(虛荒)된 것이라 하고 굳이 믿을 수 있는 문헌(文獻)만을 고집한다면, 논개같은 인물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논개라는 인물을 역사적(歷史的)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이야기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암 논개 전설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다른 한 측면은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전설적(傳說的) 전환(轉換)을 겪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의암 논개 전설의 형성(形成)과 발전(發展), 또는 쇠퇴(衰退)에 관해 일정한 범위에서의

추론(推論)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암 논개 전설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전승 과정에서의 변이(變移)에 작용한 현실적(現實的) 요구(要求)는 무엇이였을까? 일반적으로 전설 형성의 처음 단계는 사실과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에 의한 전설적 전환이 함께 이야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실제 사건(實際事件)이라고 할 논개의 남강 투신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였다. 그리하여 틀림없이 처음 이를 목격한 현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얼마 동안 실제 사건이 화제(話題)가 되었고, 그 후 실제 사건에 과장이나 와전이 더해져서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논개가 죽은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저술되었던 유몽인(柳夢寅, 1551-1623)의 『어우야담(於于野)』 「효열편(孝烈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사실 이야기와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에 의한 전설적 전환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 준다.

논개(論介)는 진주(晉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기사년(癸巳年)의 때를 당하여 김천일(金千鎰)이 창의(倡義)한 군사들이 진주에 들어와 웅거(雄據)하며, 왜병(倭兵)과 항쟁(抗爭)하다가 급기야 성이 함락(陷落)되어 군사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이 때) 논개는 분단장을 하고 곱게 옷을 차려입은 뒤 축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서 있었으니, 아래는 만 길 낭떠러지로 물결 중심에까지 뻗어 있었다. 모든 왜병들이 보고서 기뻐하면서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는데, 홀로 한

왜놈이 뛰어난 모양으로 곧장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웃으면서 그를 맞이하고 왜장을 유혹(誘惑)하여 이끌었다. 논개는 드디어 그의 허리를 안아 일으키며 바로 못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임진년의 난에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辱)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은 자를 모두 기록(記錄)할 수 없으니, 논개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다수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저 관기란 자는 모두 음란(淫亂)한 창기(娼妓)이다. (따라서) 가히 정조(貞操)나 절개(節概)를 지킨다고 일컬을 수 없으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 또한 성군(聖君)의 덕화(德化)를 입은 한 인물(人物)로서 감히 나라를 배반(背反)하고 적을 좇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 마음이 없었으니 (오직) 충(忠)만 있을 따름이었다. (論介者 晉州官妓也.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師 入據(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 粧靚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賞巔(上) 其下萬丈直(卽)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以)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倭)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 官妓之遇倭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 而多失其名 彼官妓 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 忠已而矣.(倚歎哀哉)

이같은 이야기는 류몽인이 현지 사람들에게서 직접 채록(採錄)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전설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도 섞여 있다고 보여진다.

류몽인은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 선조(宣祖) 26년 윤(閏) 11월에 설치된 무군사(撫軍司)의 관원(官員)이 됨으로써 그 자신이 직접 삼남 지방(三南地方)에 내려갈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에는 세자(世子, 당시 光海君)를 따라 진주(晉州) · 금산(錦山)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를 작성하고 그 유가족(遺家族)들에게 면역첩(免役牒)과 식량을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그가 무군사의 관원으로서 군사의 모집과 훈련 및 보급 문제 뿐만 아니라 전몰가족(戰歿家族)을 조사 위문(慰問)하는 일까지 하였다면, 이같은 기회에 논개가 왜장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남강에 투신 하였다는 사실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같은 해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에 임명(任命)되었던 것이니, 이 기회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투(戰鬪)가 치열(熾熱)했을 뿐만 아니라, 6만여 군민(軍民)이 무참히 살육(殺戮)당하고 왜병들의 약탈(掠奪)로 거의 초토화(焦土化)된 진주성에 들려 저간의 사정을 직접 견문(見聞)했을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류몽인이 『어우야담』에 기록한 이야기는 진주성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歷史的事實)이라고 하는 것은 의암 논개가 왜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해서 죽었다는 실제 사건을 말한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충격적(衝擊的)이어서,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전달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백성의 입에서 입을 거쳐 계속 전승(傳承)되기 위해서는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설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럴 만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성의 입장에서 우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분 문제(身分問題)이다.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단계에서는 논개의 신분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겠으나, 전설적 전환을 거쳐 전승을 담당해야 하는 백성의 입장에서 논개의 예사롭지 않은 죽음과 함께 신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논개가 기생이라고 하는 점은 백성의 입장에서 매우 흥미(興味)있는 일이었으며, 이 때 논개가 진주 사람이 아니고 외래인(外來人)이었다는 사실은 신분에 관한 한 보다 광범위(廣範圍)한 상상력(想像力)을 자극(刺戟)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란(戰亂)의 와중(渦中)에서 진주 사람이 아닌 논개에 대해 그 신분을 진주성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남강 투신 사건 이후에 새로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아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制限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개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한계(限界)를 지닌 문제였으며, 결국 기생으로 알려진 신분은 일면적(一面的) 의의(意義)를 지니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설적 이야기는 기생이라는 미천(微賤)한 신분의 논개가 끝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나라와 겨레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관기를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

는 것은 사대부(士大夫)들의 일반적인 생각일텐데, 류몽인이 이를 비판하고 충(忠)이라 칭한 것은 아마도 진주성민들의 의식을 반영(反影)한 것인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전설적 전환을 거친 의암 논개 이야기는 전란이 남긴 상흔(傷痕) 속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 진주성민들에게 일종의 위안(慰安)인 동시에 새로운 결의(決意)를 다지는 이야기였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류몽인의 『어우야담』 전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 (나) 김천일이 창의한 군사들과 계사년(1593년)에 진주를 근거지로 왜적과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 (다) 논개는 분단장을 하고 곱게 차려 입은 뒤 축석류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왜병들은 바라보고 기뻐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 (라) 왜장 하나가 의기 양양하게 앞으로 내달아 오자, 논개는 웃으면서 왜장을 유혹하여 이끌었다.
- (마) 논개는 드디어 왜장의 허리를 끌어 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 (바) 임진란에 관기로서 왜적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기록하기 어려우며, 그 이름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다.

(사) 관기는 모두 음란한 창기들이라고 하여 정렬로 일컫기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녀 또한 성군의 덕화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아)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에 따르지 않았으니 다른 마음없이 충(忠)만 있을 따름이었다. 기이하고도 애통한 일이다.

논개 설화는 두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바, (가)에서 (마)까지는 논개의 일화(逸話)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敘事體)이며, (바)에서 (아)까지는 이러한 서사체에 대한 작가의 논평(論評)이다.

논개 일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논개의 인물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가)에서 (마)까지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순 구조의 에피소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에피소드는 논개라는 특정 인물이나 에피소드 그 자체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수단(手段)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첫번째 의미 단락은 논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녀가 대신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焦點)을 맞추어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서사체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바)에서 (아)까지이다. 작가의 논평은 관기라는 신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행위와 국난(國難) 속에서 가져야 할 이상적(理想的)인 행위를 준거(準據)로

논개라는 특정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논개 설화는 기본적으로 ① '관기/정열'의 대립적 의미 체계를 통해 신분과 신분적 행위 간의 관계를 규범화(規範化) 하고, ② 그런 규범화된 행위의 궁극적(窮極的)인 목표를 '열(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행동의 실천(實踐)에 두고 있다. 말하자면, 논개 설화는 논개라는 기생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기준으로 신분과 '열(烈)'을 설정하여 신분 질서와 충렬(忠烈)의 이데올로기를 강화(強化)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각(視覺)에서 그 기록자(記錄者) 류몽인은 논개 설화를 「창기편(娼妓篇)」이 아니라, 「효열편(孝烈篇)」에 수록(收錄)하고 있다. 그는 관기는 관기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行動樣式)이 있다는 전제(前提) 아래서 관기 논개의 행위를 창기(娼妓) 신분의 상징적(象徵的) 인물로서의 행위로 다루는 것이 아닌, '열(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한 사람의 모범적(模範的) 행위 그 자체로 다루고 있다. 그는 인간의 행위는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행위를 지배하면서 초신분적(超身分的)인 절대 가치(絕對價値)를 지닌 것으로 '충렬'의 행위를 설정하여 인식(認識)하고 있다.

의암 논개 전설 형성은 논개의 생장지(生長地)로 알려진 장수(長水)가 전승 지역으로 편입(編入)되면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는데, 논개의 생장지를 장수와 관련시킨 문헌 기록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다. 순조(純祖) 원년(元年, 1800)에 간행한 『호남 절의록(湖南節義錄)』에서 “기생 논개는 장수인(長水人)인데 최경

희가 좋아하였으며,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고 한데 이어, 헌종(憲宗) 5년(1839)에 간행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서는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헌종 12년(1846)에는 논개의 생장지를 기념하기 위해 장수에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攄名碑)’를 건립하였으며, 고종(高宗) 9년(1872)에 간행한 『호남읍지(湖南邑誌)』 중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의 절의편(節義篇, 義妓論介條)에는 “의기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으로서 충의공(忠毅公) 최경희(崔慶會)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崔公)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갔다”고 하였다.

이같은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의암 논개 전설 형성은 논개의 신분을 관기로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는 문헌 설화와는 다른 방향에서 19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논개의 생장지인 장수 지역 사람들이 새로 전승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개의 후손들은 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의암 논개의 전설 형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암 논개 이야기는 역사적(歷史的)으로 실재(實在)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논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논개의 성격이나 행적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소견(所見)을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며 때로는 논란(論難)을 벌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어떤 근거나 제약 조건(制約條件)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수 지역 사람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암 논개와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동일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는 거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合理的)인 근거(根據)를 찾고 되도록이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이다.

3. 사회적 이해 및 마무리

일반적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는 창조자와 수용자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할 뿐이고, 그 순간을 떠나서 또는 그 둘의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창조자와 수용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 둘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이자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논개 설화는 류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이르러서 문자로 정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구비 전승되고 있다. 문헌 설화로서의 논개 설화는 논개라는 기생의 행위를 실례로 들면서 동시대 인간 행위의 평가 기준으로 신분과 '열(烈)'을 설정하고 신분 질서와 충렬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그 기록자 류몽인은, 인간의 행위가 신분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초신분적인 절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충렬'의 행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논개 설화는 여성의 이상적인 행동 양

식을 정열의 준거틀로서 규범화하고 충렬을 그 궁극적인 가치로 설정한 교훈적인 설화이다.

논개 설화의 의미화 과정은 허구(虛構)의 실사화(實事化)와 허구의 허구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정열과 정절, 충렬과 민족 의식(民族意識)을 주제화 하여 수직적(垂直的) 남녀 관계, 신분 질서 체계, 소박한 감정적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논개 설화의 예술 형상화 과정은 논개라는 인물과 그녀의 행위에 동시적인 초점을 둠으로써 역사와 문학, 경험과 허구간의 중간 영역인 전기적(傳奇的) 문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물 전설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창조자와 수용자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면서 이야기하기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인물 전설은 크게 보아 이야기 집단에 따라 달라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인물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논쟁(論爭)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립에서 구체화(具體化)하는 것으로 인물을 평가(評價)하는 입장(立場)과 기준(基準)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集團)과 집단, 개인(個人)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그 성격(性格)이나 배경(背景)을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암 논개 전설의 경우, 대체로 그 논쟁은 기생이냐 아니냐 하는 신분 문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마저도 이념(理念)이나 가치관(價值觀)과는 상관없이 거의 지역적(地域的) 차이(差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의암 논개 전설은 신안 주씨(新安朱氏)라고 하는 한 가문(家門)의 선조(先祖) 이야기로 이룩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안 주씨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 훌륭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 의암 논개 이야기는 적장(賊將)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의거(義舉)를 목격(目擊)한 진주성민(晉州城民)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 때 진주성민들은 논개의 후손인 신안 주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되는 과정에서 의암 논개의 후손이라 할 사람들이 창조자나 수용자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投身)했다는 사건 자체는 후손이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나 다같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견해가 일치(一致)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의암 논개 전설이 계층(階層)을 초월(超越)해서 강한 침투력(浸透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도 결국은 이와 같이 일치된 인식과 견해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암 논개의 후손들이 창조자나 수용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사정은 사뭇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암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후손의 입장과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개는 결코 기생이 아니었다”며 ‘신안주씨종친회(新安朱氏宗親會)’와 향토사학자(鄕土史學者)들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때

진주 축석루에서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께(毛谷村六助)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구한 주논개 부인의 신분과 얼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안주씨종친회는 “임란의 최대 격전지(激戰地)였던 진주성내 의기사(義妓祠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 내용에 논개 부인의 신분을 잘못 명기(明記)한 부분이 있다”며 사적지(事蹟地) 옆에 이를 바로 잡는 안내문(案内文)을 세워줄 것을 진주시(晉州市)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논개 부인은 당시 군사령관격(軍司令官格)인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장군의 후실(後室)로 1593년 6월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성이 함락된 후 왜장(倭將)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민족 정기를(民族精氣) 일깨운 열사(烈士)였다”며 “사적(事蹟) 자체는 못고친다 하더라도 역사(歷史)를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암 논개 전설은 정렬(貞烈)과 충의(忠義)라는 사회 논리적(社會論理的) 의미로 널리 이야기되는 한편으로 신분 문제와 관련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후손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자기 조상의 지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道理)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사람들의 심리(心理)는 자기 조상에 대해 지체(肢體)를 높이려는 것이 예사인데, 의암 논개의 경우, 지체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미천하다고 할 기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생 아닌 논개 이야기는 강한 전승력을 발휘하여 이제는 논개를 기생이라고 하는 이전의 이야기까지 기생 아닌 것으로 바꿔 놓게 하였다. 그동안 사당(祠堂)을 세우고 생가(生家)를 복원(復元)하고, 또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대축제(大祝祭)의 장(場)으로 해마다 '의암제(義巖祭)'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등 '논개님'이라 지칭(指稱)하는 장수 지역 사람들이 의암 논개에 대해 쏟고 있는 정성을 보더라도 그들이 기생 아닌 논개 이야기의 성립에 어느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논개의 고향인 전북 장수에서 '주논개열선양회' 등을 주도하며 20여년간 논개 사적 연구를 해온 향토사학자 고두영(高斗永) 씨는 "선조(宣祖) 때 유학자(儒學者) 류몽인의 설화집 『어우야담』에 논개 부인이 기생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순국(殉國)할 때 기생 복장(妓生服裝)을 한 것은 진주성 함락 후 왜군의 살육 행위(殺戮行爲)를 보고 울분 끝에 왜장을 죽이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僞裝), 왜군의 술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의 성립에는 신안 주씨 후손 못지 않게 장수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役割)이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사정은 앞서 구비 문학적(口碑文學的) 이해(理解)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안 주씨 후손과 장수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의암 논개의 신분이 기생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자, 애초에 의암 논개 이야기의 발생지(發生地)라고 할 진주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전설 따위 구전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허황(虛荒)된 것이라고 하면서 문헌 기록만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까지도 과거에 논개를 기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논개가 스스로 왜장들의 승전연(勝戰宴)에 참석하기 위하여 택했던 위장 신분(僞裝身分)이었다고 이해하는 한편, 의암 논개는 결코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의암 논개 전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신분을 문제삼아 새삼스러운 논쟁을 벌이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의암 논개의 구비 문학적 이해의 측면에서도 이 점은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위 논고는 광정식 교수(경성대)의 논문 「의암 논개 전설의 연구」와 민병욱 교수(부산대)의 논문 「논개 설화의 극적 형상화 구조와 의미 구조」를 참고로 하였다.

논개의 생애와 총절

인쇄 1996년 12월 30일
발행 1997년 1월 10일

발행인 김진영

발행처 장수문화원

인쇄처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전화 : 735-7202, 738-6270

FAX : 733-1016

※ 이 책은 국고와 지방비 보조에 의해 간행되었음.

